2014 서울 속 마을여행

미아리고개 이야기 자원 모음집

2014

차 례

미아리고개의 옛모습과 변화상

001	미아리고개의 옛이름 - 적유현
002	미아리고개의 유래
003	조선시대 성밖 고을
004	조선시대 어영청의 구역
005	성밖 고을의 비 피해
006	북한산성을 쌓기 위해 미아리 통과
007	미아리, 판부사 김우항이 사는 곳
008	미아리, 좌의정 최석항이 사는 곳
009	미아리 거민들로 하여금 정릉 주변 무단 벌채를 막도록 임무를 주어라
010	양주 해동촌 - 미아리 - 서울 코스
011	미아리의 병자 수용소
012	교외에 널부러져 있는 시체들
013	동소문 밖 북위례성
014	전차요금개정에 불평 돈암리민이 궐기
015	동북부 시뇨작업장
016	무주택자를 위한 미아리 수용소
017	서울의 확대방향 - 미아리, 홍제동
018	시내 일부 동명 개정
019	미아리 숭인시장의 발족
020	새로운 판자집 미아리에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21	미아리고개를 포장해 주십시오
022	미아리 난민주택
023	철거민은 미아리로
024	미아리에 난민부락 건설
025	미아리고개를 넘는 차량들이 내는 소음
026	미아리 난민 정착
027	미아리에 수재민 들을 위해 천여호를 건축
028	미아리 택지 조정 공사에 동원 이촌동 수재민들
029	미아리 버스 기사의 질문
030	미아리 전원주택가 건설
031	미아리행 지옥버스
032	미아리고개를 걸어서 넘는 맛
033	미아리의 비닐우산 공장들
034	길음 공영주택 입주식
035	미아리에서 온영군 돌관 발굴
036	안암동-미아리간 외곽순환도로 준공
037	쏟아져 나온 스케이터들 미아리에서
038	비좁은 미아리고갯길
039	넓어지는 미아리고개
040	돈암동—미아리간 도로 900m 확장
041	미아리 전화국 신설 명년 수유리에
042	미아로의 미래상
043	북악스카이웨이 월말 착공 연내 완공
044	북악스카이웨이 개통

차 례

045	교통사고 위험지대 - 미아리 고개
046	미아리고개 불량주택 1,590동 개량
047	산꼭대기까지 집이 들어찬 미아리고개
048	성북구 길음동 일대 방범순찰 강화해야
049	미아리고개 일대를 개나리꽃길로 단장
050	정릉천 복개 사업
051	엉뚱한 지명유래 소개
052	성북구의 새 모습
053	미아리고개에 올림픽 상징 대형 벽화
054	미아리고개를 관광명소로
055	1990년 미아리고개 공원 조성 계획
056	미아리고개 전적기념관 건립 계획 취소
057	1996년 미아리고개 「문화공간」조성
058	1996년 미아리고개 공원 조성

미아리 공동묘지

059	경성부, 공동 매장지 선정
060	경성부의 공동묘지는 증설 논의
061	대구 진우연맹사건 가담자 김정근
062	죽은 사람의 주택난
063	이태원 공동묘지 만원
064	춘곡 임치정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히다
065	공동묘지 초만원
066	6개 묘지에 10만명 돌파
067	미아리 공동묘지 추석 성묘
068	미아리 공동묘지에 고별식장을
069	희생된 학병들의 단체식
070	정인수 군, 9일 애국단체연합장
071	성묘로 인파 이룬 미아리 고개
072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에 난관
073	이장으로 법석 미아리 공동묘지
074	공동묘지 이장 미아리 삼만 분묘 연고자 신고 요망
075	묘지 3만기 집단이장 강행
076	故 서해 최학송 이장
077	사라질 미아리 공동묘지
078	미아리 야화 1 - 모래 세례에 기겁
079	미아리 야화 2 - 달려드는 괴노인
080	미아리 야화 3 - 처녀 무덤 파헤친 총각
081	미아리 야화 4 - 밤 사이에만 이장
082	한식 날 미아리 공동묘지 풍경
083	공동묘지 수필

6.25와 단장의 미아리고개

084	남겨진 조소앙 가족의 슬픔
085	저널리스트 김을한의 수기 - 서울이 함락되던 날 아침
086	납북인사들의 행렬
087	미아리고개를 통해 서울로 들어온 북한군

차 례

088	민세 안재홍의 유족
089	미아리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박원남의 수기
090	황의순 주부가 기억하는 6.25와 미아리고개
091	납북될 뻔했던 가수, 신카나리아
092	납북된 소설가 박영준
093	미아리고개와 낙동강
094	반야월 '단장의 미아리고개'

서라벌예술대학과 미아리고개의 예술가들

095	서라벌예대와 서정주
096	서라벌예대 졸업생 한분순 시인의 회고
097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이경자의 회고
098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송기원의 회고
099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한승원의 회고
100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정종명의 회고
101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이문구의 회고
102	소설가 안수길과 그의 제자들
103	1971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
104	북디자이너 정병규가 회고하는 서라벌예대와 한국 문학
105	소설가 계용묵
106	소설가 박계주
107	조각가 권진규
108	성악가 테너 박인수

4.19혁명의 현장, 미아리고개

109	데모대원을 실은 트럭, 미아리고개를 넘어 창동으로
110	미아리, 안암동의 총성
111	미아리 방면 8백여 군중
112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의 유서
113	진영숙, 4.19의 밤 미아리고개에서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다
114	4.19 당시 미아리의 총성
115	4.19 때 쓰러진 진 양에 명예졸업장
116	미아리고개를 넘었던 5.16 반란군
117	1967년 6.8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고교생들의 산발데모
118	4.19 당시 데모대의 시위 장소

미아리 텍사스촌

119	종삼 '밤의 여인들' 미아리로 이주
120	매춘여성 사진 전시회
121	1990년 미아리 텍사스 취재기
122	연극 <미아리 텍사스>
123	'미아리텍사스' 정화 대회
124	「미아리 텍사스」 사라진다
125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수와 수입
126	미아리 텍사스촌 폐쇄
127	2.8% '미아리텍사스 맥주'
128	서울 미아리 텍사스 '性戰' 10년 그 이후…

차 례

미아리 점성촌	
129	자연이 알려주는 미래, 고대 한반도의 점술
130	고려시대 점술과 맹승
131	시각장애인, 조선시대 점술의 주역들
132	개화의 물결 속 점술
133	일제강점기 조선역리대성교의 설립
134	영도다리와 종삼, 남산의 점 마을
135	미아리 점성촌의 형성
136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전성기, 그리고 IMF
137	전자점의 등장
138	1978년 2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39	1978년 4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0	1978년 10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1	점에 약한 여심
142	1984년 6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3	1985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4	1986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5	정치인과 점
146	1995년 10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7	성북점자도서관
148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49	세계 점술가 대회
150	1999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51	2005년 5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152	2014년 미아리 점성촌 지도
153	송오순 역학사(매화부인예언가)
154	심남용 역학사(청산철학관)
155	홍수성 역학사(홍수성작명소)
156	이미경 역학사(은하수여성작명사주역술원)
157	이도병 역학사(철원철학감정소)
158	윤병관 역학사(늘푸른철학원)
159	이수남 역학사(개나리역학사)
160	이회택 역학사(동양철학관)

미아리고개의 옛모습과 변화상

No.	00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의 옛이름 - 적유현**	키워드	적유현, 선잠단
이야기	【산천】 한성부의 낭관이 사산(四山)을 나누어 맡아 긴관 금기처(緊關禁忌處)를 검거(檢擧)하며, 성 안의 전수 및 성 밖의 현무(玄武 북방) 주산(主山)에 표(標)를 세운다. 동지긴관(東指緊關)의 외청룡(外靑龍)인 석가호(釋迦岵) 안 사을한(沙乙閑) 남쪽 가에서부터 **적유현(狄踰峴)**을 지나 광평대군(廣平大君) 집 북호(北岵) 선잠제단(先蠶祭壇)에 이르기까지 선제원(善濟院) 서쪽 건너편 가에서 안암동(安岩洞)·저방동(猪房洞)·동대문에 이르기까지에는 모두 산 등 안팎에, 서지긴관(西指緊關)의 외백호(外白虎)인 모화관(慕華館) 뒤에서 사현(沙峴) 사축서호(司畜署岵)를 지나 청파(靑坡) 뒤에 이르기까지에는 산 등 내면(內面)에, 주작(朱雀 남방) 안산(案山)인 남산의 외면과 남대문 성 밖에서부터 전생서(典牲署) 뒤를 지나 벌아현(伐兒峴)에 이르고, 동쪽으로 두모포(豆毛浦) 후산(後山)·왕십리(往十里) 후산으로 나가고 돌아서 수구(水口)에 이르기까지는 산 등 내외면에 모두 표를 세운다.		
원천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권		

No.	002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의 유래**	키워드	한많은, 되놈, 학살
이야기	「미아리 고개」 앞에는 습관처럼 「한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국민가요가 되다시피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울고넘던 그 고개요, 한많은 미아리 고개」로 끝나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51 일대의 이 고개는 시내 혜화동에서 현재의 길음동으로 개칭된 「미아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36년 병자호란 때 「되놈」으로 통하던 청나라 군사들이 이 고개를 넘어 서울로 쳐들어왔다는 뜻에서 「되너미 재」「되너머고개」「적유령」 등으로 불렸다. 이 고개 옆 돈암동의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다. 1950년 6.25 당시 이곳은 아군의 1차 최후방어선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일만인 28일 인민군 탱크가 이 고개를 넘어오면서 서울이 함락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 9.28 서울 수복 때 이번에는 북한군이 이 고개를 넘어 퇴각하면서 수많은 애국인사를 북으로 끌고갔다. 끌고가지 못한 시민들은 고개 옆 성신여대 자리에서 무더기로 학살됐다. 5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미아리 고개 도로변에는 점술가들의 간판이 즐비하다. 높고 험준한 편이었던 고개는 여러 차례 공사로 깎여나가 이제는 완만하면서도 시원하게 잘 뚫린 왕복 8차로 대로로 탈바꿈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7. 6. 28		

No.	003	작성자	차현주
제목	**조선시대 성밖 고을**	키워드	어영청, 미아리계
이야기	성외(城外) 제기리계(祭基里契)·전농리계(典農里契)·벌리계(伐里契)·중량동계(中梁洞契)·능동계(陵洞契)·가오리계(加五里契)·장위리계(長位里契)·안암동계(安岩洞契)·우이계(牛耳契)·**미아리계(彌阿里契)**·청량리계(淸涼里契)·수유촌계(水踰村契). ○ 이상은 어영청 전영에 속한다. ○ 왕십리역계(往十里驛契). ○ 어영청 좌영에 속한다. ○ 신설계(新設契)·답십리계(踏十里契)·마장리계(馬場里契). ○ 이상은 어영청 중영에 속한다. ○ 왕십리 사계(私契). ○ 어영청 우영에 속한다. ○ 방내 백성들에게서 매달 예전 사축서(司畜署)에서 기르던 고양(羔羊)의 먹이 쌀겨[糟糠] 값 6냥을 거둔다.		
원천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권		

No.	004	작성자	차현주
제목	**조선시대 어영청의 구역**	키워드	어영청창, 미아리
이야기	어영청창[御倉]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 ○ 산성 부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획정한다. 신둔(新屯)·청담(淸潭)·서문하(西門下)·교현하(橋峴下)는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가오리(加五里)·우이동(牛耳洞)은 금위영창의 구역이며, 진관리(津寬里)·소흥동(小興洞)·여기소(女妓所)·삼천동(三千洞)은 어영청의 구역이다.		
원천자료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No.	00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밖 고을의 비 피해**	키워드	동부 자내, 미아리계
이야기	동부 자내의 6월 19일까지의 비 피해를 적간한 결과를 보고하는 선전관 김범구의 서계 ○ 적간하고 온 선전관 김범구(金範求)의 서계에, “신이 이달 9일 술시경에 삼가 승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받들어 동부(東部) 자내로 달려가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외계 12곳과 내계 9곳이 무너졌습니다. 그 신분과 성명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을유년 6월 19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외계 번리(樊里) 전 어영군(御營軍) 이만준(李萬俊)의 초가 5칸이 전부 무너졌고, 장위리(長位里) 양인 이소회(李所回)의 초가 8칸 중에 3칸이 무너졌으며, 종암리(鍾巖里) 양인 조만순(趙萬順)의 초가 6칸 중에 3칸이 무너졌습니다. 안암동(安巖洞) 양인 김삽사리(金揷沙里)의 초가 5칸 중에 2칸이 무너졌고, 신설계(新設契) 전 어영군 이춘석(李春石)의 초가 6칸 중에 2칸이 무너졌으며, 신평리사계(新坪里私契)양인 장선길(張先吉)의 초가 6칸 중에 2칸이 무너졌고, 최순용(崔順用)의 초가 6칸이 전부 무너졌고, 이귀복(李貴卜)의 초가 5칸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신평리 1계 양인 김삼돌(金三乭)의 초가 7칸이 전부 무너졌고, 이선이(李先伊)의 초가 7칸 중에 5칸이 무너졌으며, 신평리 2계 양인 심씨종(沈氏宗)의 초가 4칸 중에 1칸이 무너졌고, 독녀(獨女) 정 조이(鄭召史)의 초가 5칸 중에 2칸이 무너졌고, 정조이(鄭召史)의 초가 3칸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가오리계(加五里契)양인 이복이(李卜伊)의 초가 4칸이 전부 무너졌고, 김남석(金男石)의 초가 5칸이 전부 무너졌으며, **미아리계(彌阿里契)** 양인 강의길(姜宜吉)의 초가 4칸이 전부 무너졌고, 윤귀길(尹貴吉)의 초가 5칸이 전부 무너졌고, 이의관(李宜官)의 초가 6칸 중에 2칸이 무너졌습니다.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광서11) 6월 29일(병신) 맑음		

No.	006	작성자	백외준
제목	**북한산성을 쌓기 위해 미아리 통과**	키워드	이이명, 북한산성
이야기	今日入侍時, 判府事李頤命所啓, 半以上, 出備局謄錄。見上 御營廳所授水口南邊義相峯築城, 迤南數十步之外, 以其險絶, 闕而不築者, 亦數十步。其處雖曰難着足, 疾捷者猶可攀登。自外初見處, 無連絡城堞, 似爲虛疏。宜令本軍門, 更加設堞矣。行宮營建處, 亦爲看審, 則不無可論者, 重興寺基, 雖當中, 前溪甚逼, 左麓嘗崩, 以此移營於今基, 比重興比〈倍〉寬矣。內殿, 砌礎已排, 柱樑已竪, 而其向東北面多風, 內殿之前三間外, 又欲營外殿, 其間太窄, 外殿之前, 地勢陂陀, 似無庭際, 恐非善營。其西南隅古寺基, 向陽不受風, 極爲安穩, 與今營建處, 相去不過十七八間。臣意, 以今建內殿, 變爲外殿, 古寺之基, 南向作內殿, 恐爲得宜。以此言于他大臣, 則亦以爲然矣。本城自京都可通者, 有三條路。西則自弘濟院·綠礬峴之間, 北出津觀里前, 達於西門, 可三十餘里。其路本是小路, 地勢平夷, 少治則可成大路。東則出興仁門, 由貞陵前路, 過牛耳·彌阿里及道成庵前, 達于東北門, 可二十餘里。其道, 亦無險絶處, 善治則行車, 可至城門外, 而以役軍之數小, 半治而置之, 實爲可惜。宜令城役所, 更加繕治矣。前頭大駕, 若欲行幸, 則此二路之外, 似無他路。金重器, 新出一路, 出彰義門, 由北郊壇, 西緣山脊而上, 達於東門, 可十五六里, 最爲捷徑, 而縈回屈折, 間多峻急, 壘石繞崖, 每年水潦, 崩頹可慮。金重器之意, 蓋欲臨急取近矣。平時不可由此路行幸, 而但東門高大, 可容輦輿, 東北差小, 僅可容小輿矣。上曰, 所達諸條, 令廟堂斯速商確稟處。道成庵前路, 卽令善治, 可也。摠廳謄錄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10월 1일 (병진)		

No.	00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 판부사 김우항이 사는 곳**	키워드	미아리, 김우항
이야기	○ 假注書李庭綽書啓, 臣承命馳往于東小門外**彌阿里**判府事金宇杭所住處, 傳宣聖批, 則以爲臣罪犯至重, 倖逭刑章, 冒死請譴, 恭俟威命之加。不意史官, 辱臨荒郊, 傳宣聖批, 不賜嚴誅, 反降溫綸, 至以難强之狀, 予所知之爲敎, 雖慈父之詔愛子, 何以加此? 臣以首頓地, 不覺涕血之交瀉。臣八耋之年, 病纏骨髓, 兩脚痿躄, 全身不遂, 神精盡消, 知覺昏昧, 已絶生世之念, 便作未冷之尸, 而比數恒人, 得此罪名, 惶隕悚怖, 無地自容, 寧有幸其停論, 重入脩門之望? 而聖敎至此, 進參賀班, 縱不敢望, 謹當竢間入城, 仰請鈇鉞之誅云矣。敢啓。傳曰, 知道。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9월 11일 (기해)		

No.	008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 좌의정 최석항이 사는 곳**	키워드	최석항, 녹봉, 수송
이야기	○ 又以戶曹言啓曰, 依傳敎, 左議政崔錫恒去十月朔及今十一月兩朔祿俸, 令倉官更爲輸納于**彌阿里**所住處, 則以爲, 身在郊外, 冒受常廩, 古無可據之例, 不得奉留, 不勝惶恐云。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傳曰, 令倉官更爲輸送。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경종 3년 11월 3일 (기묘)		

No.	009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 거민들로 하여금 정릉 주변 무단 벌채를 막도록 임무를 주어라**	키워드	정릉, 동소문
이야기	○ 洪尙賓, 以漢城府言啓曰, 頃日仍禮曹草記, 貞陵內案山成壑處, 樹柵防塞次, 取用東郊松雜木傍枝事, 啓下, 故以此, 分付于該道監役矣。日昨得見該道監役官報狀, 則自陵所發送募軍及守護軍, 東小門外佛川東北面近處, 生松元株, 狼藉斫伐, 而旣有啓下公事, 故山直輩, 不能禁斷云, 聞甚驚駭。發遣府書吏及當道監役, 眼同摘奸, 則回告內, 生松大中小元株斫伐之數, 合爲二千九百餘株, 昔之菀然而蒼蒼者, 變爲濯濯赭山, 所見極爲愁慘云。詳細查聞則禮曹堂郎未出去之前二日, 繕工分差官, 先爲出去, 不爲親審監斫, 只送領役部將募軍輩, 以致恣意亂斫, 至於如此, 事之駭然, 莫此爲甚。當該分差繕工監官員及領役部將等, 令攸司從重科罪, 餘存生松, 不可不嚴禁護養。使東郊長位里·靑涼里·**彌沙里[彌阿里]**等居民, 着實分授, 俾無斫伐之弊事, 分付當道, 何如? 傳曰, 允。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5월 11일 (병술)		

No.	01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양주 해동촌 - 미아리 - 서울 코스**	키워드	조현명, 이익보
이야기	○ 假注書李益普書啓, 臣謹承議政府右議政趙顯命偕來之命, 來住于楊州海東村矣, 大臣今方離發, 前進于**彌阿里**。臣旣承偕來之命, 仍爲隨往之意, 馳啓。踏啓字。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10월 18일 (신유)		

No.	011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의 병자 수용소**	키워드	총융청, 홍석주, 미아리, 우이동
이야기	○ 任厚常, 以摠戎廳言啓曰, 謹依漢城府左尹洪奭周擧條批旨, 本廳字內, 東自**彌阿里**, 至牛耳洞, 西自甕巖洞, 至橋峴, 發遣將校, 一一摘奸, 則病幕合爲十二處, 而其中無幕者, 爲六處, 故宣布德意後, 爲先結構, 使之奠接, 種種考察, 如有出來者, 依例連次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순조 11년 4월 23일 (경오)		

No.	012	작성자	박수진
제목	**교외에 널부러져 있는 시체들**	키워드	손가장, 사아리, 시체
이야기	○ 又以御營廳言啓曰, 謹依傳敎, 臣惟秀率東部令臣洪錫鵬, 南部令臣尹泰兢, 本廳字內僵屍掩瘞事, 去月二十七日, 自城洞·安巖洞·狄逾峴·佛川·孫哥庄·**彌阿里**·水逾峴·伐里·小墨兒峴·沙阿里·鍾巖·雨裝峴·祭基里·典農里·踏十里·馬場里, 止往十里, 今月初二日, 自往十里·箭串橋·轟島·新村里·水鐵里·豆毛浦·漢江, 止鑄城里, 一二搜檢, 則僵屍爲五百六十四, 露骸爲六百七十七, 故竝卽深瘞覆土, 被莎插標之意, 敢啓。 傳曰, 知道。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순조 34년 2월 3일 (무술)		

No.	013	작성자	이승준
제목	**동소문 밖 북위례성**	키워드	이병기, 북위례성, 목책, 남위례성
이야기	남위례성을 찾으며 가람 이병기 마한 54국의 하나인 백제국으로서 백제시조 온조왕이 그 형 비류왕과 오간·마여 등 열 신하를 데리고 졸본 부여에서 남으로 와 북한산에 이르러 경성 혜화문 밖 십여 리에 있는 미아리라는 곳에 목책을 세우고 도읍을 삼아 북위례성이라 일컬었더니 말갈, 낙랑의 침노를 밧고 견디지 못하여 13년만에 한강을 건너와 여기다 또 목책을 세우고 도읍을 정하여 남위례성이라 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8. 5. 25		

No.	014	작성자	이승준
제목	**전차요금개정에 불평 돈암리민이 궐기**	키워드	동소문 밖, 전차요금, 개정, 교섭임원
이야기	8월 1일부터 실행될 경전차 요금 개정에 대해서는 조삼모사의 개정이라 하여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속출하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동소문 밖 돈암리에서는 전부터 불평이 만만하였다. 더구나 이번 개정에까지 쏙 빠지게 되자 일대 주민의 불평은 극도에 달하여 마침내 26일 오전 9시경 돈암리 주민 1천4백여호, 성북정 9백여호, 정릉리 4백여호, 미아리 3백여호 주민의 대표자 육칠백 명이 경신학원에 모여 동소문 밖 일대 주민 15만 여명이 출퇴근길에 전차,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다른 구역은 전부가 미미하나마 전차요금 개정안의 혜택이 있게 되엇는데 돈암리행 버스만은 제외되었으니 이것은 너무나 무리하고 불공평한 일이라 하여 대표자들은 돈암리행 버스를 특별 취급하지 말고 구제하여 달라고 교섭임원 6명을 선거하여 전기회사와 교섭하는 한편 관계 관공서에도 진정키로 하였다 한다. 이 날 선거된 교섭임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홍성화, 이규홍, 손운창, 박광희, 고하, 국우 제씨.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6. 7. 27		

No.	015	작성자	이승준
제목	**동북부 시뇨작업장**	키워드	돈암동, 무악재, 저류탱크
이야기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된 이후로 60만 부민들의 날마다 배설하는 똥 오줌의 처치가 큰 문제로 되어있다. 현재의 시설로는 그의 처치도 곤란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지는 도시의 위생 또는 미관 등 도시발전상으로 보아 다른 데로 이전치 아니하면 아니될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성부에서는 명년도부터 서북부 방면에 약 17만원으로써 동북부 방면에 약 21만원으로써 시뇨류송작업장을 시설할 계획이라 한다. 그는 동북부 시뇨작업장은 동소문 밖 돈암정 높은산 기슭에 약 5천석 저류의 시뇨탱크를 설치하고 그에서 시호농장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수유리, 양주군 노해면 척문리 등에 류송케 한다. 그리고 서북부 시뇨류송작업장은 무악재 고개 옆 높은 산 기슭에 약 5천석 저류탱크를 설치하고 그에서 고양군 은평면 녹번리 불광리와 고양군 신도면 진관리 등지에 유송케 한다. 전기 각 류송지에는 각지장을 설치하야 동북부 방면에서는 1년간 약 14만 석을 서북부 방면에서는 1년간 약 16만석을 각농가에 판매케 하려는 계획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6. 6. 23		

No.	016	작성자	이승준
제목	**무주택자를 위한 미아리 수용소**	키워드	세궁민, 무주택자, 수용소
이야기	한편 지난 3월 현재 남한에는 세궁민, 전재민 등의 요구호자 중에서 무주택 호수는 3만8천여 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부에서는 1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얻어 서울시에 800호를 위시하여 남한에 5,500호의 주택을 건립하였으며 이밖에 서울시내 7개소에 무료공동 숙박소, 영등포 · 마포 · 미아리 등지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도합 256세대 1,280명을 수용하고 있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8. 12. 31		

No.	01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울의 확대방향 - 미아리, 홍제동**	키워드	전차선로 연장, 홍제동, 서울발전확대
이야기	십년후의 서울은? 서울시에서는 수도 대서울의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팽창해가는 서울의 발전 확대 방향을 미아리와 홍제동 두 방면에 두고 있다 한다. 앞서 국회에서는 돈암동의 전차선로를 미아리까지 연장할 것이 토의 된 바도 있거니와 시에서는 예산문제로 즉시 착수하기 곤란하나 예산이 확립되는 대로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 즉 돈암동에서 길음동에 이르는 약 1,000m의 길을 너비 25m로 하고 길음교를 너비 30m, 길이 40m로 하며 물론 전차선로를 부설할 것이라 하며 한편 미아리 고개의 경사는 1/15로 깍아 내릴 것이라 한다. 이에 관계자는 고개가 없어짐으로써 절약되는 자동차 휘발유의 비용은 물론이고 4백만 평방미터의 평지가 생겨서 2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리라 한다. 과연 이 계획이 어느때나 실현될 것인가?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0. 2. 25		

No.	018	작성자	차현주
제목	**시내 일부 동명 개정**	키워드	동명 개정, 시내 편입
이야기	서울시에서는 15일부로 시내의 일부 동명을 개정하는 동시에 새로 편입된 지역의 동명을 다음과 같이 시조례 제10호로 개정 실시하였다. 성북구 석관동(석관리), 상월곡동(상월곡리), 하월곡동(하월곡리), 장신동(장신리), 번동(번리), 우이동(우이리), 수유동(수유리), 미아동(미아리). (이하 생략)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0. 3. 17		

No.	01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숭인시장의 발족**	키워드	숭인시장주식회사, 길음지서
이야기	6.25동란 전에 숭인면 관하에서 경영되어오던 미아리 공설시장은 정부 환도 이후 정릉동에 사회부 주택이 착착 건축됨과 아울러 격증일로 걸어온 주민의 구매력에 불편이 막심하게 되어 동민 유지들이 합심노력한 결과 구 미아리시장에서 약 오백미터 떨어진 길음지서 뒷마당에 2천 평의 대지를 점유하고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민영인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 재작 6월 5일부터 숭인시장주식회사로서 신발족을 보았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 6. 7		

No.	020	작성자	차현주
제목	**새로운 판자집 미아리에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키워드	만평
이야기	새로운 판자집 미아리에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향만평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 6. 3		

No.	02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를 포장해 주십시오**	키워드	내무부장관, 먼지, 소음, 위생, 건의
이야기	존경하는 금 내무부장관! 나는 일개시민으로서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의 미아리고개 너머에는 약 십만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조석으로 느끼는 것은 실로 놀라울 만한 먼지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고개만큼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탈길을 매일같이 열 지어 달리는 군용차와 그밖에 각종의 차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를 해치며 밤이나 낮이나 달리고 있으니 주변주민의 위생과 생활조건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설마 미아리고개 근방의 주민들이 모두 폐병에 걸려 죽는 것을 방임하시지는 않을 테지요. 불과 얼마 안들여도 고칠 수 있는 이 먼지의 고개를 하루 속히 아스팔트로 포장해 주십시오 나는 번거로우신 장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 대신 이 지상을 통하여 간청하는 바입니다. – 서울 성북구 일시민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 10. 9		

No.	022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난민주택**	키워드	350가구, 입주식
이야기	서울시는 제 3차로 350가구가 들어갈 난민주택을 완성하여 그 입주식을 현지 “미아리”에서 20일 거행한다. 당초 계획에 의한 1,007호의 건축공사는 8월말에 완성 예정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 7. 20		

No.	023	작성자	차현주
제목	**철거민은 미아리로**	키워드	판잣집, 철거, 불도져, 세궁민
이야기	시내 묵정국민교 건축대지에 자리잡고 있던 약 2백동의 판잣집들은 4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거가 단행됐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중구청과 중부서관계관들은 장충동 2가 현장에 출동하여 판잣집을 허물었는데 아무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느냐고 아우성치는 주민들로 한때 혼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이날 오후 4시경에는 판잣집 195동 265세대는 환전히 허물어 졌다. 고함과 울부짖음에 지친 주민들은 대개 품팔이 노동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세궁민들인데 그들은 다만 당국의 대책만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소개지인 “미아리”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불도져로 땅만을 밀어놓았을뿐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고 주민대표 황씨는 말하고 있었다. 이날 철거소동에 주민들과 경관들 사이에는 주먹질까지 있었다고 하며 주민 김영길씨는 고막이 터지고 얼굴에 타박을 입고 있었으며 묵정파출소 주임은 혼란통에 시계까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 10. 5		

No.	02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에 난민부락 건설**	키워드	유엔군경제조정관실, 북한 피난민, 상이용사가족
이야기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부락이 유엔군경제조정관실에 의하여 미아리에 건설되었다. 12만평의 황무지에 건설된 이 부락은 불과 8개월만에 준공된 것인데 해방 이후 남하한 북한피난민과 10세대의 상이용사가족이 수용될 것이다. 한편 O·E·C촌락개발국에서는 23일 현재 1천여건의 난민부락건설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완성되면 25만명의 북한피난민들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 12. 24		

No.	025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를 넘는 차량들이 내는 소음**	키워드	소음, 정릉, 클락숀
이야기	정릉으로 이사를 나온 지 어느덧 일년 반이 넘었다. 정육가서 살자면 밤늦게 들어갈 때 통금시간때문에 애먹지 않으냐고 묻는 친구가 더러 있다. 14년째나 계속되는 유명한 통금으로 세계기록을 수립한 우리나라에서나 있음직한 물음이다. 이제 4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통금의 독점이득을 보는 족속들이 횡행할 시기가 또 오나보다. 나는 해방후 한번도 통금위반을 해본 일이 없는 양민의 양민이라고 쑥스런 자화자찬을 하였더니 그 친구 왈 당국의 우민화정책에 적극 순응하였더니 치안국장에게서 양면괘지에 쓴 표창장쯤 받을 가행이라고 비꼬는 것이었다. 하필 왈양면괘지냐고 따졌더니 그까짓 소위에 좋은 표창장은 과람하다고하여 서로 웃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릉은 나같은 양민아닌 우민에겐 조용한 것만으론 자족할 만하다. 피난통에 새벽잠이 부쩍 줄어버린 것이 이제는 고질화되고 말았다. 꼭두새벽마다 잠이깨어 다시자보려는게 허사이므로 애초에 단념하고 책상앞에 일어나 앉는 버릇이 생겼다. 곤히 잠던 애들이 깨일까 봐 조심조심 소리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다. 이맘때면 미아리고개를 넘는 그 숫한 차들도 자취를 감추고 정적이 등골에 스며든다. 어느 시인의 말마따나 고요한 어둠이 크낙한 암탉처럼 만상을 품어주어 인간도 애잔한 병아리인양 그 날개 밑에 옹그리는 겸허의 시간이다. 이런 누리속에서 지나간 애환의 추억이 회전목마를 타고 돈다. 꿈많던 젊은날이 세월의 토족 밑에 낙엽마냥 짓밟히고 속절없는 빈 상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너무도 무기력하게 살아온 역정을 뉘우쳐가면서 안개낀 미래를 응시해보는 조용한 시간이란 하고한 날을 먼지 많고 차많고 가짜 많다는 삼다의 서울 장안에서 견디어내야만 하는 나같은 실향민의 생리로서는 운명적인 일과인지 모른다. 날마다 내가 넘나드는 미아리고개가 문명의 혜택을 입어 아스팔트를 뒤집어쓴 다음부터 갑충처럼 느린 뻐쓰도 있고 고개만 넘어서면 신바람이 나는지 속력을 마구 놓는 통에 아찔아찔 스릴을 느끼는 수가 많다. 이렇듯 고갯길에서 재주를 피우는 뻐쓰들이 얼마 전에는 길음교에서 콩나물 장수 한 사람을 리야카와 함께 뭉개버렸고 또 한번은 길아래로 굴러떨어져 애꿎은 집 한 채를 잣박산이를 만들군 하였다. 도시광조곡에 스텝을 맞추는 뻐쓰의 숨가쁜 호흡이 탈을 내는 증좌다. 요는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은 만원 서울이 빚어내는 윤화들이다. 어느날 밤 도심지대 교차로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자동차의 분류로 길을 못 건느고서 있는 군중 틈에서 어느 주정뱅이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런 제기 차만 사람이지 사람은 사람 아닌가? 하고 투덜대여 군중을 웃긴 일이 있었는데 부조리의 표본같은 그의 말에는 걸어다니는 시민의 공감이 깃들어 있는 듯 싶었다 차량의 무제한한 운행이 길 좁은 서울에서 시민에게 주는 이와같은 불안감을 해소하여줄 정치력을 바랄수 없는 것일가? 외국기자가 쓴 최근의 파란기행문에는 독소의 피스톤같은 전쟁 때문에 살육된 파란인은 총인구삼천오백만명중육백만명이 넘는 참화였다는데 지금 그 국민들의 절실한 소원은 평화라느니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분위기더라는 내용이었다 육이오 동란이 삼천만 인구 중 삼백만의 동포를 희생당한 우리 국민도 칼로 유리를 키는 듯 재긋재긋한 젯트		

	기의 폭음을 비롯하여 콩볶듯하는 기총소사나 귀청을 뽑는 포성에 시달릴대로 시달려 소음이라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고 말았다. 재건에 바쁜 우리에게는 집짓는 햄머 소리나 터닦는 뿌르도쟈 소리는 얼마든지 시끄러워도 음악처럼 흐뭇할 수 있지만 거리의 폭군인 자동차들의 크락숀 소리만은 제발이지 음향관제의 재갈을 물려 좀더 조용한 서울을 재건해볼 수는 없을까? 날이면 날마다 유족치 못한 생활에 신경질이 되어 서로 비꼬고 냉알 질시하고 약빠른체하고 호의 준수하고 눈치로만 살아야 하는 서민층의 노이로제를 무마해 주는 셈만 치고서라도 호기 있는 속력과 경적을 자랑하는 권력인사들께서 소음 방지에 솔선수범해 줄 수는 없을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믿고 서로 겸양하고 서로 이해하며 질서정연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통금과 윤화와 소음의도 가니속에서 피로하여진 도시인에게는 영원의 향수일지는 모른다. – 대학신문사 편집국장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1. 23

No.	026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난민 정착**	키워드	33인유족회, 피난민 주택, 유숙원, 한용운
이야기	이날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33인의 애국선열 유가족들은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자 뜨거운 눈물을 맺고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유가족 중 수명은 현재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가 하면 33인유족회에서 하등 생활보조가 없음을 말하여 주며 기념식에 참석한 기쁨보다 오히려 우울한 표정들만을 하고 있었다. 식장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다만 가슴에다 유가족이란 표지만을 달고 있었으며 식이 끝나자 제각기 뿔뿔이 헤어져 가는 것이었다. 33인의 유가족 중 수명은 기자에게 이날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여 주고 있다. ▲이동윤씨=53세(고 이필주 씨 장남)=생활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6명의 가족과 미아리에 있는 피난민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난민에게 주는 '밀'을 배급받아 살고있지요. 사단법인 33인유족회 이사로 있으나 유족들에게 생활보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별 감상이란 없습니다. ▲유숙원여사=67세(고 한용운 선생 부인)=딸 영숙(25)이와 같이 돈암동 48-44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동국대학교의 여사무원으로 있는 딸의 월급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유족회의 보조라니요? 없습니다. 무엇이라 감상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3. 2		

No.	027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에 수재민 들을 위해 천여호를 건축**	키워드	수해이재민, 공동묘지, 천막
이야기	보건사회부에서는 금년 내로 1,200호의 주택을 지어서 1,874세대 9,400여명의 수해 이재민을 입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주택이 건축될 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미아리 공동묘지 부근에 300호 불당동에 302호밖에 미아리 산 7번지에 200호 금호동에 400호를 각각 건축하여 입주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 주택이 마련될 때까지는 미8군과 군에서 300매의 천막을 대여받아 수용할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9. 11		

No.	028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택지 조정 공사에 동원 이촌동 수재민들**	키워드	이촌동 수재민, 미아리 택지 조정 공사
이야기	이촌동 수해 이재민들의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5일 허 서울시장은 “미아리 택지 조정 공사에서 그들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지금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공사이고 이재민들을 사용할 방침이며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2. 5		

No.	02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버스 기사의 질문**	키워드	미아리도로, 버스노선, 사상사고
이야기	問 별 다른 지직이 없는 운전수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양식은 오직 신문에 의존할 따름입니다. 전번에 박화성 여사와 허 시장의 독설내용이 귀지(貴紙)에 실려 있었는데 허 시장은 신년포부로서 도로를 확대하고 개울을 덮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사상사고가 나다시피하는 미아리도로를 금년에 넓힐 작정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는 비단 미아리 노선을 달리는 운전수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미아리 주민들도 도로확장에 관심이 지대한 듯하여 문의하는 바입니다. – 미아동 이정영 答 첫째 돈암동에서 정릉으로 통하는 미아리길은 금년내 확장공사를 합니다. 둘째 안암동로타리에서 고려대학 앞을 거쳐 미아리로 통하는 길은 현재 내무부와 그 공사계획을 절충 중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국도는 연내 확장공사계획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 토목과장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9. 2. 18		

No.	030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전원주택가 건설**	키워드	서울시, 택지조성, 길음동, 공동묘지
이야기	서울시 교외 미아리 일대에 107만평의 주택지를 마련해서 9천호에 인구 5만의 전원 주택가 건설을 착수하였다. 최초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넓은 주택지는 서울-의정부 간의 국도를 가운데 동서남으로 이루어질것인데 금년에는(3년차 계획 중 1차년도)그 중 30만평의 대지를 닦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미 현지 측량과 구획 설계를 마치고 4월 하순부터 정지공사에 착수할 작정이다. 새로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착수된 택지조성은 먼저 서울시가 10여 억환의 예산으로 대지를 마련하여 주택난 완화와 시중의 집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팔아주자는 것이다. 당국의 설계도에 의하면 변두리 주민의 골치였던 도로·수도·전기·하수도 시설은 물론 이 지역에 국민학교 3교와 중·고등학교 1교를 신설하는 외에(현재 경기대학은 이 주택지의 중심에 들게 됨)교회지구와 3천평의 시장과 1개소의 극장 1만3천평의 공원지역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택지 조성을 위해 작년에 미아리 공동묘지를 철거 하였는데 그 인상을 씻기 위해서 "미아리"라는 이름을 길음동으로 고쳐 부르기로 동명칭 개정 조례를 의회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지분양 가격과 요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시 예산상으로는 이곳 사유지의 경우 일평에 일만 오천환에 팔 셈으로 계상되어 있다. ▸환경 : 도심지에서 6,7키로 떨어져있는 이 지역은 북서에 북한산의 "백운대", "인수봉"과 도봉산의 아름다운 풍치를 등지고 앞으로는 관악산과 남산을 바라볼 수 있다. ▸기초공사 : 먼저 "부르도자"와 노력을 동원해서 정지공사를 한 다음 구획 설계도에 따라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는 서울 의정부 간의 국도에 평행하여 넓이 15미터 12미터 등 주요도로를 두고 10미터, 8미터, 6미터, 4미터의 길을 가로 세로 만든다. 그 다음에 축대를 쌓아 올린다. ▸수도 : 7만톤 증수공사의 완성으로 도로공사와 동시에 배수관을 시설한다 ▸하수도와 배수공사 : 도로공사와 동시에 완전한 하수도와 배수공사를 실시한다 당국자는 이 공사를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지분양 : 주택하나에 일백평이상 일백오십평을 표준으로 하되 채광과 통풍을 특히 고려한다고. 지대는 매호에 이백평 또는 삼백평의 넓은 대지를 마련한다 ▸사유지에 대한 조치 : 이 지역내의 사유지는 금융기관이 평가하는 값으로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매를 희망하지 않는지 주에 대하여는 지주승락을 받은 후에 조성공사를 마친 후에 공사 실비를 부담시키고 그 토지는 지주에게 환원한다. 매수에 응한 지주에 대하여는 대지가격(원가)에 공사비를 가산하여 우선적으로 팔아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9. 4. 10		

No.	03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행 지옥버스**	키워드	미아리, 버스, 인구증가
이야기	아침 미아리발 버스와 오후 종로4가에서 미아리행 버스를 한 번 타 보라. 이야말로 지옥이지 현세가 아니다. 발도 디딜 틈 없이 초만원인 버스 속은 남녀노소가 몸을 서로 맞대고 온갖 파렴치한 언행이 예사로이 연출되며 미친 듯이 승객을 떠밀고 아우성치는 차장의 노호에 장단 맞추고 있다. 그뿐이랴. 한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사고가 생기는 비좁은 미아리길을 달리며 가는 차를 앞서려고 달리고 있으니 외줄타기 곡예사에게 생명을 의탁하여도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아리 인구는 날로 느는데 배차 대수와 도로행정은 구태의연하여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오르려고 아귀다툼하는 꼴을 보고 정말 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국은 하루속히 이 참상을 시정하여 명랑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당국에서 열성만 가졌다면 노선 문제만 하더라도 삼선교까지 오는 버스를 미아리까지 연장운행시킴으로써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 4. 25		

No.	032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를 걸어서 넘는 맛**	키워드	돈암동 종점, 병풍

이야기

여름의 화첩 낙 폭
글 그림 박세원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돈암동 종점에서 내리면 으레 미아리고개를 걸어서 넘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나의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갯길 너머로 병풍처럼 벌어지는 정릉·우이동 산의 묘취를 매일 한 번씩 즐기고 마음이 되새겨 보는 한 일과인양 되어 있다.

맑고 깨끗이 개인 저녁 자홍으로 물들인 하늘 한 구석에 부조해 놓은 듯한 산의 정경을 고개 멀리 바라보는 맛도 좋지만 요즈음 같은 장림 때 산허리를 뭉게뭉게 싸고도는 안개의 시원한 모습은 더욱 청신해서 멋지다. 고개를 넘어서면 온종일 시달림에서 얻은 피곤이 한결 풀리고 훨씬 정신이 새로워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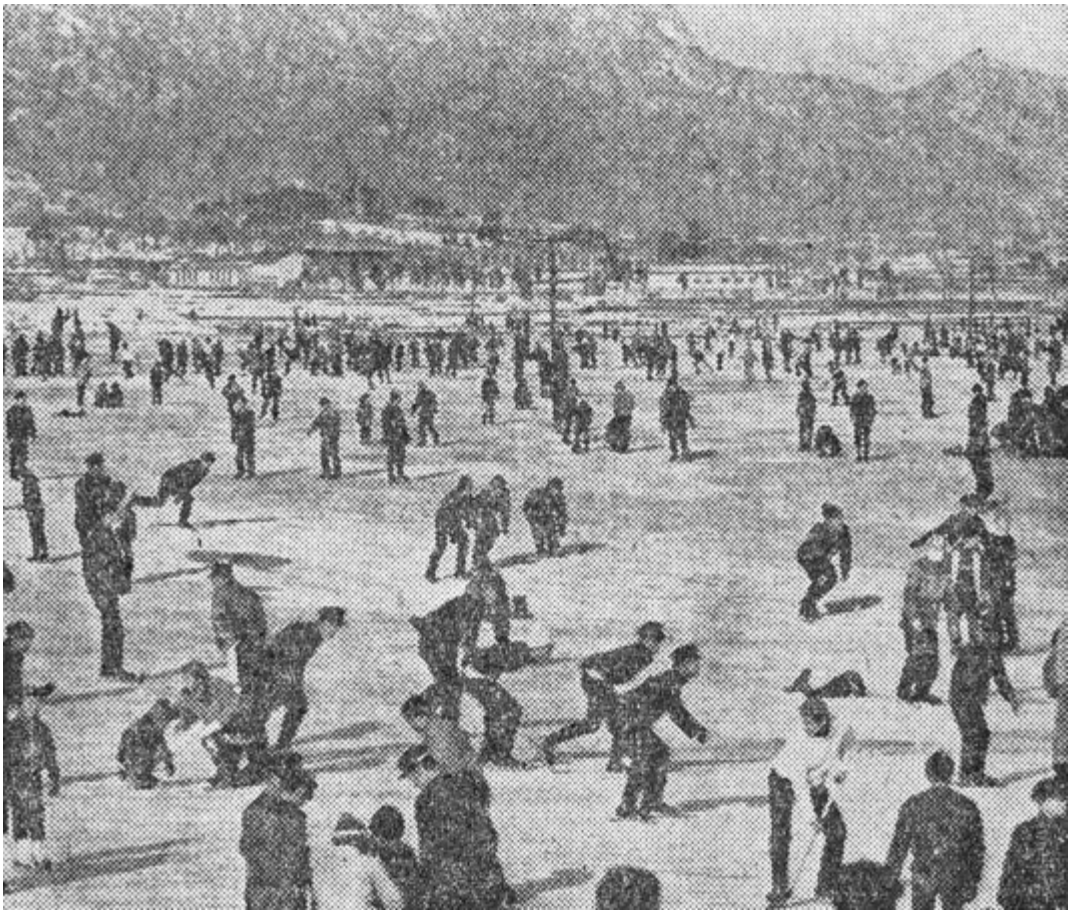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 7. 15

No.	033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의 비닐우산 공장들**	키워드	비닐우산, 공장
이야기	빗방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우산 장수들은 비오는 거리의 명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손쉽게 팔리는 우산을 한 개 95환이나 백환을 주면 공장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집에 갖다가 맞춰야 조립하므로 수공이 든다. 이 조립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조립한 우산은 도매로 넘겨 수공비만 뜯을 수 있고 구멍가게나 직접 비오는 거리에 뛰쳐나가면 사온 값의 배이상으로 팔 수 있다. 비닐 우산은 지우산 장사를 하던 진주 사람이 처음 만들었단다. 발생지는 어떻든 진주 전주는 도심지를 빼놓고는 집집마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미아리가 본고장으로 되어있다. 많이 나는 공장에서는 한해에 50만 개를 만들어 낸다 한다. 처음에는 비닐 우산 크기가 제대로 나왔던 것이 요새는 바람만 조금 불면 윗몸까지 젖을 정도로 작아졌다. 이는 값을 싸게 하기 위한 경쟁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자꾸만 질이 나빠지면 좋은 것을 찾게도 되어서 공장태도도 전환해야 될 날이 올 것같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5. 21		

No.	034	작성자	차현주
제목	**길음 공영주택 입주식**	키워드	공영주택, 길음동
이야기	서울시는 성북구 길음동 미아리 택지 조성지구에 지어놓은 공영주택 1백동이 완성되어 13일 상오 10시 입주식을 가졌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10. 13		

No.	035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에서 온영군 돌관 발굴**	키워드	온영군, 돌관
이야기	세종대왕의 동생이 되는 온영군의 무덤이 도시계획에 들어서 딴 곳으로 옮겨 묻기 위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있었던 이 은영군의 무덤 속의 큰 돌관 안에서는 청동 수저 한 벌과 항아리 접시 밥그릇 같은 이조자기의 깨진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옛 왕실의 무덤이 해쳐지던 24일 그곳에는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이조시대의 돌관이 나타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의 것이라든지 고려시대의 돌관이 나타난 적은 있습니다만 이조시대의 큰 돌관을 파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은영군의 돌관은 학자들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영군의 돌관과 함께 나온 유물들은 경복궁에 가져다가 일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10. 26		

No.	036	작성자	차현주
제목	**안암동-미아리간 외곽순환도로 준공**	키워드	외곽순환도로
이야기	서울시는 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마치고 19일 하오부터 개통했다. 이 길은 폭 25~30미터 총연장 3천 2백 24미터인데 작년 6월에 3천8백여 만원을 들여 착공 본래의 폭 6미터를 30미터로 넓힌 것이다. 이 길은 서울시의 외곽순환도로의 일부를 잇게 되는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12. 20		

No.	03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쏟아져 나온 스케이터들 미아리에서**	키워드	미아리, 스케이트장
이야기	쏟아져나온 스케이터들 미아리에서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3. 1. 3		

No.	038	작성자	차현주
제목	**비좁은 미아리고갯길**	키워드	교통난, 손수레, 버스, 전화케이블, 합승택시

이야기

서울 외곽지대인 미아, 길음, 수유리지구를 연결하는 미아리 고갯길과 불광, 응암, 수색지구를 이어주는 홍제동길이 옛날 모습 그대로 비좁아 그곳의 교통량을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빈번히 교통사고를 빚어내는 등 이 두 곳은 시내에서 교통량에 비해 가장 좁은 길로 시민들의 큰 공포의 지점으로 되어가고 있다.

시내 성북구 돈암동 종점에서 미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의 너비는 평균 10미터에 불과한데 이 길은 시내버스 180대와 합승택시 112대 그리고 수 없는 각종 차량과 통행인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으며 서대문구 영천동 종점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길중 무학재를 넘어서부터의 길의 너비는 평균 12미터에 불과하여 이곳을 왕래하는 시내버스 151대와 합승택시 76대가 번갈아 오가기에는 너무나 좁은 길목이다.

너비 10미터에서 12미터의 길은 대형버스 두 대가 간신히 엇갈릴 수 있는 여유밖에 없는데 양쪽의 보도는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된다.

버스, 합승택시 등 정규 코스 이외에도 일반차량의 통행은 더 많아 이 두 길의 너비에 비해 교통량은 터무니없이 커서 이곳을 운행하는 각종 차량은 달리기는커녕 기어가다시피하여 교통혼잡은 이를데 없는 실정이다.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좁은 이 두 길을 넓히는 일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품어왔으나 여태껏 이루지 못한 숙원으로 어느 일보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미아리 고갯길은 양쪽이 벼랑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주택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우이동 지구에서 들어오는 야채 손수레까지 이 좁은 길의 차량행렬에 끼어들면 보도없는 이 10미터 너비의 차도는 완전히 사람과 차량의 범벅이 되는 교통지옥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요즘은 또 전화케이블 매축공사를 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를 파헤쳤기 때문에 붉은 깃발 신호수가 고갯마루에서 차 한 대 한 대씩을 오고가게 하고 있어 교통난은 말이 아니다.

12미터 너비밖에 안되는 홍제동길은 양쪽이 주택가이기는 하나 평지이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데는 그리 힘든일은 아니다. 시민들은 미아리 쪽과 홍제동 쪽의 새로운 외곽지대로 다투어나가 살려고하나 서울 도심을 잇는 이 두 좁은 길목이 하루 바삐 넓어져 교통사정이 완화돼야 할 것이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너비10「미터」에「케이블」공사까지 하느라고 좁디좁은 미아리고개。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3. 7. 23

No.	03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넓어지는 미아리고개**	키워드	도로확장, 25m, 바위
이야기	북으로 뻗는 서울의 길목이 넓어진다. 약 반세기를 너비 10m의 길로 국도행세를 해오던 미아리고갯길이 서울시에 의해 25m길로 넓혀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총 공사비 843만원을 들여 착공된 돈암동-미아리도로확장공사는 1차로 고개위 바위부터 깨내는 공사로 시작됐다. 인도도 없고 길이 좁아 버스가 겨우 엇갈릴 정도의 이 길은 위험 속에 오랜 세월을 보내 왔는데 이번 공사로 인수동을 거쳐 삼양동 수유리로 뻗는 신설도로공사도 박차를 가하게 되어 이 지구가 주택가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로 철거될 80동에 대해 보상금도 확보했는데 공사구간은 돈암동 고개마루 150m 구간과 길음교에서 낙합교까지 450m이다. 군사 및 도시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이 도로 확장 공사에 이곳 주민들은 미아리고개마루를 5m 가량 깎아 전찻길도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4. 6. 17		

No.	040	작성자	차현주
제목	**돈암동—미아리간 도로 900m 확장**	키워드	도로확장, 노반 낮춤, 교통소통원활
이야기	서울시는 돈암동~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 제4차를 곧 지명경쟁계약제에 의해 도급시행할 방침이다. 이 공사는 돈암동에서 미아리에 이르는 현폭 10m~11m의 돈암동 고개 여장 900m 구간을 계획폭원 25m, 보도양측각4.5m, 차도16m로 확장하는 한편 현재도로의 종단구배 6%를 5.5%로 개량하기 위해 고개 부분의 노반을 약 2.5m 낮춰 이곳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사이다. 이 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있는데 이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는 3차에 걸쳐 내외건설이 도급맡아 전단시공했으며 현재 3차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원천자료	매일경제 1966. 5. 20		

No.	04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전화국 신설 명년 수유리에**	키워드	전화국, 수유리, 자동식전화
이야기	체신부는 명년도에 서울 미아리 전화국을 신축한다. 시내 수유리에 있는 시유지 약 3천 평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이 청사 신축에는 신년도 예산에 9천3백만원의 공사비를 계상 요구하고 있다. 2만 회선의 자동식전화를 수용하여 미아리 일대에 자동전화를 가설하려는 이청사는 지상4~5층에 1천 9백 평 규모의 건평을 갖추게될 것인데 동부는 대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설계 외주하고 있어 이 역시 외주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천자료	매일경제 1967. 11. 17		

No.	042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로의 미래상**	키워드	도로 신설, 도로 확장
이야기	혜화동로터리에서 돈암동을 거쳐 미아리고개, 수유리에 이르는 생활화된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 미아로는 의정부 등 동북부 전선으로 향하는 일대 간선도로로써 6.25 북괴 남침시 이 도로를 통해 북괴전차가 제 1착으로 서울에 침입한 한많은 사연을 간직한 도로이기도 하다. 미아로는 현 노폭이 서울대학 앞을 통과하는 대학로와 마주치는 혜화동로터리에서 삼선교, 동소문동1가에서 6가, 동선동1가에서 4가까지는 25m 도로이며, 이 도로변 일대는 노선상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확장계획이 서 있지 않다. 미아리고개에서 정릉천변의 미도극장 앞을 지나 종암로와 마주친 미아삼거리까지는 25m로 앞으로 확장시킬 계획이 서 있으며 미아리고개에서 미도극장 앞까지는 이미 노폭의 확장이 완료되었다. 특히 대지극장 앞의 삼거리에서 수유리 입구로 들어가는 신일중학교 앞, 수유리 파출소, 의정부 방면의 창동에 이르는 길은 노폭 35m로 확장시킬 계획하에 이미 삼거리에서 파출소앞까지 35m로 노폭이 확장되었고, 창동에 이르는 도로의 일부도 35m로 확장되었다. 미아로가 25m 내지 35m로 일부 구간이 확장되었거나 확장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거나 확장될 도로 중 먼저 새로 생겨날 도로로서는 혜화동 로터리 부근, 창경원 뒷담을 지나 현 성균관대학 약학대학 건물 중앙을 관통하여 우석대학 뒷쪽을 거쳐 천주교 혜화교회 앞으로 뚫리게 될 노폭 15m도로를 비롯해 미아리 소방서앞에서 출발, 송천초등학교앞을 거쳐 수유초등학교 옆, 우이동 유원지길과 연결되는 20m의 도로, 장위동에서 우이천을 끼고 수유동의 삼흥급유회사, 「스타」화장품회사앞을 지나 우이동 입구 파출소 뒤편을 통과해서 한국신학대학에 이르는 노폭 25m의 도로 및 정릉에서 국학대학앞, 성북구 출장소 뒤편을 통과해 삼양동 택지조성지구와 연결될 15m의 도로 등이 앞으로 미아로를 중심으로 해 새로 신설될 도로들이다. 신설될 것으로 확정된 도로에 이어 앞으로 새로운 도로로서 예정되고 있는 계획도로는 미아리 미도극장 앞에서 정릉천과 병행하여 서라벌예술대학 앞을 지나 종암로와 교차시킬 25m 도로, 수유동의 한국신학대학에서 정릉쪽으로 연결시키려는 15m 도로 및 월곡동의 정릉천을 기점으로 미아동의 수도원 앞을 지나, 성바오로 수녀원 건물 일부를 관통하여 수유동의 신일중학교 뒤편을 거쳐 「스타」화장품공장 앞길을 통과 장위, 우이동 간의 노폭 25m 도로와 연결될 도로 등이 앞으로 신설 계획되고 있는 도로들이다. 또한 미아로의 확장에 따라 장차 넓혀질 도로는 현 미아소방서와 미아초등학교 간의 도로가 노폭 20m 도로로, 미도극장 앞에서 숭덕국민교앞까지의 정릉천과 병행하는 도로가 노폭 25m 도로로, 정릉다리 건너 청수장 유원지로 들어가는 길이 노폭 15m 도로로, 우이동의 한일은행체육관 앞 서울종합병원 앞을 거쳐 우이동유원지에 이르는 길이 현노폭 10~15m에서 25m로 확장될 계획이고 미아로의 기점이 되는 혜화동로터리에서 혜화초등학교, 보성중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노폭 15m 로 확장되도록 확정되어 있다. 노폭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는 정릉동의 숭덕초등학교 앞에서 동소문동7가와 5가 사이를 지나 서울은행 돈암지점 「로터리」까지의 길이, 앞으로 현 노폭		

	15m에서 25m로 확장토록 예정되어 있다. 미아로를 비롯한 지선 도로망의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주변지역중 혜화동은 주거지역, 동소문동4가와 8가 사이 및 돈암동은 풍치지구, 미아동의 시장주변과 미아리 삼거리의 대지극장 주위는 상업지역, 송천, 영훈초등학교, 보록원 주변은 주거지역, 수유초등학교 부근의 우이동 입구 지역은 상업지역, 창동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개발시킬 방침으로 있는 것이다. 이제 미아동 신이중학 근처에 이모재벌측에서 완공한 택지조성 및 주택공사에 의한 삼양동 지역 50~60만여평에 달하는 택지 조성 등으로 미아로를 핵으로 하는 북부서울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천자료	매일경제 1968. 1. 15

No.	043	작성자	차현주
제목	**북악스카이웨이 월말 착공 연내 완공**	키워드	김현옥, 방어, 관광
이야기	9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미아리—정릉—북악산—자하문을 잇는 방어 및 관광용도로와 한양대앞 행당교에서 옥수동—서빙고동—제1한강교를 잇는 스카이웨이를 이달 말에 착공, 연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아리~자하문 사이의 길엔 조명등을 환히 밝힘으로써 무장공비나 간첩등의 침입을 막고 연변엔 관광시설을 마련, 방어와 관광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도록 할 예정인 데 길이 6.7㎞ 폭 16m 공사비는 2억7천만원 행당교~제1한강교 간의 스카이웨이는 길이 6.3㎞에 폭 16m, 공사비는 2억3천만원. 이 스카이웨이는 준공 후 유로도로화 할 예정이다. 미아리~자하문간의 도로는 옛 성터가 있는 북악산 상봉을 경유, 서울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데 도로의 위쪽에는 집을 못 짓게 하고 길 밑에는 녹지대를 만들어 드라이브를 하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이 방어 및 관광도로는 69년엔 자하문에서 청운동을 거쳐 사직터널로 연결되는데 이 구간은 4.3㎞이다. 김시장은 관광 및 방어도로 연변에 모텔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자본투자는 이를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8. 2. 9		

No.	04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북악스카이웨이 개통**	키워드	박정희, 서울의 명물
이야기	서울 성북동 아리랑고개와 창의문 (속칭 자하문)간을 연결하는 연장 9천26m 폭 10~16m의 북악능선도로(스카이웨이)가 28일 상오11시 박정희 대통령 김서울시장등이 테이프를 끊어 개통했다. 지난 2월 착공, 3억 4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의동쪽과 서쪽이 도심지를 통하지 않고 연결된다. 해발 280m에서 310m까지의 북악산 구준봉 등 능성을 깎아만든 이 도로에는 3개의 교량과 1개소의 루프라인(또아리식 도로)관망대 및 휴게소인 북악팔각정, 180개의 수은등, 급커브마다 반사경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쪽으로 북한산의 경치와 남쪽으로 서울시가지 및 멀리 한강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이 도로는 서울의 관광드라이브 코스와 수도방위선 등으로 서울의 명물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연인원 10만여 명이 동원돼 암석 20만㎥를 뚫어 이룩해 놓은 이 도로주변엔 「하와이」산 잔디와 9만 그루의 관상수를 심고 요소마다 정원석을 쌓았다. 당초 공사계획은 창의문~미아리고개간이었으나 창의문~아리랑고개간만 우선 개통을 본 것이다. 이 도로는 공사비를 모두 빼는 오는 80년까지 소형차량 50원, 대형차량 1백원씩 도로양쪽 입구에 마련된 수금대에서 통행료를 받는다. 이 도로는 서울시가 계획하고있는 산악 환상도로의 일부로서 오는 71년까지 완성될 서울 현석동~연희등~홍제동~창의문, 고대앞~미아리고개간의 반원의 환상도로에 이어지고 다시 강변3로 강변4로 등 강변환상도로와 연결, 서울을 한바퀴 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8. 9. 28		

No.	045	작성자	차현주
제목	**교통사고 위험지대 - 미아리 고개**	키워드	교통사고, 차량, 고갯마루
이야기	30여 도나 경사가 진 서울 성북구 북선동 48, 세칭 미아리고개를 오르내리는 각종 차량은 상오 7시부터 하오 7시까지 12시간 동안에 무려 4만여 대. 이곳에서는 1개월에 20여 건씩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는 접촉사고이지만 커다란 사고도 적지 않다. 다른 고갯길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고는 브레이크가 터지는 둥 차량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고 있으나 특히 이 고갯길은 노면 자체의 결함도 무시할 수 없다. 포장은 되어 있으나 비가 온 뒤 패인 곳은 보수가 안된 채 방치되어 있고 맨홀이 높이 20cm쯤 차도 위로 불쑥 나와 있는가 하면 높이 20cm쯤 되는 돌출물이 차도로 1.5m쯤 기어나오는 등 길이 고르지 못하다. 지난 8월 19일 하오8시45분께 이 고개를 넘어 미아리 방면으로 가던 서울 영5 5623호 급행버스(운전사 김종욱. 37)가 브레이크가 터지는 바람에 길을 건너던 박충영 군(18.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하고 계속 돌진하다 길가의 전주를 들이받고 가드레일 50여m까지 깔아뭉갠 뒤 인도에 뛰어든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마루턱을 넘어 내려가던 이 버스는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길위로 불쑥 튕겨져나온 돌출물을 피해나가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서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던 강원 자1 7686호 택시(운전사 윤명수. 32)를 들이받는 등 3중 충돌사고를 냈다. 동시에 이 버스는 브레이크가 터지는 바람에 전주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 고개 마루턱에 있는 건너는 길도 문제. 지난달 2일 하오 11시께 돈암동 쪽으로 시속 30km로 달리던 서울 영1 8391호 택시(운전사 박남규. 20)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명열씨 (47. 서울 성북구 북선동 12통 4반)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일어났다. 이 건너는 길에는 조그맣고 낡아빠진 표지판 하나가 있을 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선조차 없다. 더군다나 고갯마루 근처에서 차를 세우는 일은 운전사들이 되도록 피하려는 일인데도 바로 고개 맨위에 건너는 길이 있어 사실상 운전사들은 이곳에서 우선 멈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형편이다. 이 건너는 길을 없애면 보행인들은 6백여m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대앞에서 미아리고개를 통과하는 스카이웨이가 완공되면 이에 따른 육교를 부설하여 보행인들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하고 하루 빨리 이 고갯길을 포장하여 사고의 위험을 없애 달라고 경찰이나 인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9. 10. 3		

No.	046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 불량주택 1,590동 개량**	키워드	성북구, 생활환경개선 불량주택
이야기	성북구는 지난해 7월1일 도봉구가 떨어져나갈 때 변두리 외곽지대를 모두 안고 가버려 쓰레기, 분뇨비 수거지역이 없어지는 등 구행정이 많이 편해졌다. 그러나 장위동, 석관동, 정릉동, 월곡동 등의 변두리 높은 지대엔 아직도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신흥주택지가 된 장위동, 월곡동은 수도사정이 좋지않다. 그래서 성북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미아리고개를 넘어서면 서라벌예대 뒷산의 능선을 따라 즐비한 불량주택 1천5백90동을 7월까지 모두 개량한다. 이곳 돈암3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일대 4만4천3백69평의 불량건물을 모두 철거한 다음 65%인 28만8백89평은 택지로, 20%인 8천8백73평은 도로로, 15%6천6백57평은 녹지공원을 만들고 문화주택을 지어 연내 입주케 한다는 것이다.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있는 석관동 244 석관초등학교 뒤에 길이 4백 50m, 정릉1동 139정릉교회앞에 60m,장위2동106앞4백50m,상월곡동28일대에 2백m의 하수도를 6월중으로 신설한다. 구는 하수도사업비에 8백80만원을 책정했다. 또 본청으로부터 6천5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석관지역과 장위지역에 각각 5백m와 월곡지역에 2백m의 하수도를 암거공사도 벌인다. 하수도사업과 같이 뒷골목 포장사업에는 1천 4백 70만원을 들여 삼선1동4가38앞84m 미아리 고개~고명중학교까지 1백60m 삼선3동2가 232~293까지 3백50m 안암1동2가2의1~96 용문고등학교 입구까지 3백m 정릉동226일대 3백m 상월곡동28앞1백50m을 콘크리트로 포장할계획. 명랑한 창구행정을 위해 민원신청을 접수순위로 처리하는 표찰제를 실시하며 시민홀에 2명의 대서직원을 앉혀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화단조성계획에 따라 월곡로에 화단이 꾸며진다. 미아3거리부터 종암동까지 2km의 월곡로 양쪽에 길이 2m, 너비 70cm규모의 화단을 22m간격으로 99개 만들어 고운 거리를 이룬다는 것.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4. 1. 21		

No.	04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산꼭대기까지 집이 들어찬 미아리고개**	키워드	인구증가, 변두리, 주택문제, 도시개발

이야기

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의 변동은 다른 나라의 큰 도시들이 도시화과정에서 겪었던 것보다 인구 증감기복의 폭이 심한게 특징이다. 그만큼 서울은 전쟁, 변란 등 인구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물결의 흐름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이래 35년 까지는 연평균 4.1%정도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여오다 1936년 한해 동안에는 무려 76.9%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당시 경성의 행정구획 개편으로 기존시가지의 2배가 넘는 마포, 돈암, 청량리, 왕십리, 영등포 등 방대한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됐기 때문이었다. 세계 2차대전중인 지난 42년에 처음으로 백만명을 돌파한 서울인구는 전쟁기간인 43년, 44년, 45년 3년동안에 인구가 오히려 21만2천6백여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빚기도 했었다. 이는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해 많은 시민들은 전쟁터로 끌고 가기도 했고 폭격을 피해 서울을 떠난 시민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에 있어서의 인구변화의 격동기는 해방 이듬해인 46년부터 6.25사변의 발발, 휴전, 폐허의 수도재건시기인 55년까지의 10년간.

해외에 흩어졌던 교포들의 귀환과 88선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동포 등으로 46년에 36만 4천 6백여명, 47년엔 38만여명이 서울로 몰려들어 해방 당시 90만 1천여명에 지나지 않았던 서울시 인구는 불과 2년 사이에 74만 5천여명이 불어난 1백64만6천여명으로 급증했다.

사실상 서울시 인구문제는 이때부터 대두하기 시작, 서울시가 안고있는 최대의 치부이기도 한 판잣집 등 불량주택이 마구 들어서 주택문제가 첫번째로 등장한 것이다.

6.25의 폐허가 휩쓸고간 51년에는 무려 1백여만명이 줄어 서울시 인구 규모는 30년대 중반기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이 수복된 후 다시 인구는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 55년에 이미 전쟁전 수준에 육박했고 59년엔 2백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대부분의 과밀도시화과정에서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인구증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증가의 템포가 빠른데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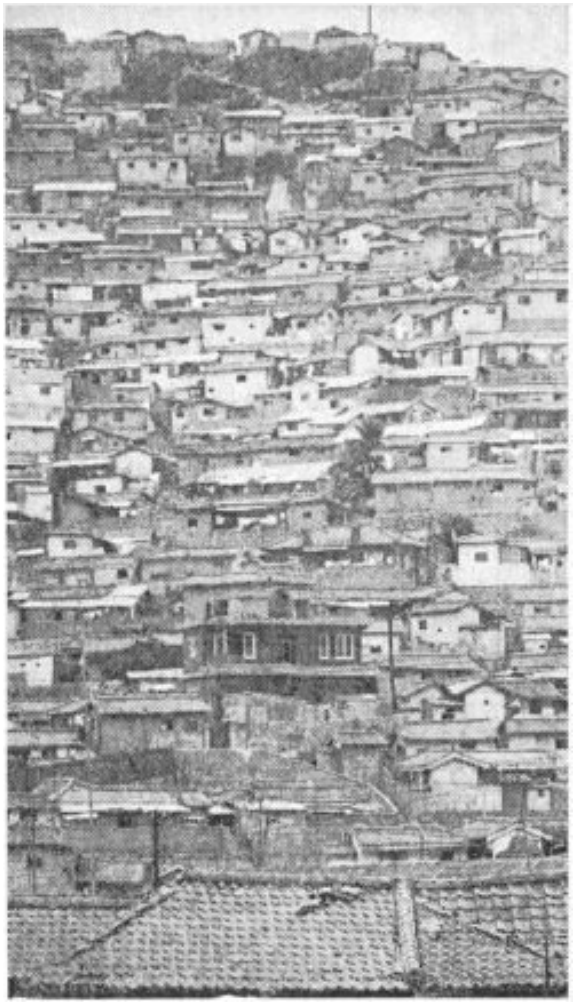
인구 25만 안팎의 한성부시대에서 30만이 될때까지는 무려 15년이 걸렸는데 30만이 40만이 되는 것은 10년, 40만명이 1백만명이 된 것은 6년, 1백만명이 2백만명으로는 15년, 2백만명선에서 3백만선은 3년, 3백만명선에서 4백만명은 4년, 4백만명선에서 5백만명선, 5백만명선에서 6백만명선은 각각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같은 서울의 인구폭발현상은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일정한 크기의 연못에 1천년을 걸려 그 절반을 연으로 채웠다면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을 실감케 하기도 한다.

지난 71년 9월 정부에서 확정한 국토종합계획상의 서울시 인구추정은 76년에 6백10만명, 오는 81년에 6백 30만명으로 잡았으나 인구증가의 가속현상은 이미 74년 10월 1일 현재 81년의 서울시 적정인구선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년대 초부터 서울에 전입된 대부분의 주민이 교육수준이 낮은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이란 점들이 도시개발의 장애요인

으로 등장, 도시개발의 소극성 내지 퇴행적 성격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4. 7. 3

No.	048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성북구 길음동 일대 방범순찰 강화해야**	키워드	길음동, 범죄, 미아리텍사스, 파출소
이야기	6.25 이후부터 난민과 철거민들이 정착한 성북구 길음동. 무질서하게 난립한 주택들은 좁고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만들었고 시장상가와 술집 여관 등이 제멋대로 들어서 있어 각종 도난사건, 폭력사건, 강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주민들은 큰 불안을 안고 있다. 기껏해야 0.26㎢밖에 되지않은 좁은 지역이면서도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릉천을 끼고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난잡한 술집과 방범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미로같은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골목 안에 자리잡은 시장등이 있기 때문. 특히 이 지역은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의 우범지역. 2, 3명 씩 떼지어 다니는 도둑들은 주택이나 거리, 상가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5일 낮 2시경 복덕방 주인을 가장한 30대 남자 2명이 혼자 집을 보고있던 노인순 부인(54. 길음동 481-190)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오우팔반지 등 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갔으며 지난 달 26일 새벽에는 큰길 가에 있는 금강사진관(주인 이수용. 32)과 아카데미사진관(주인 김창경. 31)에 문을 뜯고 들어가 카메라등 30여만 원 어치를 털어가기도 했다. 또 지난달 18일 아침 7시 반 경 길음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안남순 양(21. 길음동49)과 이숙자 양(26. 길음동419)이 핸드백 속의 현금 3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고 15일 오후 3시 경에는 20대 청년 1명이 아기를 안고 버스에 타고 있는 30대 부인의 금목걸이를 떼어 달아나기도 했었다. 정류장 부근에 사는 이모씨(35)는 “교통이 번잡하고 시장이 있어 소매치기가 극성”이라면서 “이들이 돈을 빼낸 육교에 버리고 간 빈 지갑만 해도 하루 평균 2, 3개씩이나 되며 각 증명서가 흩어져 있어 주민등록증은 몇십 장이나 주워 보냈다”고 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속칭 미아리 텍사스 골목을 비롯한 각종 술집이 줄을 이어 있는 탓인지 어두워지면 그야말로 폭력이 판을 친다. 이곳 주민 이상숙 부인(28)은 “밤만 되면 무서워 밖에 나가기조차 두렵다”면서 “접대부들의 괴성과 추태를 어린이들이 흉내내고 있다”며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같은 각종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의 활동은 소극적. 이 지역을 관할하는 길음파출소 소장 김용덕 경위(38)는 “얼마되지 않는 면적에 주민도 2만 2천에 불과하지만 워낙 골목이 좁고 어두운데다 광고물 단속 가격표시 위반업소 단속 등 각종 업무에 시간을 빼앗겨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규석 기자>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6. 7. 10		

No.	04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 일대를 개나리꽃길로 단장**	키워드	이미지 바꾸기, 개나리, 암벽
이야기	6.25의 비극을 겪은 후 슬픔과 분단의 고개로 상징돼온 미아리고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성북구청과 성북구민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운동은 그 첫단계 사업으로 서울의 도심과 북쪽을 잇는 관문인 미아리고갯길을 꽃길로 단장하는 일. 성북구청은 이미 5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10일부터 개나리고개 조성공사에 들어가 길이 2백m 높이 20여m의 미아리고개 양측절개지인 암벽에 특수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오는 20일경 준공 예정인 개나리고개 조성공사에는 성북구민들이 내놓은 개나리 5천그루, 진달래 5백 그루, 눈향 2백 그루, 회양목 2백 그루, 능소화 1백 그루 등 각종 꽃나무와 관상수 6천여 그루가 특수공법에 의해 심어지고 있다. 절벽의 일부를 깎아내거나 절벽에 돌을 붙여 제비둥지 모양의 화단을 마련하는 이른바 연소공법에 의한 특수조경을 시행하기 위해 이 공사에 투입된 기술자들은 밧줄에 매달려 어려운 시공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공사가 모두 끝나면 현재 살벌한 느낌을 주는 암벽들이 꽃과 나무에 묻혀 이 일대가 꽃동산으로 변하는 등 이 고개를 넘나드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줄 것이라는 성북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7. 4. 18		

No.	050	작성자	차현주
제목	**정릉천 복개 사업**	키워드	청수교, 월암교, 길음역, 동북권 생활중심지
이야기	정릉의 청수교에서 종암4거리 월암교에 이르는 정릉천 주변이 하천복개와 더불어 새 모습, 새기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지하철4호선 길음역이 자리잡으면서 주변 불량주택들이 재개발되고 복개도로와 함께 대규모 주차광장이 들어설계획이어서 이일대가 서울 동북지역과 도심을 잇는 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너절한 주택과 허름한 점포가 헐리고 현대식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핵이될 길음역주변과 정릉천 복개도로 주변의 변화를 알아본다. 청수교에서 월암교까지 2천2백60m 구간중 기존도로쪽으로 절반정도인 너비10~15m 이미 복개돼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또 복개도로변엔 가압장과 정릉 1.2동 사무소, 감리교회, 숭덕국교등이 자리잡고 있을뿐 대부분 단층구조의 한옥들의 밀집돼있다. 길음교에서 월암교사이의 하천 및 복개도로변은 불량주택, 환락가, 멋대로 들어선 소규모 점포들로 서울에서 손꼽히는 취약지역이다. 77년부터 복개를 시작, 지난해까지 28억 5천만원을 들여 너비 5~35m의 하천을 복개,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13억원을 들여 숭덕국교옆 길이 1백m 구간과 월암교에서 서라벌고교앞까지 2백 78m 구간을 복개하게 돼있다. 86년까지 계속 복개사업을 벌여 너비 20~37m 길이 2천2백60m의 구간 전체를 완전 복개하게 된다. 지저분한 환경을 가다듬고, 도로, 주차장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복개구간일부를 도로로 활용, 북악터널에서 화랑로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한다. 도봉구 상계동에서 시작해 혜화동쪽으로 이어지는 지하철4호선은 정릉천과 만나는 서라벌고교앞쪽에 길음역을 두게 돼있다. 이와 관련, 길음교에서 월암교까지 미복개된 하천은 올부터 복개를 시작, 1천대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7천평의 대규모 주차광장도 만들어진다. 길음교에서 정릉천과 맞끊고 지나는 미아로는 너비25m의 현재 도로가 너비 35m로 넓혀지도록 도로계획선이 나있어 이일대는 도로여건의 향상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며 교통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하천 복개가 마무리돼감에 따라 복개지 주변의 주택, 점포정비도 촉진될 전망이다. 지하철 길음역이 들어서는 섬모양으로 길음동 877일대 1만여평의 돈암2재개발 구역은 이지역의 모습과 기능을 일신시킬 핵심지역. 이곳은 미아로변에 5층규모의 대형쇼핑센터 3채, 5백50가구 안팎의 고층아파트 5채가 기존불량건물을 밀어내고 반듯하게 들어설 전망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체와 합동으로 빠르면 올가을쯤이면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복개도로 동남쪽의 돈암2구역 나머지 재개발지 8천여평 3백20가구도 멀지 않아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이곳 남쪽의 돈암동20일대 3만여평 돈암 3구역도 영향권에 들어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돈암 3구역중 서라벌고교옆 5천6백여평은 80년대초 이미 재개발사업을 벌여 연립주택2백16가구분이 들어서 있다. 돈암 현대아파트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사업 당시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이지역에선 가장 먼저 재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길음역 주변 재개발은 변두리지역의 주택건설위주 정비를 뛰어넘어 상업기능까지 겸		

	비, 재개발사업의 이정표가 될만한 곳이다. 바로 맞은편이 길음 시장으로 상권이 형성돼있고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등 부도심권으로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를 만드는 셈이다. 이곳에 월암교까지의 하천복쪽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널리 알려진 환락가. 이 환락가도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정비 압력을 받게돼 멀지않아 새로운 상업 주거 지역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길음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서고 길음 시장은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곳은 상권형성과 더불어 상업지역의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도봉과 성북 생활권의 중심지가 될만한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4. 4. 30

No.	051	작성자	차현주
제목	**엉뚱한 지명유래 소개**	키워드	성신여대입구역, 되놈, 6.25 중공군, 병자호란
이야기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구내 벽에는 돈암동이란 지명은 6.25 당시 중공군이 서울에 침입할 때 <되놈>이 온다하여 이들이 넘어오던 현재의 미아리 고개를 <되너미> 고개라고 불려지던 것을 한자로 돈암현이라 한 데서 유래됐다는 엉뚱한 지명유래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그러나 이곳은 일제 때도 돈암리 혹은 돈암정이라는 지명이 붙어 있었던데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동명 연혁고는 돈암동의 유래를 병자호란 때 오랑캐 즉 되놈이 서울을 침입할 때 이 고개를 넘어왔으므로 <되너미> 재 적유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5. 6. 25		

No.	052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성북구의 새 모습**	키워드	성북구, 불량주택, 고층아파트단지
이야기	성북구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산동네의 무허가 불량주택이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단장된다. 미아리고개 남쪽의 동소문구역은 구역면적이 7만평이 넘는 대규모단지로 현재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람공고절차를 끝낸상태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준비중. 구역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돈암2구역 1지구는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섬처럼 된 지역으로 상가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돈암1동 사무소 주변의 돈암2구역 2지구는 자력재개발에서 합동개발로 개발방식을 변경, 사업을 추진중이다. 삼선교네거리 북쪽 삼선중학교와 돈암국교 위쪽에 위치한 동소문동 1가 1 및 돈암동 606일대의 동소문구역은 구역면적이 7만 2천여평이나 되는데다 조합원수가 1천 6백여명이 넘어 단일지구로는 가장 큰 재개발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1백22회의 회의를 거쳐 지난 84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한신 공영을 참여업체로 선정하는 등 진정을 보여 지난해 4월에는 총 6만6천6백 70평의 공원용지 중 3만 1천 7백 60평이 해제되고 고도제한이 풀려 6~1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가 삼선교 네거리쪽 삼선중학교 뒤평 2천 1백여평을 구역으로 추가지정하면서 폭 18m 길이 2백20미터의 진입로가 확보되었고 지난 1월에는 사업계획결정이 내려지고 2월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일부주민들의 불만이 일련의 소요사태로 까지 발전, 재개발 업무 추진이 일시 중단상태에 빠졌다. 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하순에 주민 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진들에 대한 신임이 확인돼 가까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지적 및 지번 등기사항이 서로 다르거나 미비해 당초 소요사태의 발단이 됐던 1백 81건의 사고필지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확정되는 대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역내의 흥천사 소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25가구의 대지를 시유지 불하 주건과 같은 입장에서 구입하는 문제와 67평 규모의 광성 교회를 진입로 쪽으로 옮겨 4백평규모로 대지를 조성해주는 문제 등 구역내 시설물 및 지장물정비와 관련된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잇다. 6~15층 아파트 32동 3천8백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될 이지역은 경사지로 경관이 뛰어난데다 종로, 동대문 등 도심과 가깝고 특히 지하철 4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훌륭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단지내에 위치한 길음동 877일대 돈암2구역1지구는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여건을 활용, 당초 1만2천평 규모의 대형 쇼핑센터를 단지내에 건립키로 하는 등 특이한 개발 계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미아삼거리에서 문을 연 파레스백화점과 현대화된 길음시장이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대지극장 인근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어 당초의 계획이 변경됐다. 지난 5월 새로운 참여회사로 선정된 삼부토건은 사업추진을 서둘러 한달 보름		

	만에 건축 심의를 받았다. 지난달 건축 심의에서 4번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아파트단지 중앙에 위치한 길음 역사부지 1천6백평이 당초 공영도로주차장에서 도로공원으로 변경됐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폭 6m 수림대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단지 남쪽의 정릉천변은 오는 10월말까지 완전 복개돼 7천여평의 지하철 연계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복합상가 스타일로 개발될 15층 아파트 7동에는 7백43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평형별 배분은 26평형 4백33가구 , 32평형 1백80가구 42평형 90가구 등이다. 특히 참여업체과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급속도로 진전되자 당초 재개발을 반대해온 도로변 상가 소유주들도 재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중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9월부터 철거를 시작, 내년 2~3월 부터는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라벌 고교옆 정릉천변의 돈암동 4일대 돈암2구역 2지구는 자력개발 구역이었으나 최근 개발방식을 합동개발로 바꾼 지역이다. 합동개발이 거론되면서부터 2개 추진위원회가 대립해오다가 구청의 주선으로 지난해 6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 사업추진이 급진전을 보아 올들어 건축 심의를 마친데 이어 사업 계획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또 국유 및 사유지를 조합이 일괄 분양받고 점유자별로 제한적으로 불하받도록 해 20평 미만의 땅을 소유한 대부분의 영세민들이 실제로 재개발후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마련중이다. 10~15층 아파트 6동 4백 98가구를 짓게되는데 평형별로는 24평형 142가구, 30평형 56가구 이고 돈암1동 사무소가 단지 내에 들어선다. 미아리고개 동쪽의 돈암동 산6 일대 돈암3구역은 공원용지가 절반이 넘는 급경사지로 82년 새로 재개발구역이 조정된 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천자료	매일경제 1986.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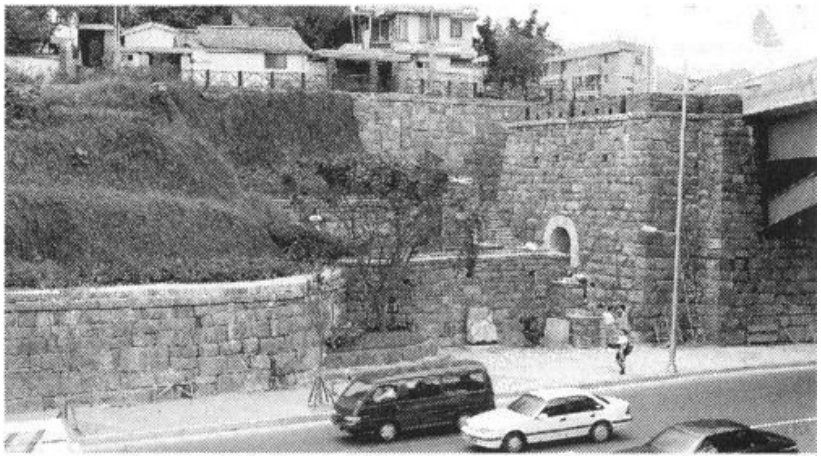
No.	053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에 올림픽 상징 대형 벽화**	키워드	88올림픽, 성북구
이야기	성북구는 공공시설이나 도로변의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벽면을 새로 도색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공릉동~화랑로~미아삼거리~혜화동에이르는 7.4km 구간의 성화 봉송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또 영세민복지 증진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구민회관을 건립, 구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올해 모두 53억 1천 2백만원을 들여 34건의 건설사업을 벌이게 된다. 분야별로는 도로포장 및 개설 11건에 30억 8천만원, 상하수도 14건에 16억 3천만원 기타 9건에 5억 9천 7백만원이 투입된다. 고대~북한산 길 개설 도로 고려대 이공대 뒷길에서 북한산길에 이르는 너비 6m의 도로 1.07km를 개설한다. 오는 9월 말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5천만원. 길음교도 현재의 너비 23m길이 35m에서 너비41m 길이 45m로 넓히고 너비 7m의 램프 1백 10m를 신설한다. 19억원의 사업비로 연말 완공 예정. 7개동 급수 호전 상하수도 종암동 산 6의1 종암배수지를 현재의 용량 8백t에서 2천 8백t으로 확충하고 직경 1백 50~3백mm의 상수도관 3.5km를 묻는다. 오는 6월 말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8천만원.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선1,2 돈암 1,2 정릉1 안암 동암1동 등 7개동 3천 9백 50가구의 급수 사정이 한결 나아진다. 성화봉송로 꽃길화 녹지 성화봉송로 주변 58곳에 화분 5천 3백 33개를 설치하고 페추니아등 7종 38만본의 꽃으로 꽃길을 조성한다. 북악스카이웨이 노변에 개나리 쥐똥나무등 3천2백 2그루를 심는다. 미아리 고개에는 가로 20m, 세로10m 대형 올림픽상징벽화를 그린다. 돈암동에 구민회관 복지 돈암동 606 동소문재개발지구내에 14억 2천만원을 들여 구민회관을 건립한다. 대지 4천 1백 41평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연내 완공할 예정.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회의실 직능단체 사무실 독서실 노인정 유아원 등을 갖춘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6. 1. 8		

No.	05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를 관광명소로**	키워드	전적기념관, 북악스카이웨이,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야기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채로 / 뒤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 맨발로 절며절며 울고넘던 그 고개여> 56년 세상에 첫선을 보인이래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애뜻하게 만드는 유행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의 현장에 6.25 동란을 기리는 전적기념관과 위령탑이 전후 만 40년만인 올해 안으로 세워진다. 서울 성북구청은 6.25와 관련, 많은 사연을 담고있는 미아리 고개 주변에 전적기념관을 세우자는 지역주민들과 재향군인회성북지회등 국가 유공단체의 건의에 따라 미아리고개에 전적기념관과 함께 애국인 사위령탑을 세워 이곳을 관광 명소화 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자리잡은 해발 1백 34m의 미아리고개는 해방 전만해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악재와 함께 서울에서 북방으로 가는 길의 시발점인 동시에 북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종착점이었다. 조선조 병자호란때 청나라 군대가 이고개를 타고 넘어와 <되너미고개>라 불리기도 했고 이 되너미에서 지금의 돈암동 이름이 유래됐다는 것. 6.25 당시는 서울의 최후방어선으로 50년 6월 28일 이 고개가 적의 손에 넘어가면서 당시 참모총장이던 채병덕 장군이 한강 철교 폭파를 명하게 된 쓰라린 역사도 지니고 있다. 9.28수복으로 쫓겨가던 인민군들이 이 고개를 통해 8만 5천명에 이르는 애국인사 대부분을 철사줄로 두손을 꼭꼭 묶어 맨발로 끌고갔고 끌고가지 못한 시민들은 부근 야산에서 학살해버려 민족의 한과 눈물과 피가 어린 고개였다. 이같은 사연을 안고 있는 미아리 전적 기념관 건립과 관련, 대한 무공 수훈자회 성북지회장은 “6.25사변 당시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에 변변한 전적기념관 하나 갖추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아리 토박이> 왕길재씨는 “51년 4월초 인민군들이 서울에서 쫓겨갈 때 수백명의 인사를 5~6명씩 굴비엮듯 묶어 끌고가면서 총개머리판과 채찍으로 마구때리는 모습을 창문틈으로 엿보았다”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때 끌려간 인사 대부분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만큼 위령탑이 세워지는 이들의 혼백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는 미아리고개 부근인 돈암동 일대 사유지 3천여평을 매입, 기념관은 3층 규모로 짓고 위령탑에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 가사를 새겨 넣기도 했다. 특히 미아리고개 위로 길이 40m의 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 전적기념관이 종로구 효자동~북악스카이웨이~성북구 종암동을 잇는 스카이웨이의 중심지가 돼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0. 2. 7		

No.	055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0년 미아리고개 공원 조성 계획**	키워드	서울시, 미아리전적광장, 위령탑
이야기	6.25의 애환이 담긴 미아리고개 일대에 개운산 공원 등 3개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6.25발발 40주년을 맞아 오는 95년까지 모두 2백억원을 들여 성북구의 개운산공원 월곡 제1공원 성북공원 등 총면적 20만평에 달하는 3개 인접공원을 북한산 자연공원과 연계시켜 각각 특성있는 녹지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돈암동 산6-1일대 개운산공원을 중심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기로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이곳에 미아리전적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숱한 전재민의 심금을 울리며 유행했던 '단장의 미아리고개'(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노래비도 세우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올해안에 용역발주 중인 이들 3개 공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현재 7만7천여평의 개운산 공원용지를 16만8천평으로 확대지정하는 한편 월곡제1공원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92년까지는 월곡1공원 개발을 완료하고 개운산공원 개발에 착수, 93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운산 및 성북공원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운산 공원에 미아리 전적광장 위령탑 이외에 체육광장, 팔각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휴식시설을 유치하고 미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는대로 북악스카이웨이를 미아전적광장까지 연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월곡제1공원 주변에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다목적광장 및 전망대, 산책로, 주차장 시설을 건립,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성북공원은 문화회관, 체육광장을 유치해 체육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0. 2. 6		

No.	056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 전적기념관 건립 계획 취소**	키워드	6.25 40주년, 기념관, 백지화
이야기	서울시가 지난해 6.25발발 40주년을 맞아 전적지인 미아리고개 주변에 전적기념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계획이 슬그머니 백지화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빈축.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미아리 고개 부근인 성북구 돈암동 일대 사유지 3천여 평을 사들여 3층짜리 기념관과 위령탑을 세우겠다며 91년 상반기 중 착공, 93년 완공 예정이라고 요란하게 홍보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현지 답사 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취소된 것.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적비를 세운다면서 국방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무턱대고 홍보만 한 것은 한건주의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비아냥.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1. 6. 28		

No.	057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6년 미아리고개 「문화공간」조성**	키워드	문화공간, 성북문화원, 진영호 구청장
이야기	최근 모습을 드러낸 서울 미아리고개 정상의 횡단교량. 이 교량 아랫부분에 시와 문학을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 바로 교량 아랫부분 돌무더기 조형물 안으로 모두 60여평. 성북구 진영호 구청장은 5일 “역사가 배어있는 미아리 고개를 단순한 주민 휴식공간이 아니라 시낭송회, 문학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원래 「통일 염원의 장」으로 꾸며 6.25의 참상을 재현한 동판부조작품,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와 안개분수 등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돌무더기 내부가 굴속 같아 자칫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바꿨다. 성북구는 오는 7월까지 이 홀의 내부에 음향, 조명시설을 갖추고 전통차 등 음료를 판매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4월 말 건립되는 성북문화원 주관으로 문학토론회와 시낭송회 그림전시회 등을 열어 명실상부한 도심속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6. 3. 6		

No.	058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6년 미아리고개 공원 조성**	키워드	공원, 조형물, 노래비
이야기	6.25전쟁 당시 민족지사들이 줄줄이 엮인 채 북으로 끌려가 단장의 고개로 불려온 미아리고개가 역사성을 간직한 시민휴식공원으로 꾸며진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51 주변 미아리고개 정상 양편 393평에 조형물과 벤치 등을 설치해 소항하는 가로공원을 다음달 1일 완공, 일반에게 개방한다. 미아리고개는 병자호란땐 오랑캐가 넘어왔던 곳이라고 해서 적유령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일제때는 조선인 공동묘지가 들어서는 등 어둡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공원은 고개 정상 양쪽 절개지에 성북구의 이미지에 맞도록 성곽을 쌓았고 안개분수와 수로 등을 갖춘 통일 염원의 장, 전쟁의 아픔을 형상화한 사적비,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6. 7. 25		

미아리 공동묘지

No.	059	작성자	박수진
제목	**경성부, 공동 매장지 선정**	키워드	미아리, 신촌, 수철리, 말현산
이야기	4월 1일부터 '공동매장지및화장장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경성부는 경성 5부의 매장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동부 숭신면 미아리 51,555평, 서부 연희면 신촌 36,241평, 남부 두모면 수철리 110,126평, 중·북부 은평면 말현산 81,075평.		
원천자료	매일신보 1913. 3. 23		

No.	060	작성자	이승준
제목	**경성부의 공동묘지는 증설 논의**	키워드	공동묘지 증설, 예종석, 방규환
이야기	경성부의 조선인 공동묘지가 부족하다 하여 새 공동묘지를 택할새 부협의원 예종석 씨가 추천한 광희문 밖 수철리에 신설하기로 예정하였던바 금년에 이르러 경성부협의원 방규환 씨가 새로히 동소문 밖 미아리가 공동묘지로 적당하다고 하야 경성부에 제안하여 미아리가 좋으니 수철리가 좋으니 한참 부협의원을 중심으로 하야 싸워오던바 경성부에서는 이것을 구실로 하야 조선인 공동묘지를 증설치 않기로 내정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조선인 공동묘지가 부족한 것은 일반이 느끼는 사실로 4,5년 전부터 증설하자는 의론이 났었으나 그 당시 내무과장이던 택촌 씨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야 실현을 하지 않고오든바 택촌 씨가 군산부윤으로 승임하고 현 장미 씨가 신임된 후 겨우 증설안을 세우게 되어 내정된 것이 수철리인데 (경성부 모 과장의 말을 들으면 예종석 씨와 방규환 씨가 한가지로 수철리가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부협의원 사이에 그런 쟁론이 생겼음으로 부민의 여론이 공동묘지의 지급 필요를 절규하기까지는 보류하여 두기로 되어 16년도 예산에도 편입치 않을 것 같다고 위생과장은 말하더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6. 12. 16		

No.	061	작성자	이승준
제목	**대구 진우연맹사건 가담자 김정근**	키워드	김정근, 미아리, 화장
이야기	요전 대구지방법원에서 3년 징역의 언도를 받은 대구 진우연맹사건의 김정근은 감옥에 들어간 후로 폐병이 걸리어 최근에 더욱 심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난달이 19일에 집행정지로 대구형무소를 나와 자택의 시내 효제동 320번지에서 치료중 지난 6일 오후 8시 반에 영면하였다는데 재작 8일 오후에 시외 미아리에서 화장을 하였더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7.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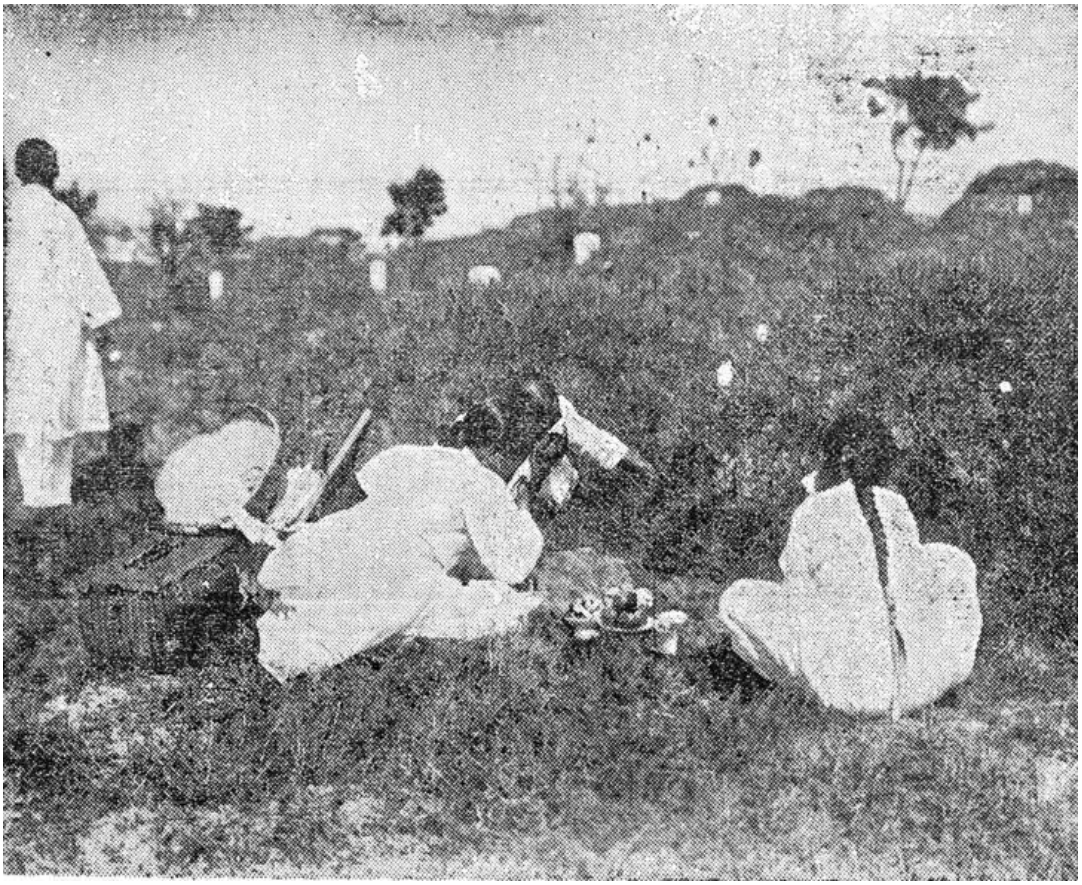
No.	062	작성자	이승준
제목	**죽은 사람의 주택난**	키워드	공동묘지, 만원, 화장, 이전
이야기	아현리, 수철리, 미아리, 이태원, 신사리 등 다섯 군데요 그 면적이 44만504평 중 묘지로 사용한 면적이 9만417평으로 아직 사용할 면적이 35만여 평이나 있어 적어도 30만기는 아직도 수용될 터임으로 지금 경성부의 조선인 부민이 다 죽기까지는 묘지 부족의 위험은 없을 터이며 더욱이나 최근 수년래에는 화장열이 유행하여 묻힐 곳이 없을 걱정은 앞으로 백년까지는 염려 없을 것이다.그러나 당장 문제되는 것은 새로 묻을 묘지가 아니라 이왕 묻은 묘지를 천장할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가 해마다 번창하고 또 도시계획, 시·구개정 등으로 이왕사용하든 묘지를 파내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방금 박도한 것이 이태원을 비롯하여 공동묘지가 아닌 재래로 유명한 수구문 밖의 삼천장과 용산 도화동의 사천장과 아현리 묘지이다. 수구문 밖의 삼천장은 그 산판이 경성부 학교조합 소유지로 방금 방매 중에 있는 까닭이요, 아현리는 홍제내리로 장소를 옮긴 까닭이요, 도화동은 이촌동의 이주지가 된 까닭이요, 이태원은 남산 국유림이 경성부에 매수됨에 따라 주택지로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태원의 3만8766기 중 북부 일대는 대개 옮겨야 하리라 한다. 이밖에 장래 문제될 곳이 또 하나 있으니 이는 동소문 밖 미아리로 이것도 도시계획령이 실시된 후에는 산 사람 등살에 완전치 못할 것이다. 하여간 이와 같이 청산의 일배토(一杯土)도 쌓이면 문제가 되어 산 사람의 주택난이 심한 대경성의 일면엔 죽은 사람의 주택난이 바야흐로 심해가는 모양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0. 9. 30		

No.	063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태원 공동묘지 만원**	키워드	이태원, 신사리, 수철리, 미아리
이야기	죽어서 가는 부외 이태원의 공동묘지도 대정 3년12월 개설 이래 16년을 지내 오늘날에 와서는 황천객 4만여 인으로 이미 대만원을 이루었다 한다. 그리하여 경성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동 묘지에는 사체의 매장을 일체로 금지하고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그 대신 4월1일 이후에 사체 매장지는 시외 신사리, 수철리 또는 미아리 등의 공동묘지 중에 자유선택하야 매장케 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1. 3. 26		

No.	064	작성자	이승준
제목	**춘곡 임치정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히다**	키워드	춘국 임치정, 공립협회, 신민회
이야기	광무 융희 연간의 민중운동 거두 춘곡 임치정 씨는 작 9일 오후 6시 시내 서대문정 일정목 77의2 자택에서 뇌일혈로 돌연 별세하였다. 향년 53. 임치정 씨는 1904년에 미국에 건너가 안창호, 이강 등 제씨와 함께 근대 최초의 민중운동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하여 그 간사가 되고 독립신문 이후의 최초 민간신문인 공립신보의 간부가 되었다. 1904년에 귀국하야 대한매일신보 부총무겸 회계로 양기탁 씨와 함께 일하였고 동시에 안창호·양기탁·고 전덕기·이동휘·이동녕·고 이승훈 등으로부터 조선 최초의 정치적 비밀결사로 유명한 신민회를 창립하고 그 재정을 맡은 간부가 되었다가 1911년 이른바 만주무관학교 사건으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개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는 중 다시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하고 105인 사건이라고도 하는 유명한 사건으로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 등과 함께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아 대구감옥에 복역하다가 1914년 봄에 특사로 출옥하였고 그로부터는 실업에 종사하야 세상에 숨어 망명 동지의 가족을 구제하기로 일삼으며 금일에 이르렀다. 씨의 40년간 지기되는 모 씨는 말하되 “춘곡은 의리와 우정과 불평의 사람이었소. 그가 한번 허락한 동지에 대한 의리는 일찍 변해본 일이 없었소. 또 춘곡은 친구에 대하여는 항상 춘풍과 같은 우정을 가졌고 빈궁한 동지의 가족은 자기 가족과 같이 여겨서 의식을 같이하였소. 항상 불평이 있어 술로 잊으려 하였소.” 장례일자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라 하며 장지는 미아리 공동묘지라는데 씨에게는 미망인과 병두, 병기, 병수 3남2녀가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2. 1. 11		

No.	065	작성자	박수진
제목	**공동묘지 초만원**	키워드	공동묘지, 초만원, 새로운 묘지 설립허가
이야기	경기도는 경성부의 6개 공동묘지(미아리 제1, 제2묘지 신사리·수철리·홍제내리 이태원)가 초만원을 이루어 새로이 고양군 도면 목산리·양주군 구리면 망우리·구리면 교문리의 총 면적 519,060평에 공동묘지를 설립허가하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3. 9. 8		

No.	066	작성자	이승준
제목	**6개 묘지에 10만명 돌파**	키워드	1933년, 묘지 현황
이야기	수많은 장안사람들의 시체로 대만원을 이룬 사용금지의 공동묘지는 별항과 같이 이태원 등의 6개소인데 그중 미아리의 제1, 제2공동묘지를 제하고는 모두가 오래 전부터 실전된 구 묘지이었다 한다. 대정2년9월 매장 개시이래 작년말까지 각 공동묘지에 묻힌 시체는 다음과 같다. 이태원묘지 41,321 수철리묘지 41,554 신사리묘지 12,054 홍제내리묘지 202 미아리 제1묘지 6,986 미아리 제2묘지 1,224 그 중에 제일 적은 미아리 제 2묘지만이 아직까지 약간의 매장지가 남아있을 뿐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3. 9. 8		

No.	067	작성자	이승준
제목	**미아리 공동묘지 추석 성묘**	키워드	추석, 성묘
이야기	추석점경 성묘하는 부녀들. 금일 미아리에서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3. 10. 5		

No.	068	작성자	이승준
제목	**미아리 공동묘지에 고별식장을**	키워드	홍필구, 경성부회, 고별식장, 홍제리화장장
이야기	경성부회는 17일 오후 2시반부터 위생비 심의에 들어가 여러 의원들의 질문전이 전개되었다. 홍필구 의원이 “홍제리 화장장같은 곳은 고별식장이 있으나 조선인이 많이 이용하는 미아리 등 공동묘지에는 고별식장이 없으니 이것은 부 당국이 조선인측의 편의를 위하는 점에 너무나 태만한 것이 아니냐 위생과장이 전일 위생주사로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얼마들지 않을 그러한 설비를 어째 착수하지 않는가? 어물어물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육박하자 위생과장은 거북한 태도로 “공동묘지는 공지도 많으므로 그대로 두었는데 금후 상의하여 만들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6. 3. 18		

No.	069	작성자	이승준
제목	**희생된 학병들의 단체식**	키워드	학병동맹사건, 사회단체연합장
이야기	학병동맹사건으로 애석하게도 희생을 당한 학회들의 장례식은 사회단체연합장으로 28일 상오 11시에 미아리 묘지에서 거행하기로 되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6. 1. 28		

No.	070	작성자	이승준
제목	**정인수 군, 9일 애국단체연합장**	키워드	정인수, 김구, 장지
이야기	3월 1일 남대문에서 총탄을 받아 사라진 정인수 군의 애국단체연합장은 9일 상오 11시 전국학생총연맹본부 앞 안국동 광장에서 집행하기로 되었는데 위원장은 김구 선생이며 부위원장에 조성환, 조소앙, 김성수의 3씨이다 그런데 장지는 미아리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7. 3. 5		

No.	071	작성자	이승준
제목	**성묘로 인파 이룬 미아리 고개**	키워드	성묘, 인파
이야기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 9. 12		

No.	072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에 난관**	키워드	공동묘지 이전, 무연고묘, 화장장
이야기	서울시 성북구 내에 자리잡고 있는 미아리 공동묘지의 철거문제는 오래 전부터 관계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는데 물색 중인 이장 후보지가 확정되는 대로 불원실천에 옮겨질 단계에 이르렀다. 한편 이 문제는 27일 박승목 시의원에 의해 건의안이 제안됨으로써 의회측에서도 집행부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미아리 공동묘지에는 약 8만위를 헤아리는 묘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으며 묘지 부근에까지 인가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도시계획에 따른 미관상 또는 공중위생면으로 보아 조만간 철거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동 철거에 있어 가장 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장 후보지 선정문제와 묘주 및 이장 지주민들의 반대라고 당국에서는 지적당하고 있다. 현재 미아리 묘지의 팔만위 중 약 삼만위를 무연고 묘로 당국에서는 추산하고 있는데 이장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해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장후보지= 서울에서는 1년에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고 있는데 이를 매장할 후보지로서는 망우리 묘지 옆의 삼십여 만평에 달하는 귀속임야가 있어 시에서는 여기를 앞으로 공동묘지로 사용할 복안을 갖고 있으며 우선 미아리 묘지 중 낮은 지대의 삼만여위를 옮길 후보지로서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을 지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이만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그밖에도 신림, 시흥군 신사, 서대문구 남가좌, 홍은동 등 묘지에도 다소 분산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예산= 이 계획을 위한 예산이 별로 계산되고 있지는 않으나 삼만위를 이전하려면 관 인부비 및 수송비 등을 계산하여 매일 기 5천환으로 잡아도 일위 5천만환에 달하며 신 이장지에 이르는 도로 등을 개설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필요할 것이나 이에는 약 2억여 환의 예비비가 있어 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묘주 및 주민의 반대= 묘를 옮기는 문제는 연고자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숭조 관념으로 보아 여론이 비등할 것이며 특히 연고자들은 이를 맹렬히 반대하고 나설 것인데 이장케 되더라도 대부분 소요경비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새로이 이장될 후보지역의 주민들은 맹렬한 반대와 진정소동을 일으킬 것으로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기타= 한편 동 철거 이장이 실현을 보게되면 당연히 화장장도 옮겨져야 될것인데 현시영 화장장을 옮기려면 건물시설을 합해 수억 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관계 법규에 의하면 이장을 하려면 6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게 되어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 9. 28		

No.	07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이장으로 법석 미아리 공동묘지**	키워드	강제이장, 자진이장, 한식
이야기	미아리 공동묘지 중 낮은 지대에있는 약 3만기의 분묘지는 시당국의 도시계획에 따라 오는 5월 이후에는 강제 이전될 예정인데 한식 날인 6일 연고자들은 강제 이전되기 전에 자진 이장을 서두르고 있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4. 7		

No.	074	작성자	차현주
제목	**공동묘지 이장 미아리 삼만 분묘 연고자 신고 요망**	키워드	이장, 3만 기, 신고
이야기	서울시에서는 시내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리 공동묘지를 명년 6월 5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내 반포리에 이장하고 동 일대를 후생주택지로 만들 계획으로 현재 미아리 제2묘지에 있는 약 3만 기에 달하는 분묘의 연고자들은 조속히 신고하도록 요망하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7. 12. 9		

No.	075	작성자	차현주
제목	**묘지 3만기 집단이장 강행**	키워드	이장, 언주 묘지

이야기

서울 시내 성북구 미아동의 제2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약 3만위의 무덤은 오는 6월에 당국의 의해 집단이장이 강행될 예정이다.

시당국은 수년전부터 미아리 공동묘지를 교외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여 왔었으나 작년 12월경에야 겨우 이전 후보지로서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 용지의 선정을 보게 되어 작년 12월 6일 전기 미아리 묘지에 있는 분묘의 연고자들에게 이장할 것을 공고한바 있으며 동 기간 6개월은 오는 6월5일로써 끝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당국은 전기 3만위의 무덤 중 무연고자분을 약 6할로 추산하고 이전에 소요될 경비로서 1억환의 예산을 계상요구하였던 것인데 동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4천만환으로 삭감 통과, 주 구립말일의 예산통과를 합법으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 이장은 소정 이전 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되었으며 특히 요즘 청명, 한식 등 이장의 최적기가 이미 지난 7일 현재까지도 자진이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도합 7백여위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무연고 분묘의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동 이장에 따라 시당국은 연고자들이 자진이장을 신청할 경우 홍제동 화장과 이전지인 언주 공동묘지의 용지 사용은 무상으로 편의를 돌보아 준다고 하는데 동 이장에는 시가 지정한 인부들의 발굴료 3천환 외에도 관 마포대와 이장 수송비 영구차로 언주 묘지까지 약 1만5천환 등 최소한 2만환대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 동 이장계획은 적지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4. 8

No.	076	작성자	박수진
제목	故 **서해 최학송 이장**	키워드	이장, 탈출기, 최학송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우리 문단 초기에 「그믐밤」, 「탈출기」, 「혈흔」 등 많은 단편 역작을 내어 우리 문단에 사실주의 소설의 첫걸음을 남기고 작고한 서해 최학송 선생의 유해를 미아리 공동묘지를 없애게 됨에 따라 문화계에서는 그 이장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한다고 한다. 이장시일 = 25일 상오 12시 미아리 공동묘지 집합 이장장소 = 망우리 공동묘지 발 기 인 = 오상순, 염상섭, 박종화, 모윤숙, 유진오, 이관구, 윤봉춘, 이승만, 정홍교 외 46명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9. 21		

No.	077	작성자	박수진
제목	**사라질 미아리 공동묘지**	키워드	30년, 인부, 무연고묘

이야기

서울시에서는 시내 미아리 공동묘지 이장계획의 마지막 공사로서 16일부터 동 묘지 안의 무연고 묘의 발굴 이장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무연고묘 이장작업으로 근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미아리 제2공동묘지는 영영 없어지게 된 것이다.

공동묘지는 단기 4261년(일력 소화 3년)에 당시 경성부(지금의 서울시) 직영 공동묘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19,700여 주의 영혼이 묻혔던 것인데 작년부터 금년 추석까지 사이의 연고묘 자진이장 기간에 연고자되는 사람들이 6,000여 묘를 이장했고 나머지 무연고 묘 13,215기가 남아 있어 지금 발굴 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장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반포리에 있는 역시 서울시 지정 공동묘지 인부들은 산소가 하나 하나 없어지는 것을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1. 18

No.	078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 야화 1 - 모래 세례에 기겁**	키워드	모래, 묘지인부, 청년
이야기	서울의 미아리 하면 공동묘지를 연상하게 마련이다. 미아리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멀리 경기도 광주군언주면 반포리로 옮겨지고 그곳은 새로운 주택가가 되려고 하고 있다 한창 묘지 이장 작업이 진행중인 미아리 공동 묘지에서 감독으로서 혹은 인부로서 마지막일을 하고 있는 묘지전속 인부들은 일하다가 쉬는 동안 이제 아주없어지는 그 묘지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슬펐던 이야기 괴상한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다. 여기 그 묘지인부 들의 잡담을 엮어본 공동묘지의 이야기. 일컬어 미아리 야화. 제일 먼저 김이라는 인부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약 일오육년전의 일이다. 삼대를 넘었을까 말까하는 어느 청년이 자기 딸의 주검을 공동묘지에 파묻었다. 청년은 죽은 딸이 첫아이이자 외딸이기 때문에 몹시도 귀여워하다가 그만 죽게되니까 거의 매일같이 틈만 있으면 자기딸 산소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곤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삼 사개월, 그래서 미아리 공동묘지에서는 그 사람이 화제의 인물이 되어 버렸고 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정성껏 딸의 묘에 나와 보던 그 청년이 그해 가을부터는 나오는 게 좀 뜸해지기 시작했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어느날 그 청년은 딸의 묘를 또 찾아왔다. 어린애가 좋아할 과자 인형등을 잔뜩 가져왔다. 공동묘지 사람들은 저렇게 까지 딸을 사랑하나 하며 감탄해 마지 않았다. 날씨는 잔뜩 흐렸고 그 위에 가을비마저 보슬보슬 내릴 때 그사람은 딸의 묘앞에 가져온 물건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무엇이라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뒤 얼마나 되었을까? 그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묘지사무실로 달려오더니 날좀 살려달라 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연거푸 외쳤다. 한참 후 제정신에 돌아선 듯 그 청년은 덜덜떨리는 목소리로 이날 있었던 일과 전날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권표옥씨 서울시내 청진동에 살던 사람이다. 매일같이 딸의 묘를 찾던 권씨는 어느 이른가을날 회사의 일이 바빴기 때문에 저녁나절에 딸을 찾았다. 어느 때와도 같이 딸의 묘 둘레를 한바퀴 돌고 생시의 대화처럼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지? 내가 왔으니 안심하고 놀라 너희어머니는 오늘도 바빠서 못오신단다 고 그 묘안에 있는 딸에게 말을 붙였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아빠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자기 딸의 목소리로서 들릴까 말까하는 가느다란 목소리다. 권씨는 내 귀가 잘못된게지 하고 그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조금 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생시엉석을 부리던 딸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바로 그 묘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같았다. 권씨는 두 번째 딸의 목소리를 듣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딸의 묘를 남겨둔 채 권씨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는데 이 때 무엇인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날은 공연한 두려운 생각에 공동묘지를 찾지 못하고 말았다. 딸의 산소 제초를 하여 주러 나왔을 때다. 그동안 몇 번 그곳에 나왔으나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권씨는 이즈음 자주 딸의 묘를 찾았었다. 제초를 끝내고 한동안 그 묘앞에 앉아 담배도 피울겸 쉬었다. 주위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고 멀리 일하는 인부 모습이 뜸뜸이 보		

	일 정도였다. 이때 권씨 귀에는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딸의 울음 소리 같았다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권씨는 그 울음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를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묘 뒤에서 분명소리가 나기에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고 울음소리도 그치고 말았다. 한참 그곳을 지키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묘 앞쪽에서 모기 소리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봤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이날 권씨는 귀신에 홀린 사람모양되어 산을 내려왔던 것이다. 이윽고 그날이 왔다 권씨는 오랜만에 다시 딸의 산소를찾았다. 이날은 비가내리는 음산한 가을날씨였다. 권씨는 귀신에 홀린 사람모양되어 산을 내려왔던 것이다. 권씨는 가져온 제물(과자와 장난감등)을 산소앞에 내려놓았다 무릎을 꿇고 딸의 명복을 빌기 시작했다. 이 순간 권씨 머리위에 모래가 끼얹어졌다. 또 모래가 날아와서는 권씨의 양복위에까지 뿌려졌다. 권씨는 그렇지 않아도 전번일로 두려운 생각이 가시지 않고 있었는데 모래 세례까지 받고 보니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식으로 산아래 사무소 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그 후 권씨는 아주 정이 떨어지고 말았는지? 일여년동안 한번도 딸의 묘를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1. 20

No.	079	작성자	박수진
제목	**미아리 야화 2 - 달려드는 괴노인**	키워드	오양, 상여소리, 도깨비
이야기	다음은 전이란 인부의 이야기다. 37년(일력 소화 12년) 소위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 미아리 공동묘지 근처에는 지금처럼 집이 좀좀이 들어서지는 않고 군데군데 집이 한 채씩 떨어져 있었다. 이즈음 공동묘지 사무실 바로 밑에 있던 외딴 선술집(주로 묘지인부들이 자주 드나드는)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선술집에는 강원도에서 약 일 주일 전에 온 작부 오양이 있었다. 동료 작부들은 허구한 날 보는 것이 상여고 듣는 것이 곡소리이기 때문에 거의 만성이 되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새로운 작부 오만은 달랐다. 처음에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언짢았고 다음에 봤을 때는 왜 그런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마치 황천에 가는 길목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았으며 밤에는 귀신 도깨비 등이 나올 것 같은 공포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동료 작부들을 꼭 껴안고 자야만 했다. 이러던 어느날 다른 작부들이 출타하였기 때문에 오양은 부득이 혼자 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들여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신은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부스럭하는 소리만 나도 불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어 여 어 여 하고 상여 지나가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렸다. 오양은 찬물을 끼얹은 듯 등골이 오싹하여졌다. 불을 켜지 않고는 도저히 무서워서 견딜수가 없어 등잔에 다시 성냥불을 켜대었다. 그랬더니 웬일이냐?! 문앞에 수의를 입은 노인이 하나 서있지 않은가? 기겁을 하게 놀란 오양은 악하고 소리를 치며 뒤로 물러섰다. 노인은 차츰 오양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어라 중얼댔다. 사람살류 사람살류 연거푸 소리를 쳤으나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노인은 자꾸 다가서고 오양은 뒤로 피하고 이렇게 하기를 새벽 동이 틀때까지 했다. 어디선가 닭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 노인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그 선술집 사람들은 옷에 땀이 베이고 정신이 나가 멍하니 앉아있는 오양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오양은 그 귀신을 피해 밤새도록 방안을 헤매면서 소리를 쳤건만 그 소리는 자기 혼자만이 들을 수 있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양은 이런 일이 있은 후 병이 났고 삼일 뒤에는 다시 강원도로 가버렸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선술집에는 새로 들어오는 작부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전씨의 도깨비 얘기가 끝나자 인부들은 정말 도깨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난 공동묘지에서 2년 넘게 일했지만 도깨비 한 번 못보았네. 한 인부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한 친구는 사실야 도깨비가 나오구 무섭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한단 말야?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김이라는 인부만은 그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지론인즉 마음을 약하게 먹었을 때는 도깨비가 나온다는 것으로 자기의 체험담을 실례로 들었다. 김씨는 사실 나도 어지간히 겁이 없어서 무서워 하는게 없지만 이렇게 전제하고 나서 말을 꺼냈다. 김씨는 그렇게 많은 산소를 보아오고 만들었지만 집근처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어떤 산소 하나는 접근하기도 싫다는 것이다.		

	어느날 밤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갈 때 그 망우리 묘지가 지름길이라 싫어하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다. 차츰 차츰 그 산소가 다가올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되돌아 내려오고 말았다. 또 용기를 내어 다시 그 길을 걸어 올라갔으나 그 묘가 가까워질수록 이상스런 압박감을 느껴 결국은 또 넘지를 못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내 그 산소 앞을 지나지 못하고 말았다는데 김씨는 그 산소에 가면 무엇인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힐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1. 22

No.	080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야화 3 - 처녀 무덤 파헤친 총각**	키워드	김양, 김군, 인부

이야기

내가 해괴망측한 이야기 하나 할까?

박이라는 인부가 말을 꺼냈다. 8.15 해방 직후의 일이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누구인가 공동묘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문 두들기는 소리가 연상 났지만 사무실에서 숙직하는 사람들은 잠에 취해 듣지 못했다. 가까스로 문이 열려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묘지 바로 아랫동네에 사는 부락민들이었다. 이들의 표정을 보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다.

성급한 한 부락민은 저기 시체가 나와있어요. 하고 산 아래쪽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한다. 이들의 말인즉 지난밤 사이에 3일 전에 쓴 어떤 처녀의 묘가 파헤쳐져 있으며 그 묘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밀빵이 달린 관이 가르놓여져있다는 것이다.

사무소 사람과 인부들은 한걸음에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다. 과연 산소는 파헤쳐져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괭이와 부삽이 그리고 약 5미터 떨어진 곳에는 밀빵이 달린 관이 놓여있었다. 누가 관을 파내서 메고 가려다가 내려 놓은 것임이 짐작되었다. 사무소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놔둔채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알렸다.

그런데 그 파헤쳐진 산소에는 서울시내 영등포에 살던 김 모라는 21세 된 묘령처녀의 시체가 묻혀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아리 공동묘지는 발끈 뒤집혔다. 경찰서 형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에서 검사가 나와 현장 검증을 하고, 또 신문기자들이 몰려나왔다.

다음날, 신문에는 그 산소를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가려던 범인을 잡았다고 보도되었고 그 범인의 신원 그리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상세히 밝혀졌다. 그 진상은 이러했다.

오랜 신병으로 죽은 김모양과 한 동리에 살던 역시 김이라는 사나이가 진범이었다. 김은 김양과 한동리에 살았기 때문에 김양을 자주 보았고 언젠가 부터는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은 김양과 이야기를 건너는데 성공했고 그후부터는 자주 만나기까지 했다. 사랑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 김양은 가슴 (폐병)을 앓기 시작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김은 김양과 하루 속히 결혼해야 될 것으로 느꼈다. 가족을 통해 김양 부모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김양 부모는 아직 혼기도 되지 않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않고 있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다.

김은 그 말을 전해듣자 앞이 캄캄해지고 미칠 것 같았다. 애인을 만나볼 수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와 혹시나 하여 김양 집 근처를 매일같이 왔다갔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양 집에서는 마구 우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김양이 그만 죽은 것이다. 누구보다도 슬퍼해야 할 김군은 조상을 가서 시체가 놓인 방에 들어가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장사를 치르게 되어 김양은 미아리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조용히 묻혔다. 김군은 남들이 보지 않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한없이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봐도 김양은 다시 되살아 날리 없었고 더욱 슬퍼질 뿐이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산소에 가서 죽은 시체나마 파오는 것이었다.

김양이 묻힌지 사흘 째 되던날 밤 김군은 땅을 파는 연장을 가지고 애인 김양의 묘

	를 찾았다. 덮어 놓고 파기 시작하였지만 위의 흙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그렇게 쉽게 관을 팔수는 없었다. 한 시간쯤 팠을까? 괭이가 나무관에 닿는 소리가 났다. 관을 파낸 김은 관을 새끼끈으로 묶었고 그 위에다가 밀빵을 해 달았다 김군은 관을 등에다 들쳐메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했으나 생각했던것보다 관이 무거워서 멀리가 낼 것 같지 않아 다시 내려놓았다. 어떻게 하면 쉽게 애인을 메고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해봤으나 해결의 방도가 나오지 않았다. 주위는 캄캄하고 먼 곳에는 무슨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김군은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 관 옆에서 있기가 싫어졌고 나중에는 관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1. 24

No.	08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야화 4 - 밤 사이에만 이장**	키워드	중국, 야화, 이장
이야기	화제는 어느 틈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옮겨져 정이라는 인부가 중국사람들의 장사 지내는 풍속에 관해 이야기 했다. 미아리 공동묘지에는 외국 사람의 묘가 3백여 개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인 들의 묘였다. 최근 시당국에서 연고 있는 묘의 이장 지시가 내렸을 때 다른 한국 사람들의 묘와 함께 중국 사람들의 묘도 연고있는 묘는 전부 다른곳으로 옮겨갔다. 이즈음 묘의 인부들은 바쁘기도 하였지만 돈벌이도 잘되었다. 그러나 그 인부들도 한 가지만은 질색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국 사람들의 이장이었다. 뭣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도 아침 일찍이 (그것도 해뜨기 전에) 그리고 저녁늦게라야만 중국사람들은 이장하러 나왔다. 인부들이 아직 사무실에서 잠들고 있을 때 중국인들은 수왈라 수왈라하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인부들을 깨운다. 그래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횃불로 길을 밝혀 묘로가서 묘를 파기 시작한다. 또는 저녁때 해가 진 다음에 나와서 이장을 하는 것이었다. 어느 인부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그러하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중국인의 대답인즉 시체가 태양을 보면 그 후손이 멸망까지는 모르지만 못살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은 대낮에 중국인이 이장을 하겠다고 왔다. 묘지사무소 사람들은 이 친구는 가짜 중국인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인의 이장하는 것을 보려고 따라가 보았더니 역시 한국 사람들의 이장하는 식과는 달랐다. 먼저 묘 위에다가 넓다랍게 포장을 치고 그림자를 만들어 햇볕이 들지 않게 하여 놓고서 작업을 시작했다. 시체를 꺼내서 새로운 관에 담을 때도 햇볕을 쪼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인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부탁하는 것이었다. 더욱 한국사람들은 이장하는 날은 대개 소위 손이 없는 아흐레나 열흘날(음력)을 택하는데 중국사람들은 특별히 가리는 날이 없는 것이 특이하였다. 정씨는 어느 중국 상가집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의 장사치르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곡하는 소리, 매장하는 날이 기수일인 것, 그리고 상객들이 밤을 새우는 것 등 한국 풍속과 같은 것도 많았지만 전혀 딴판인것도 많이 있었다. 중국사람들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몸을 말짱히 닦아주고 수의를 입혔으며 숨이 끊어지자 곧 시체를 부엌에다 내다 놓는다. 수의는 우리처럼 흰 빛이 아니고 모두 빛깔이 있는 것으로 한다. 홍적황남녹백자색 등 일곱 가지 빛깔의 수의를 만들어 입힌다. 즉 죽은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혀 호사를 시킨다는 것인데 중국인들은 평생을 통해 결혼할 때와 죽을 때 두 번 호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다. 상제들은 옷을 검게 입고 상제가 들었던 상장은 시체를 파묻을 때 관 옆에 세운 채로 흙을 덮어 파묻으며 장례를 끝마치고 돌아갈 때는 상복을 모두 벗어버린다는 것이다. 미아리 공동묘지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처음으로 중국인 상여가 나왔을 때 그곳		

	묘지사무소에서는 약간의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다름 아니라 중국사람들은 산소를 쓰기는 하겠지만 관을 파묻지는 않고 관 위에다 돌로 집처럼 쌓아올려 관만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우기고 사무소 사람들은 묘지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국사람들이 지고 관은 파묻도록 하였으며 그 후 다른 중국사람들도 그곳 묘지규칙을 따라 매장을 했다. 중국인들은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객지에 나와서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시체나마 고향에 가져가기 위해 결코 땅에 파묻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실제로서 지금도 인천에 가면 중국인들의 돌로싼 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 11. 25

No.	082	작성자	차현주
제목	**한식 날 미아리 공동묘지 풍경**	키워드	한식, 성묘, 미아리, 망우리
이야기	6일의 한식 날 서울교의 미아리나 망우리 같은 묘지에는 성묘꾼들로 흰 꽃을 이루었는데 날씨마저 청명한지라 제각기 조상의 묘소에 손질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예로부터 이날은 조상의 묘소에 돋아나는 잡초를 뽑고 녹아진 떼를 다시 입혀 곱게 손질하는 풍습이 있는 날이기에 이날따라 그러한 풍경이 눈에 뜨이기 마련이다. 이날은 때마침 공휴일이 겹쳐 놀게 되는 첫날이라 모두가 휴일 아닌 휴일 기분으로 모처럼의 봄풍경을 찾아 산놀이 들놀이로 하루를 보내는 젊은 남녀들도 많이 볼수 있었다. 사진은 미아리 묘지에서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 4. 6		

No.	083	작성자	박수진
제목	**공동묘지 수필**	키워드	박승훈, 공동묘지, 영등포, 미아리
이야기	이곳 미주에 온지 꽤 오래된 친구 하나가 어느날 저녁 잡담을 하는 중 이런말을 내게 물었다. “요사이 한국의 공동묘지는 어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돈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 친구 안경 속을 살펴보았으나 눈알 흰 자욱이 많아진 것이 아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낫나?” 이곳서 5년 10년 이상 있으면 정신의 공백 때문에 고독에 짓눌린다는데 이 친구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했다. 반문하고도 석연치 않았다. 난 말이야 이곳서 B·A라는 것 M·A 라는 것 그리고 박사라는 감투까지 썼다는데 말이야 한참을 묵묵히 있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조국이 뼈저리게 그립다가도 그만 공동묘지 생각을 하면 멈칫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리속에는 영등포 일대, 미아리 일대의 공동묘지를 파헤치어 마구 백골들이 도시계획의 이름 밑에 길가에 흩어져있는 것을 버스 창밖으로 내다보던 광경이 똑똑히 떠올랐다. 그 친구의 말인즉 이곳에서 이렇게 무서운 고독 속에 울고 싶도록 삶이 허황하게 뵐 때마다 공동묘지에가서 한참 벤취에 앉아있다 나오면 외로움이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재는 재로 흙은 흙으로 나도 저 질서정연한 그 능지에 언젠가는 묻히리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비교문학을 너무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 큰 불행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들어 혼자 중얼대는 것 같은데도 듣는 내게는 다른 각도에서 한국의 공동묘지가 크게 머리에 떠올랐다는 것은 어쩔수 없었다. 우리의 목적지가 공동묘지라 하고 지금 서울 수많은 시민들은 안식처가 될 흙 한 줌 마음 평안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느낌인 것이었다. 육척의 피곤한 흙덩이가 누울 곳 그 평지 그 언덕 그것은 도로에 아스팔트를 백번 칠하는 것보다 보다 더 대중의 마음의 안정을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방향의 하나가 아닌가를 생각했다. 고국에 간들 육척 못 되는 몸이 누울 흙 시궁창이 아닌 반반한 흙은 없다는 독백은 비단 그 친구의 독백뿐일 것인가? 이곳 로스안젤스 국제공항 옆에서 비교적 넓고 큰 공동묘지의 서늘한 녹음과 철 울타리와 이끼 앉은 십자가들의 공동묘지를 본 이래로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지나나 하이웨이 옆에서 혹은 오랜지 밭 사이에서 고요한 몰들이 서있는 흙의 안식처들을 응시했다. 하기야 흙 되고 먼지 된 후에야 시궁창 속이던 다리 밑이건 밭고랑이 사이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마는 사람이란 역시 흙 되고 먼지된 흣일은 머리 뒷통수 속에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다니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성싶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도동 밖, 미아리 언덕이 아닌 질서정연한 흙으로의 안식처를 향한 이곳 사람들은 자기 할일 자기 맡은 일에만 충실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여유란 것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꼭같이 무덤을 걷고 파는 인생이라 하지만 그곳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삶을 공동묘지로 본 시인이나 삶을 자기 무덤파기라고 한 작가의 말을 걷어치우더라도 해양만리 이곳서 내다보는 고국의 공동묘지는 너무 엉망이 아닌가. 우리가 누울 곳 어디냐. 이러한 소리가 밀물 같이 황혼에 꽉 와서 백이는 저녁이었다. – 박승훈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 5. 18		

6.25와 단장의 미아리고개

No.	08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남겨진 조소앙 가족의 슬픔**	키워드	정릉동 130번지, 조소앙, 오영선 여사
이야기	6.25동란 때 납북된 저명인사 몇몇이 북한 김일성 괴뢰집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3당을 암암리에 조직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그 중 조소앙 씨가 음독자살하였다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본보 4월 26일자)되자 서울 시내 성북구 정릉동 130번지의 113호에 있는 조씨 집에는 집안 친척 몇 사람이 모여앉아 시름에 젖어 세월을 한탄하는 오영선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오 여사는 지금 노쇠로 병석에 누운 채 정황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3일 오후 찾아간 기자에게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원통한 그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조씨의 조강지처 오 여사는 올해로 일흔넷. 내외가 동갑이며 아들 인제 씨와 딸 필제 씨의 남매 단 둘을 두고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딸 필제 씨는 약 삼년 전에 출가하고, 외아들인 인제씨가 오 여사와 세 딸 덕래 양(13, 혜화국민교 6년생), 현래 양 (8, 혜화국민학교 2년생), 인숙 양을 데리고 미아리고개 너머 1여 간의 후생주택에 살고 있다. 그이가 빨갱이라고 이 사회에서는 아들까지도 누명을 씌워 누가 취직이나 일자리를 어디 마련해 줍니까? 하고 오 여사는 말하면서 아들은 벌써 몇 해를 두고 실직중이라 가정생활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씨는 원래 6형제의 맏형이었는데 전부 8.15 해방 전에 사망하여 조씨만이 그래도 그 형제 중의 유일한 생존자였었다고. 오 여사는 결혼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명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쭉 동경에서 같이 하숙생활로 고생을 나누며 앞날을 기약하고 참아왔던 것이 그 후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평안한 잠자리를 가진 일이 없다고 한다. 중국에 망명하고 있을 때도 이리저리 보따리를 싸고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하여 숨어야 했는데 오늘날 해방 후에는 그 이상 이렇게 하고는 일단 말문을 닫는다. 도대체 누가 공산당이요, 아이고 원통해 하며 칠순 노인은 제정신 차릴 사이없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6.25 당일 국회에서 끝까지 사수하자고 결의까지 하고는 그때 남하못했으니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니 이런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느냐고 슬퍼하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 5. 1		

No.	085	작성자	차현주
제목	**저널리스트 김을한의 수기** **- 서울이 함락되던 날 아침**	키워드	6.25, 미아리고개, 동소문, 창경궁
이야기	정부에서는 그날 아침에 수원으로 임시천도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오후에는 다시 그것을 취소하여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때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던 여운홍씨가 청년회에 와서 하는 말이 그날 국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수도를 사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므로 우리들은 저윽히 안심을 하였다 조금 후에는 적십자사 총재 양주삼 씨와 경기도지사 구자옥 씨(다같이 이북으로 납치되었음)가 나의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지금 의정부의 방위군을 격려 위문하고 오는 길인데 어찌 잘 싸우는지 눈물어 났으며 공산군은 얼만큼 격퇴되었으므로 이제는 아주 안심이 된다고들 하였다. 바로 그때에 라디오에서 특별방송이 나오는데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28일 새벽에 방송국에서 순직하였음)이 내일 아침이면 맥아더 사령부가 서울에 설치되며 미 공군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일반은 절대로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떠들어대었다. 그 말을 듣자 우리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였다. 특히 구자옥 선생은 나의 손목을 붙들고 이제는 되었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나 사태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거의 일곱시나 되었을까? 나는 사무소 문을 잠그고 청년회에서 나오니 저물어가는 거리의 공기는 일층 침울하고 살기가 가득하였다. 그때에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 돌아다보니 청년회 아래층에서 삼일서점을 경영하는 김덕은 씨였다. 그는 나를 보자 울듯한 표정으로 김선생 어떻게 되는 거야요? 포성이 여기까지 들리고 미아리 방면에서는 피난민이 자꾸 시내로 들어오는데요. 암만해도 오늘밤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별수 있소? 하여간 오늘 저녁만 기다려봅시다 나는 힘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터벅터벅 봉익동 나의 집으로 걸어갔었다 그날밤의 불안과 초조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으며 궂은비는 더욱 사납게 퍼붓는데 거의 자정 때가 되자 그때까지 잠잠하던 라디오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더니 이 대통령의 고별사와 곧 뒤이어서 모윤숙, 공중인 씨등의 결별시 '낙양아 잘 있거라'가 애끊는 음성으로 낭독되었다. 나는 라디오를 붙들고 울었다. 아 이제는 만사휴의로구나. 그 다음 순간 옆에서 무심히 자는 아이들이 몹시 가엾이 생각되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린이들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을 생각하며 뼈가 저리도록 가슴이 아팠다. 동소문 부근으로 생각되는 방면으로부터는 점점 포성이 가까워 오는데 때로는 집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심하였다. 상상컨대 열세한 국군이 기관총이나 소총만을 가지고 적의 탕크 부대를 방지하느라고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참 동안 은은한 포성과 콩볶듯하는 기관통 소리가 더욱 요란히 나더니 그 소리가 뚝 그치면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서니 비는 그쳐졌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훤하게 밝아왔다. 새벽이 된 것이다. 나는 가만히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섰다. 가만가만히 걸어서 동관 큰길로 나가니 아뿔사 산더미 같은 탕크가 뚤뚤거리며 창경원 쪽으로 굴러오지 않는가. 서울은 필경 함락된 것이다. 전신의 맥이 풀린 나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벌써 약삭빠른 사람의 집 대문에는 공산군을 환영하는 적기가 바람에 나붓기고 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남하도 못하고 또 동경에도 떠나지를 못한 것이었다. 6월 28일 정오경 나는 종로회관 3층 나의 사무소에 혼자서 앉아 있었다. 돌변한 세		

	상에 하도 답답하고 궁금하여서 사무실에 나온 것인데 그 큰 청년회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다. 밖을 내다보니 소련제의 탕크가 오락가락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양측 길가에는 그 동조자와 군중들이 적기를 들며 만세를 부르고 있음이 가증하게 보였다. 유리창에 커텐을 내리고 의자에 몸을 던지니 만감이 교집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쉬운 것인가? 암만 생각해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대통령은 무사히 나가셨는지 걱정이 되었고 정부의 일도 몹시 궁금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괴뢰군은 간단없이 공포를 발사하여 은은한 포성이 진동하는데 문득 창밖을 내어다보니 조그만 비행기 한 대가 비연같이 날아들며 서울 주변을 일주하였다. 자세히 보니 새카만 그라만 함재기였으며 점령당한 서울을 정찰하러온 미군기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백만의 구원병이나 만난 듯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때이다. 요란한 고사포 소리와 함께 누구인가 나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6. 2. 5

No.	086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납북인사들의 행렬**	키워드	납북, 영천고개, 실개천
이야기	드디어 9월 12일부터 서해안 일대에 UN군에 의한 대대적인 폭격이 감행되고 15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에 당황한 괴뢰군들은 이날밤부터 각형무소, 비밀 감금소에 수감 중인 인사들을 모두 줄줄이 묶어 미아리고개와 영천고개 두갈래로 갈라서 납북해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신병으로 걷지 못할 인사들은 각 형무소 각 감금소 안에서 또는 산으로 끌고가 그대로 모두 사살하여 버렸다. 이때 사살당한 인사들은 김윤실 목사, 전인선 목사, 강수창 경관, 박윤절 언론인 등등 수백명에 달하였다. 의정부 방면으로 끌려가는 인사들 중에는 박준식 검사, 이우경 판사, 정의화 판사, 이춘근 군인장교, 임성대 경관, 최배 내무장관비서, 허남수 국회총무과장, 문택규 변호사, 임준수 법관, 이복본 연극배우 등 삼천여명이나 되었다. 이즈음 후퇴로를 막기 위한 UN공군의 폭격은 야간에도 극심하였다. 의정부 못미쳐 앵무산 고개길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늘을 덮는 폭음과 함께 수없는 조명탄이 하늘에서 터졌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 불빛 아래 줄줄이 묶여가는 납치인사들의 대열은 마치 개미떼인양 길을 메우고 굼틀거렸다. “빨리 엎드렷!” 순간 다급히 사방에서 고함치는 인민군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갈증이었다. 물을 달랄 수도 없고 또 달라고 해봤자 줄 리도 만무했다. 그러므로 이들 인사들은 실개천에 이르기만 하면 서로 다투어 뛰어들어서는 고개를 박고 물을 마구 들이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인민군은 길이 늦는다고 마구 호통을 치며 총대로 어깨와 엉덩이를 마구 갈겨대었다. 험한 앵무산 비탈길에 이르렀을 무렵 이미 납치인사들 중에는 더 걸을 수 없는 중환자들이 속출하였다. 그중 맨처음 쓰러진 것이 정의화였다. 인민군들은 이러한 환자들만 한곳에 모아놓고 그 외는 모두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윽고 터벅터벅 비탈길을 걸어올라가는 이들의 등뒤에서 연발하는 <따발총> 소리가 산간에 메아리치면서 어둠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때 희생된 사람은 맨먼저 쓰러진 정의화, 최림, 김인수 경관, 김중정 변호사, 박철 법관, 신재식 검사 등 수십명이었다. 이들 납치인사들은 임진강을 건너 장흥리로 빠져서 평양으로 들어간 쪽도 있고 평양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강계로 또는 원산 쪽으로 올라간 쪽도 있었다. 그 이유는 UN군의 진격이 물밀 듯이 괴뢰군의 뒤를 뒤밟아 진격하여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평양으로 끌려간 이들 남치인사들이 그곳에 제일착으로 도착한 것은 10월 10일이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2. 4. 3		

No.	087	작성자	위가야
제목	**미아리고개를 통해 서울로 들어온 북한군**	키워드	6.25, 기억, 악몽
이야기	6.25와 미아리고개는 인연이 깊다.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두천 의정부 방면 주민들이 궂은 비를 맞으며 서울로 찾아든 관문이 바로 이 미아리고개였고 또 9.26 수복 당시 패전한 공산군이 황망히 도망쳤던 길이 바로 이 미아리고개였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에서 서울 시민들은 미아리고개하면 6.25를 생각하게 된다. 미아리 고개를 보고 연상되는 12년전 6.25의 회억 그것은 너무도 잊기 어려운 일들 뿐이었다. 38선 전역에 걸쳐 11개처로 공격을 해왔던 6월 25일의 적의 병력은 7개 보병사단 1개기갑여단 1개독립보병연대 1개 모터사이클 연대 1개국경비여단을 망라한 연병력 8만과 소제형 탱크 150대라는 엄청난 세력이었다. 변변한 중화기 하나없이 보병 4개 사단과 제1개 연대의 병력밖에 갖지 못했던 당시의 국군이 일요일을 틈타 기습해온이 공산군을 즉각 격퇴시킨다는 것은 뭐래도 무리한 일이었다. 전투가 붙은지 수시간 후인 25일 상오 9시 벌써 개성과 동해안의 주문진이 적중에 떨어졌고 이날 하오에는 서울 상공에 적기 5대가 나타났다.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은 미 군사고문단장 라이타 대령과 중요작전회의를 열었는가하면 유엔에서는 북한 공산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미국 그로스 대표의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한국을 싸고 국내외의 정세는 빙점 이하의 싸늘한 긴장에 싸여들었다. 27일이 되자 북한괴뢰는 소위 국민총동원령을 포고하여 자유진영의 정당한 의사를 정면으로 짓밟고 광란된 침략으로 나왔다. 이런 속에서 28일 수도 서울이 적군에게 들어갔다. 미아리고개를 통해 넘어온 공산군은 9월 28일까지 서울에서 마의 불장난을 계속했다. 무수한 사람을 도륙하고 수많은 재화를 약탈하면서. 그러나 오늘의 미아리고개는 지긋지긋했던 악몽을 잊은 듯 훌륭한 도로로 자꾸자꾸 발전해 가고 있다. 길 위에는 아스팔트가 깔리고 노변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6. 22		

No.	088	작성자	위가야
제목	**민세 안재홍의 유족**	키워드	돈암동, 안재홍, 미망인 김부례, 안정용
이야기	6.25때 괴뢰에 피랍되었던 민세 안재홍(75)씨가 이북땅에서 서거했다는 소식에 접한 서울 돈암동의 유족들은 유해없는 빈소 앞에서 새삼 민족의 비극을 되새기며 오열속에 밤을 새웠다. 2일 비보를 들은 납북인사 고권삼(전 동국대학교수)씨 부인등 4명의 피납인사 가족들도 안씨집에 들러 미망인 김부례(57) 여사를 붙들고 우리도 꼭 같은 꼴이 될 것 이라면서 통곡했다. 민세의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부례 여사가 남편이 물려준 집 돈암동 산 11의 152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고 외아들 안정용(51무) 씨가 영찬(27. 대학생)군 등 8남매를 데리고 동교동 5의82호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딸 서용(41)여사는 원효로에서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임이 분명했다고 말하는 아들 안씨는 술도 담배도 모르는 그 분은 항상 생활이 근엄했고 틈만있으면 역사책을 읽고 사색하는 우국지사였다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판문점에서 남북이 만난다는데 그 자리를 통해 그분의 유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미망인 김여사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길건너 탑골승방에서 당신의 건강과 남북통일을 빌기를 10년. 그의 몸부림은 애처롭기만 했다. 김 여사에 의하면 사변이 나던 해 6월 27일 성북서를 통해 피난가라는 통보를 받고 민세는 친지를 찾아다니며 피난을 권유하다가 자신은 도강의 기회를 놓치고 회현동 등 친지집을 전전하다가 돈암동 성북서 옆의 사촌동생 안재학씨집에 숨어있었다 한다. 수복을 이틀 앞 둔 9월 26일 사돈 뻘 되는 권모의 배신으로 괴뢰 정치 보위부원들에게 붙잡혀 정치보위부본부로 사용되던 돈암동 집에 끌려왔을때는 군정때 법무부장 김용무씨와 조소앙 씨등 7명의 인사가 이미 안씨집에 끌려와 감시를 받으며 방에 앉아있었다고. 이들은 시내 여러 곳을 끌려다닌 끝에 함께 검은 휘장을 두른 괴뢰 정치 보위부 소속 검은차에 실려 미아리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압송됐다. 이때 끌려가면서 안씨는 뒤쪽 창문을 통해 부인을 내다보며 손짓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미망인 김여사는 그 순간을 되씹으며 눈물지었다. 아들 안정용씨는 일전에 중공 땅에서 부모를 데려다 모신 차장관이 한없이 부러웠다면서 하루 속히 이런 비극이 다시 없기를 기원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5. 3. 3		

No.	08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박원남의 수기**	키워드	미아리 육박전, 국군포로, 남파간첩

이야기

미아리 육박전서 포로로 아오지 탄광선 실의의 나날

육이오 그로부터 이미 스물두해가 지났으나 아물줄 모르는 생채기는 해가 가도 새삼 아프다. 남북적십자회담으로 한가닥 숨길이 트이리라고도 하지만 장벽은 아직 그대로 뜬뜬하고 따라서 남과 북에 얽힌 비극의 숨소리는 잠들지 않는다. 여기 자수간첩 박원남 씨(50. 경남 양산 출신) 22년은 그 비극과 수난의 아픔을 혼자서 떠맡은 듯 뼈저린 것이다. 육이오 땐 국군병사로 참전했으나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가 뜻하지 않게 북괴군복을 입어야 했으며 집단농장에서의 강제노동 노동당원생활 밀봉교육을 거쳐 남파간첩이 됐다. 국군으로서 그가 지키던 땅을 간첩이 돼 넘어왔으나 그는 곧 자수, 자유민의 자리를 되찾았었다. 스물두해만에 자유의 숨결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는 그는 절규한다. "국군에서 북괴군, 그리고 간첩에서 자유민... 자유에의 길은 그렇게도 멀었다"고. 그의 수기를 여기 싣는다.

수난과 비극의 모진 반평생

돌아다보면 마치 시계추의 신세처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건너뛰면서 허우적거려온 반평생이었다. 국군병사였던 나는 육이오 때 북괴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면서 수난과 비극의 구렁에 떨어졌다. 포로수용소를 풀려나서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북괴군의 복장을 입어야 했으며 집단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고, 밀봉교육을 받은 뒤엔 남파간첩으로 휴전선을 넘어야 했다.

남에 와서는 구사일생, 자수의 기회를 얻어 이제는 다시 자유민의 자리에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내 나이 어느새 오십. 육이오로부터 헤아리는 지난 22년, 나의 반평생은 수난과 비극의 수렁에 잠겨버린 악몽의 세월로 지나갔다. 반평생이라고는 하나 내가 나를 의식하기 시작한 철로부터 따진다면 삼분의 이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속에 묻어버린 것이다.

이제 겨우 자유의 땅에 섰지만 내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마음과 쇠약해진 육체뿐, 이제 이 실의와 허탈감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기 위해 마음을 달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또 없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또 내가 체험하고 목격한 북한의 참담한 실정을 소개하여 앞으로 공산주의 피해자를 줄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가 겪은 22년의 아픔을 수기로 엮는다.

인민군과 육박전 앞니 잃어

8.15 해방과 더불어 48년 10월 1일 창군 초기 뜻한 바 있어 국군에 입대한 나는 신병훈련을 마치자마자 울산, 포항, 영덕, 울진 등지에서 무장공비 토벌작전에 투입돼 많은 전투경험을 쌓았다. 당시 남한 곳곳에선 무장공비들이 끊임없이 출몰, 민가에 내려와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일삼던 때라 국군장병들은 늘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나는 대전에 본부를 둔 5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에 소속돼 있었으며 겨울철이면 삼, 사개월씩 대대 중대단위 병력을 따라 첩첩산골을 누비며 공비를 찾아다녀야 했다.

이렇게 바쁜 군대생활을 통해 나는 50년 5월 이등중사 진급과 함께 입대한지 꼭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름 간의 특별휴가를 얻어 그리던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다. 고향에는 부모님과 처자 그리고 동생 다섯이 살고 있었으며 나는 그중 장남이라 가족들의 반가움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짧은 휴가가 가족과 영영 헤어지

게 될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귀대 후 불과 한달.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요란한 비상나팔 소리에 놀라 깨니 북괴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다는 급한 소식이었다.

우리 5연대 병력은 급히 전투태세에 들어가 대전역에서 열차편으로 용산역에 도착, 트럭에 분승해서 이튿날인 26일 새벽까지 의정부 북방 동두천 일대에 전투 배치됐다. 날이 밝으면서 전방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북괴군 장갑차부대였다. 수백m 간격을 두고 우리는 소총을 쏴대고 수류탄을 던졌으나 북괴군들은 사정없이 밀어닥쳤다.

공방전이 시간을 끌수록 국군의 피해는 막심했다. 여기저기서 전우들이 쓰러져갔으며 워낙 화력이 열세인 국군은 후퇴를 거듭, 우리 1대대 병력도 서울 방면으로 밀려 미아리 일대에 방위선을 새로 구축했다.

그러나 28일 새벽녘엔 벌써 북괴군 탱크 대열이 미아리고개를 넘어섰고 우리 대대 병력도 뿔뿔이 흩어졌으며 내가 속해 있던 1중대 3소대 병력은 미아리 서북방 서원내 153고지 전투에서 인민군과의 육박전 끝에 거의 전멸했다. 이 육박전에서 나도 북괴군이 휘둔 총개머리판에 안면을 얻어맞고 쓰러졌다. 오른쪽 목은 총창에 찔려 피가 퀄퀄 흘러내렸고 앞니 전체가 뭉땅 부러져 잇몸과 함께 너덜거렸다. “이 간나새끼 정신나니” 하며, 인민군 두 명이 장총과 다발총을 겨눈 채 지켜보고 있었다.

다발총을 겨눈 자는 나를 포로로 데려가려 했으나 다른 한 명은 “분대장 동무! 다 죽어가는걸 무시기 하겠소. 죽여버리지비”하고 제의했다. 그러자 분대장이란 자가 우겨 나는 겨우 목숨만은 부지해서 이미 적의 손아귀에 들어간 시가지를 걸어 중앙청 광장까지 연행됐다. 작두로 손가락 자른 고문도.

중앙청 넓은 광장에는 1천여 명을 헤아리는 아군포로들로 붐볐으며 나를 연행한 분대장이란 자는 도착 즉시 위생병을 데려와 나의 상처를 보였다. 위생병은 내 목에서 수건을 풀다가 움찔하며 놀랐다. 상처가 너무 흉측했기 때문인 것같다. 그 자는 가방에서 집게를 꺼내 내 잇몸에 붙어 너덜대는 십여대의 치아를 사정없이 잡아뽑고는 솜뭉치에 빨간약을 흠뻑 적셔 입속에 틀어박고 목의 총창상에도 빨간약을 두서너 번 바른 뒤 마스크를 씌어주고 가버렸다.

7월 1일 나를 포함한 1천여명의 아군포로들에겐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닥쳤다. 가족과 고향을 생이별한 채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북녘행 화물열차에 몸을 실어야만 했다.

밖으로 철문이 굳게 잠긴 화차 속엔 한 량에 1백여 명씩의 포로들을 실어 발뻗을 틈도 없었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서울역을 떠나 북으로 향하자 포로들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나도 분받치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 엉엉 울었다.

내 나이 그 때 28세. 나는 이렇게 해서 북으로 끌려갔다.

허기와 피로에 지친 채 우리가 목적지인 함경북도 회령 포로수용소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떠난 지 사흘 만인 7월 4일 아침이었다. 이중 철조망으로 둘러 있는 20여 채의 건물에 포로들은 한 방에 50명씩 분산수용됐으며 숨돌릴 겨를도 없이 우리는 포로심문을 받아야 했다. 경력이나 계급이 진술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포로는 고문실로 넘겨져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작두로 손가락을 잘리기도 했다. 나는 중환자 취급이 돼 구더기가 나는 목의 상처와 잇몸을 이틀에 한 번씩 형식적이나마 치료를 받느라 심문 때마다 중사계급을 속여 번번이 병사로 가장했지만 고실로는 끌려가지 않았다.

20일간의 포로심문 과정에서 수십명의 장교들을 포함한 150여 명의 포로가 처형됐거나 불구가 됐다. 포로들은 하루 두 끼 통강냉이 주먹밥으로 겨우 연명했으며 목욕도 빨래도 한 번 못했다. 남한에서 입고온 채로 몇 개월이 지나니 몸에선 악취는 고사하고 이가 수물거려 못살 지경이었다. 게다가 10월로 접어드니 함경도 추위는 벌써 영하 10도를 오르내려 맨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거하기란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다. 나는 몸

의 심한 상처에다 여름철 3개월을 학질까지 앓고 이가 없어 제대로 먹지조차 못해 쇠약할대로 쇠약해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11월 12일 뜻밖에 출발 명령이 내렸다. 한 방 동료들은 몸을 제대로 지탱 못하는 나를 위해 참나무 막대기에 새끼줄을 감아 들것을 만들어 나를 태웠다. 공습 때문에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야음을 이용, 어디론지 우리는 이끌려갔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행군으로 포로들은 모두 발이 부르터 산속에 쉬는 동안엔 부르튼 발바닥의 물집을 터뜨려 바늘에 실을 꿰어 다시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상처를 얼기설기 꿰맸다.

사흘 만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함경북도 아오지. 말로만 듣던 강제노동의 탄광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 섬뜩해졌다. 나는 어느 병영에 도착 즉시 5개월 동안 생사를 같이 하던 동료들과 헤어져 인민병원이란 간판이 붙은 건물로 옮겨졌다. 기술부원장이란 사람이 진찰을 해보고 폐결핵 초기라해서 병동에 정식 입원했다. 이튿날 우리를 호송했던 북괴군 상위가 찾아와서는 내의 한 벌과 국방색 누비옷 한 벌을 내 놓으며 박 동무는 오늘부터 조선인민군 제 48사단 58연대 1대대 1중대 전사요 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가. 어제까지도 국군이던 내가 하루아침에 인민군 아니 북괴군이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두 달 간 결핵치료를 받는 동안 한국전에 중공군이 개입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절망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정월 15일 나는 병실에 찾아온 중대장이란 자를 따라 퇴원을 해서 어느 연병장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포로생활을 같이 하다 두달전 헤어졌던 동료들이 모여있었는데 모두 북괴군 복장이었다.

우리는 만나자 반가우면서도 북괴군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들이 볼쌍사나와 쓴 웃음을 건넸다. 우리는 장총을 지급받고 갑산을 거쳐 남쪽으로 하루 칠, 팔십리씩 강행군을 계속했다.

부대가 원산 근처에 머무는 동안 나는 앞니가 열네 대나 부러진 채 식사를 전혀 못해 꼬챙이 같이 몸이 말라있던 터라 병이 완쾌되지 않았다고 인정받아 북괴군 전선 사령부 제 58후송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4개월 간 동부전선에서 후송되는 중상자들 사이에 끼어 의치도 해넣고 신병치료를 해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될 무렵 병원 정치부부장이라는 북괴군 중좌가 부른다기에 가보니 음식 솜씨가 괜찮으면 병원취사병으로 일하라는 것이다. 이젠 별 도리 없이 요령껏 지내자는 생각으로 취사병에 자원한 나는 끼니마다 고마이 한 가지 반찬에 물려 진저리를 내는 환자들을 위해 고마이를 민가에 내다가 호박, 오이들로 교환해다 색다른 반찬을 만드는 등 식생활 개선으로 대환영을 받아 그해 8월 15일에는 부대 표장을, 53년 3월에는 북괴군사령관 김광협 추천으로 군공메달까지 받았다.

북괴군 제대후 무기한 봉사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이 다시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으로 밀리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협정이 조인된 것을 알았으나 포로로 북괴군에 강제편입된 소위 해방전사들에게는 포로교환 문제가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나는 이듬해 54년 5월 병원 정치부장이 부른다기에 혹시나 하고 가보니 뜻밖에도 민족보위성 명령 167호에 따라 나를 고령제대시킨다는 것이다.

정치부장은 내게 군속으로 병원취사반에 남아있게 해준다고 은근히 꾀었으나나는 어차피 고향에 못갈 팔자라면……하고 제대증과 배치장을 받아들고 삼년이나 몸담아 있던 병원문을 일단 나섰다.

말이 제대지 북괴군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제대와 동시에 배치장에 따라 생소한 지역에 투입돼 집단농장이나 전화복구사업에 무기한 봉사해야 했다.

농촌부흥의 선구자되라 강요

내가 병원을 떠나던 날 군의관과 간호원들은 진심으로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듯 정문까지 몰려나와 환송을 했으며 부디 잘가시오 하는 소리에 나는 웬일인지 울음이 북받쳐 한없이 울면서 걸었다. 사실 나는 북한 땅 어느 구석에도 나를 반겨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갈 곳 없는 신세가 아닌가.

나는 함께 병원에서 제대한 의용군 출신 이재천과 함께 이틀을 걸어 안변대기소로 갔다. 소학교 건물과 같은 대기소에는 각군 부대에서 온 제대자 100여 명이 집결해 있었으며 중앙당지도원이란 자가 나서더니 "원수께서는 이번 제대한 동무들을 모두 농촌으로 보내라고 교시하셨소. 그러니 동무들은 폐허가 된 농촌을 다시 일구는데 선구자 역할을 해야겠소"하며 열을 올렸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2. 6. 24

No.	090	작성자	위가야
제목	**황의순 주부가 기억하는 6.25와 미아리고개**	키워드	그 밤, 6.25, 소녀
이야기	6.25를 상기한다 황의순(주부. 서울 성북구 미아동) 스물 전의 소녀가 바로 그 또래의 딸을 갖는 세월이 흐르도록 가슴에 새겨진 아픈 추억이 바로 6.25다. 여름비가 부슬거리던 밤이었다.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의정부를 지났다고하고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안국동까지 왔다고도 했다. 재빠른 사람들, 또 고관의 가솔들은 벌써 남쪽을 향해 한강을 건넜다고도 떠들었다. 분노와 두려움과 흥분과 초조가 격류되어서 가슴을 팽배하던 그 밤. 동이 튼 아침 하늘은 구름을 헤집고 맑게 갰으나 땅위엔 온통 붉은색이 넘쳤다. 그 후 숱한 날들을 생사의 분간조차 어려운 고비 고비를 겪고 견디면서 그래도 살았노라고 호흡을 가늠하던 쓰라린 기억들이 생생하다. 이따금 아이들이 6.25를 물어오면 나는 아빠에게, 그이는 나에게 서로 미루는 버릇이 생기도록 잊고 싶은 일들인데. 그러나 요즘은 6.25를 정말 잊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와진다. 남북적십자회담의 무드 속에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들은 한결같은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6.25를 잊고 과거의 아픔을 잊는 국민이 될수야 있겠는가? 오히려 통일이 오고 평화가 찾아든 뒷날까지라도 해마다 6.25만은 옷깃을 여미고 그날의 아픔을 되새겨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3. 6. 25		

No.	091	작성자	위기야
제목	**납북될 뻔했던 가수, 신카나리아**	키워드	서대문형무소, 조카네 집, 재회
이야기	밧줄로 꽁꽁 묶인 죄없는 죄수들이 서대문형무소를 나선 것은 낮 12시쯤이었다. 그때 서대문형무소는 주위에 건축물이 별로 없어서 꽤높은 언덕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형무소를 나서며 시가지를 바라보니 온통 불바다였다. 곳곳에 부서진 가재도구가 널려있고 건물들은 부서져 있었다. 서울은 두 달 사이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종로를 지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뚝섬 쪽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종로4가에서 행렬은 미아리 쪽으로 꺾어졌다. 북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의 힘이 쭉빠졌다. 2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못먹었으니 나의 몸은 쇠약할대로 쇠약해져있었다. 한여름에 잡혀왔으니 옷도 반소매 옷이라서 벌써 한기마저 들기시작했다. 삼선교 못미쳐서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이 어린 인민군이 달려와 구둣발로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으나 미아리고개를 넘지 못하고 나는 다시 쓰러졌다. 같이가던 남자에게 나를 업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도 몇 발자국 못가 쓰러졌다. 영락없는 지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숨진다면 지나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남편에게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의식은 점점 몽롱해져가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아마 인민군이었겠지만) 나를 질질 끌고가더니 길 옆에 모래주머니로 만든 벙커 속으로 처박았다.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하는 소리를 마지막 들으며 나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다시 의식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무언가 얼굴을 갑갑하게 내리덮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거적이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그것을 밀치고 나니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들은 내가 죽은줄로 알고 거적까지 덮어두고 갔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순간 나는 돈암동 버스종점 근처에 있는 조카네 집으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25 얼마전에 내가 조카들을 위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 주었다. 그들이 아무 탈 없이 살아있다면 다 죽어가는 내 목숨을 다시 살려줄수 있을 것이다. 나는 괴뢰군들의 손에 다시 잡히지 않으려고 어두운 밤길을 조심조심 걸어갔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리였지만 언제 어디서 그들이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 어느 가게 밖 숯가마를 쌓아놓는 곳에 숨기도 했다. 새벽녘이 되자 부역나가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 틈에 섞여 나는 조카집 앞까지 왔다. “춘자 에미야...” 한마디를 부르고 나는 그만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나오며 “어머, 고모님이 살아오셨네” 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순간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기분이 들었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밥을 달라고 했다. 굶주림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아이들은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고선 곧 의사를 구하러 나섰다. 내 이마에선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서울에서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였다. 모두들 남쪽으로 피난을 갔거나 북쪽으로 납치되어 갔던 것이다. 저녁무렵에야 늙은 의사 한분을 모시고와 이마의 상처를 치료받고 나는 죽은 듯이 잠에 빠졌다. 그동안에 아이들은 충신동 누이집에 피신해 있던 남편에게 전갈을 보냈고 9.28 수복		

	다음날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나는 남편을 보고나자 첫돌을 넘긴 나의 무담독녀 혜정이 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좀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데려오겠다고들 했지만 막무가내로 우겨대니 조카가 동대문 집으로가 혜정이를 데려왔다. 그러나 그 귀여운 딸의 모습도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출혈과 영양실조로눈이 나빠진 것이다. 동대문집으로 온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자 나는 눈을 치료하러 광화문의 공안과를 찾아갔다. 영양실조 때문이니 잘먹으면 차차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11월 중순 무렵에 육군본부에서 가협을 만들었다. 지금은 작고한 극작가 김영수 선생 작곡가 박시춘 선생, 장동휘 심연옥 등이 나와 함께 전속되었다. 김영수 작 박시춘 작곡의 <배달장군>을 12월에 국도극장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나는 채 몸이 회복되기 전에 연습을 시작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81. 8. 6

No.	092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납북된 소설가 박영준**	키워드	8월, 미아리고개, 문학가동맹, 탈출, 소설집 빨치산
이야기	해방 직후의 민족적 감격을 어느 시인은 '물결과 같은 방향에 서면 물결보다 앞장서는 나의 마음은 바다처럼 푸르다'고 노래했다. 광복의 기쁨에 사로잡힌 그들은 티 한점 없는 하늘 아래서 기쁨에 들뜬 나머지 그들을 싸고도는 국제정치의 음울한 기류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소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가 우리의 적인 일제를 물리쳐주었다는 면에서 우리의 우방이며 동지이며 자유의 십자군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의 민족지도자들이 얼마나 감상적으로 해방을 맞아들이고 응대했는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들어가서 행한 첫 번째 행동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망치를 들고나가 총독관저로 사용했던때의 전구라든지 가로등을 모조리 부수어버렸다. 새로운 국가상의 정립에 머리를 썩여야할 지도자의 첫일이 전등 부수는 일이었던 것이다. 문학인들의 행동도 그 범주에서 한치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어느 회의장에서 무슨 대회가 열리고 누구누구가 참석했는가, 어떤 문인들이 어느 다방에서 만났는가 하는 소문들이 비이성적인 욕지거리와 함께 떠도는가 하면 그 비난소리들은 점점 문학인들을 파당화시켜갔다. 같은 직장(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소설가 박영준과 이무영도 문학동맹에서 주최하는 전국문학자대회에 참석하고 안하는 차이로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박영준은 이무영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선생, 구경이나 가시지요" 이무영은 대답없이 마도로스파이프를 빨아댔다. 박영준은 "그럼 저 혼자 다녀오지요"하고는 문을 밀고 나갔다. 그런 지 달포 뒤쯤 이번에는 이무영이 박영준에게 말했다. "박형, 우익에서 문학단체를 만들어 문학인대회를 연다는데 구경가지 않겠소?" 박영준이 무뚝뚝한 어조로말했다. "가면 뭘합니까?" "구경은 고루해 두어야 해요. 우리같은 잡지 편집자는 이쪽 저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해요." 박영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런 뜻이라면 따라가 보지요." 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종각을 돌아 YMCA로 향했다. 서로 말이 없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의 마음의 길은 달라져 갔다. 이무영은 우경화해 갔고 박영준은 백민 잡지를 거쳐 민성 잡지의 편집장이 되고서는 선명하게 리버럴한 태도를 취해 나갔다.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차 북행시엔 협상을 적극 지지하는 105인 성명에 서명했고 김기림, 이흡, 오장환, 박계주 등과 어울렸다. 그런 박영준의 길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가 일어나고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독안에든 쥐처럼 적 치하의 서울에 묶여 문학가동맹에 나가게 되면서 붕괴, 좌초하게 되었다. 그는 8월 어느날 박계주 김용호, 유정, 김수영 등과 함께 강제로 북괴군에 지원입대, 북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새벽의 미아리고개를 넘어 평안북도 개천에 있는 북괴군 훈련소까지 걸어갔다. 옷이 헤지고 굶주림과 공포에 질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허기증까지 생겨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밤마다 "유형! 유형!"하고 불렀다. 유정은 대답할바를 몰랐다. 김수영도, 김용호도 일반이었다.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로와 굶주림에 시달려 몰골이 사나와진 그를 보고 북괴군 훈련사병이 불독같다고 유난스레 미워하고 욕질을 했		

다.

그는 주저앉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하나 그의 주위를 싸고 있는 문인들의 눈물어린 시선때문에 그는 온힘을 다하여 하루하루 버티어나갔다. 그런 삶이 유엔군이 평양에 들어온 10월 19일가지 계속되었다.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19일 밤 박영준은 김용호, 박계주와 함께 북괴군 부대를 탈출하였고 북행 때와같이 걸어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 뒤 '북괴군 지원입대'라는 부역 사실 대문에 모기관에 불려가 취조를 받았는데 머리를 박박 깎고 뼈만 남은 그들의 표정은(박계주만은 긴 머리였다.) 촉수가 약한 백열등의 불빛은 받아 사자와 같이 음산해 보였다. 벌쭉벌쭉 웃는 김용호의 웃음이 그 음산한 풍경에 기이한 색채감을 부여해주고 있었다. 왜 그는 그때 웃었을까. 망실의 웃음이었을까. 되찾은 삶에 대한 환희의 웃음이였을까.

김용호의 옆에 앉은 박영준은 김용호의 웃음 때문에 더욱 더 굳고 어두워 보였다. 그는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종군작가단의 일원이된 뒤에도 얼굴의 부기와 불안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석고상과 같이 딱딱했다. 아마도 그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북괴군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이 작가로 하여금 『빨치산』 이라는 반공소설집을 내게 하였고, 제 1회 자유문학상을 수상하게 하였으며 환도 이후의 서울을 홀로 배회하게 하였을 것이다. 50년대 말에 유명하였던 상공회의소 뒤의 '가화' 다방을 문인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70년대 초까지 홀로 그 어두운 벽면을 배경으로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도 이제는 그의 색깔이 되어버린 그 불안과 공포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3. 3. 26

No.	093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와 낙동강**	키워드	흥남, 낙동강, 납북, 이산
이야기	6.25 동란은 몇 개 평범한 지명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한다. 그것은 대개 비극적인 것이지만 장엄성을 띈 것도 있다. 가령 북한 땅에 있는 흥남은 철수의 회한을 떠올리게 한다. 중공군의 개입과 군의 철수작전 북한 주민의 자유를 찾는 남하 물결, 그리고 이별과 피난길의 아픔이다. 미아리도 마찬가지다. 북괴가 자유인사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단장의 미아리고개이다. 납북 망행과 이산의 원통함이 미아리고개에 서려있다. 그런데 낙동강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거기에는 조국애와 나라를 위해 젊은 신명을 바친 장엄성이 있다. 6.25가 되면 누구나 입에 한 번쯤 올려보는 전우의 노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앞으로 앞으로/낙동강아 잘있거라/우리는 전진한다. 노래말에서 낙동강은 후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등장한다. 6.25동란에서 우리의 마지막 방어 보루는 낙동강이었다. 남북 135km, 동서90km의 장방형의 전선에서 낙동강은 천연의 엄호벽이 되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북괴군은 대구, 그리고 부산으로 밀려올 것이었다. 50일 간의 밀고 밀리는 격전 끝에 적의 공세를 저지, 승기를 여기서 잡았다. 거기에 뿌려진 젊은 병사의 피는 강하를 물들였다. 고수 아니면 죽음이던 것이 낙동강 전투였다. 다부동, 신녕전투는 6.25전사에 남는 격전지다. 오늘도 낙동강은 유유히 흐른다. 고대에는 신라, 가야의 문화를 꽃피우게 한 젖줄이다. 그 강물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무명용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4. 6. 25		

No.	09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반야월 작사 '단장의 미아리고개'**	키워드	반야월, 딸 수라, 개나리 고개, 애창곡 1위
이야기	'단장의 미아리고개' 작사가인 반야월씨(69·본명 박창오)는 6.25만 되면 남다른 악몽에 시달린다. <…화약냄새 앞을 가려 눈 못뜨고 헤매일때/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꼭꼭 묶인채로…> 6월에 들어 더욱 넓게 메아리지는 이 노래가 들리면 전란의 희생이 됐던 당시 5세의 귀염둥이 딸 수라양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35년전 노도같이 밀어닥친 북괴군이 갖은 만행과 더불어 눈에 띄는대로 장정들을 끌고 고개를 넘은 것과 극도의 영양실조에 충격으로 숨진 딸을 주제로 해서 지은 6.25의 상징적인 가요. 동란이 터진 후 불과 3일만에 북괴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당시, 미아리에 살았던 반씨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단신으로 경북 김천까지 피신했었다. 그해 긴긴 여름을 호박과 감자죽으로 이어온 수라양이 영양실조에 끝내 숨져버린 사실은 9.28수복 후에야 알았었다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마치 딸 수라와 바꾼 노래같은 생각이 들어 반씨는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56년 반야월 씨의 노랫말에 '산장의여인' 작곡가인 이재호씨가 곡을 붙였고 당시의 인기가수 이해연 씨가 부르면서 6.25를 상징하는 반공 성격의 노래로 애창되어오고 있다. 지난해 KBS가 조사한 6.25노래에 대한 가요팬들의 애창곡 통계는 ①단장의 미아리고개, ②굳세어라 금순아, ③전우야 잘자거라 순으로 나와 있다. 30여년 동안 유명가수들이 다투어 취입했으며 방송의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가 된 것은 애절한 멜로디와 함께 비극을 그린 노랫말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많은 반공인사들이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렸고 이 고개를 아군이 넘어왔느냐 적이 넘어갔느냐로 '수도의 포기' '서울탈환'으로 표현됐던 미아리고개. 당시 달구지 2대가 비켜갈 만했던 바윗고개가 지금은 4차선으로 넓어져 마루턱에는 육교가 가로질러있고 정상 오른쪽 언덕배기엔 언제부터인가 '개나리고개'라고 새긴 대리석 입석이 놓여있다. 반야월씨는 '비극의 현장 미아리고개가 그 이름조차 바뀌어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다.'고 말한다. 24일 이곳을 찾은 반씨는 '자라는 세대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노래비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반씨는 현재 원로작사, 작곡가들의 모임인 작가동지회 회장직을 맡고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85. 6. 25		

서라벌예술대학과
미아리고개의 예술가들

No.	095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와 서정주**	키워드	남산, 김세종, 설립
이야기	12월2일, 오전 열시 반 비행기로 호놀룰루를 떠나면 로스앤젤레스까지는 다섯 시간이 걸린다기에 오후 세시반의 밝은 낮에 도착할줄 알았더니 이 두곳의 시간 차이 두시간을 보탠 오후 다섯시반에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고, 이미 이곳은 네온사인이 휘황한 밤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몸을 담고 있었던 서라벌예술대학의 전설립자요, 학장이었던 김세종씨가 그의 여비서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척은 반가와하며 나를 끌어안아서 나도 그를 안고 등을 가벼이 두드려 주었다. 이순정과 의지의 사내 그는 건재하였다. 1954년 서울 남산 변두리에 줄행랑 같은 판잣집의 가교사를 짓고 아직 대학인가도 없이 서라벌예술대학을 시작했을때부터 나는 그를 믿어 문예창작과에 강의를 해온터라 그를 나대로는 잘알지만 그처럼 끈질긴 뜻을 세워 한결같이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도 드물줄 안다. 그는 빈주먹으로 나서서 일꾼들과 함께 손수 벽돌을 날라 서울 미아리의 서라벌예술대학을 세워 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내며 이것을 확장하여 예술대학교로 만들려고 서울 교외에 학교 기지가 될 땅을 사들였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운사납게도 그린벨트제도가 생겨 거기묶이자 할수없이 재정파탄을 당해 중앙대학교에 서라벌예술대학의 운영권까지 맡겨버려야할 운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다. 이 무렵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가장 아끼던 그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는 세계 방랑을 한 채쯤 하는걸로 그 상처를 대충 씻어내고는 여기 아메리카의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서 다시 그의 대단한 의지를 펴 사오년 동안의 노력 끝에 사우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한 개의 대학교의 인가를 얻어내는데까지에 이르른 것이다. 물론 아직 시설도 부족하고 학생수도 겨우 몇백명밖에 안되는 초창기의 대학교 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외국에 세워진 맨처음의 대학교인걸 생각할 때 나는 그의 의지에 대한 가슴벅찬 존경의 느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국내 국외 어디에 살건 우리 동포된 이들은 누구나 그의 이일을 도와 이루어내게 해야할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8. 1. 25		

No.	096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한분순 시인의 회고**	키워드	김동리 소설창작 강의, 신춘문예, 박용래

이야기

시만을 사랑하다 떠난 L문우
한분순(64학번, 시인·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서울 돈암동 미아리고개를 넘어 버스를 내리면 곧바로 길음시장이 나오고, 비좁은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걷다 보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고성처럼 서 있는 아담한 건물이 서라벌예대였다.

수업시간. 김동리 선생님의 소설 창작 강의는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써 온 작품 하나하나를 읽으며, 첫 문장부터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던 강의. 무엇보다 작품 첫 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첫 문장이 정확해야 더 읽을 마음이 생기고 작품의 첫 문장에서 이미 그 작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서정주·박목월·김구용 선생님 시간에도 학생들 작품을 일일이 읽고 지적해 주시는 창작실기는 글 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기생들 중에는 수업 시간에 제출하여 지적받고 수정한 작품을 신춘문예에 응모하기도 했다. 그중 L은 신춘문예 최종심에 오른 것에 용기를 얻어 그 후 계속 응모하였으나 늘 턱걸이에 머물렀다. 낙선의 고배를 마실 때마다 길음시장 포장마차 긴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동문들도 덩달아 마시며 위로의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러던 그가 신춘문예 도전 10년째 되던 해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동아일보에 시조가, 서울신문에 시가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기쁨으로 몸도 약한 그가 매일 밤 문우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술 좋아하던 박성룡 시인과도 만나고 충남 공주에 사는 박용래 시인, 서벌 시조시인과도 자주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작품 이야기로 날 새는 줄 몰랐다.

어느 주말. 내가 근무하는 편집국에 원고료를 받으러 그가 들렀다. 원고료 지불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면서, 술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긴다고 했다. 남의 집 대문 옆에 놓인 네모난 시멘트 쓰레기통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쭈그리고 앉아 단잠을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술 마시고 귀갓길에 그의 집 근처 도랑에서 실족사했다는 전갈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주말에 본 그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빈소가 차려진 청량리 근처 위생병원으로 문상을 갔다.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깔아 놓은 병원 마당에는 공주에서 올라온 박용래 선생이 막걸리를 마시며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넌 시인처럼 죽었구나, 시인처럼 죽었어."를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땅을 치면서 슬피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동기생이 좀 더 긴 세월을 살았더라면 참 좋은 작품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문단 데뷔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나는 신춘문예 계절이 오면 일간 종합지를 한 아름 사들고 걸으며 치열하게 시 속에 살고 시만을 사랑하다 세상 뜬 그 문우를 떠올리고는 한다.

원천자료	김주영·이근배·오정희 외, 2013, 『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 작가세계, pp.12~13

No.	09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이경자의 회고**	키워드	이경자, 오정희, 황석영, 이동하
이야기	부끄럽지만, 아름다웠던 시절 이경자(65학번, 소설가) 대학입시 1차에 떨어져서 생사도 구별하지 못하게 마음이 얼어 버린 때, 강릉고 출신의 남학생 정종명이 서라벌예술대학에 가 보라고 말해 줬다. 미아리고개를 넘으면 학교가 있다고 그랬다. 미아리고개라면 단장의 미아리고개일 테니 찾기도 쉬울 것이라 여겨 혼자 그 곳을 찾아갔다.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험한 고개는 나오지 않았다. 강원도 산골 출신의 내게 4차원으로 뚫어 놓은 포장길이 고개로 보였을 리 만무. 그래도 운이 좋아 합격해서, 중학교 때부터 가출 및 탈출하고 싶었던 고향땅 양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김동리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소설 창작만 열심히 듣고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다. 첫 학기에는 강의실이 비좁도록 학생들이 들이찼다. 날이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열아홉 살 소설가 지망생이던 나는 소설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토하듯이 소설을 써 댔다. 소설을 써서 시간 중에 읽힌다는 것만으로 소설을 잘 쓰는 편에 속했다. 어느 날 내 뒤에 앉았던 서울 출신의 여학생이 등을 툭 치더니 쪽지를 줬다. '경자 씨. 중국집에 가면 꼭 문을 조금 열어 놓고 먹어야 해.'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화여고 출신의 오정희가 소설을 잘 썼다. 수업 중에 발표한 소설에 홀랑 반했다. 키가 작고 다부진 남학생이 기억난다. 잊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용산고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는 소설을 잘 쓰려면 사회의 밑바닥을 알아야 한다며 나를 서울역으로 데려갔다. 지금의 대우빌딩 근처이니 유명한 사창가였던 '양동'의 입구쯤이었던 것 같다. 그는 기차같이 생긴 다방으로 데려갔다. 담배연기 자욱하고 말소리가 천장까지 두텁게 쌓인 그곳은 아마 역전다방이란 이름이 붙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이 '황석영'이라고 했다. 사춘기 때 『사상계』에서 읽고 「입석부근」을 쓴 그 황석영이라는 것이었다. 황석영이든 아니든 나는 그가 소설가라는 데 홀랑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내게 소설을 잘 쓰려면 어쩌고저쩌고 사회의 밑바닥과 군중의 생활을 알아야 한다, 등등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가 누군가를 소개도 해 줬다. 어떤 남자였던 것 같다. 그는 서울역으로 가서 구두닦이도 인사시키고 그랬던 것 같다. 그 후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등단을 하고 황석영 선생님을 만났다. 그때 그 사람, 키가 작고 다부지고 얼굴색이 검은 편이던 그 학생이 아니었다. 나는 일종의 저능아나 지진아 군에 속하는 편이다. 세장물정을 잘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랑 이야기를 해 보거나 살아 보면 내 의식이 좋으면 순수, 나쁘면 천치라는 걸 금방 깨닫는다. 이런 사람이라서 열아홉 살 그 나이에도 김동리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충격이었다. 이런 충격의 유사한 것이 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보문동을 지나는데 허리가 조금 구부정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 이동하 선배님! 왜 소설가가 되었는데도 저렇게 기운 없이 걸어가지? 내 현실 감각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허공에 떠 있다.		
원천자료	김주영·이근배·오정희 외, 2013, 『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 작가세계, pp.14~15		

No.	098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송기원의 회고**	키워드	송기원, 어머니, 돌산, 판잣집

이야기

이 돈이 뭔 돈인지 잘 알제?
송기원(68학번, 소설가)

내가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나에게 여러 번 당부하였다.

"아무튼 출세를 해야 헌다잉. 기연시 출세를 해서 금의환향을 해사제 이 엠씨 한이 풀릴 거잉께. 나사 니가 출세만 한담사 여그서 문 일은 더 못하겄냐? 나가 살이 닳아 없어지고 빼가 뿌서져서 가루가 되야도 니가 출세를 할 때까장 두시바라지를 하고 말텡께."

당시 어머니는 전라도 바닷가의 시골 5일 장터에서 거적 몇 장에다가 차일을 치고 난장에 퍼질러 앉아 김이며 미역·멸치 따위 건어물을 파는 장돌뱅이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장돌뱅이 어머니가 하루도 쉬지 않고 5일장을 돌아다니며 모은 쌈짓돈을 받아 서울로 소위 유학을 온 셈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출세란 일테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암행어서 출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출세는 이미 절반쯤 '따 놓은 당상' 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여긴데는 무엇보다도 고교 시절에 보인 나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시골 장터 사람들의 순박한 오해에 기인한 탓도 없지 않았다. 어쩌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백일장에 장원을 하고 또 지방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자 장터 사람들이 "아, 옛날 같으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를 한 셈 아니여?"하고 어머니를 부추긴 것이 어머니에게 '암행어서 출두!'같은 환상을 품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이 돈이 뭔 돈인지 잘 알제? 니 엄씨 뺏골 빠진 돈이다! 출세허는 일 말고 헛된 곳에 쓸 생각일랑 아예 말어!"

어머니는 내 아래 속옷에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넣은 돈주머니를 달면서 내 귓바퀴에 입김을 쏟아 넣우며 되풀이하고는 했다.

어머니가 당부해 마지않는 소위 출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가를 자식은 너무나도 빤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뺏골 빠진 돈'으로 자식을 뒷바라지하여 대학에 보내 보았자, 훗날 자식이 소위 어머니의 한을 풀어 줄 희망은 털끝만큼도 없을 것이었다. 기껏 출세랍시고 해 봤자 시인 나부랭이가 되어 가난하고 꾀죄죄한 문인 행세를 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었다. 이미 조숙하여 고교 때에 지방에서 벌써 시인 노릇까지 흉내내 본 자식으로서는 어머니와는 달리 출세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환상도 일찌감치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후였다.

서라벌예술대학은 시내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오른쪽의 산등성이에 덩그렇게 위치해 있었다. 원래 바윗덩어리로 이루어진 돌산의 중턱을 다듬어 거기에 올려놓듯 세운 대학 건물은 예술 어쩌고 하면 흔히 떠올리기 마련인 무슨 화려하거나 고상한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아리는 서울의 변두리에 속했다. 그런 미아리 일대에서도 예술대학은 무허가 판잣집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산동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

	는데, 게다가 반듯하게 자란 나무 한 그루 없이 본관을 위시해서 교사들만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분위기였다. 어쨌든 장돌뱅이 어머니의 무거운 한을 어깨에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와 벌써부터 서울이라는 곳 자체에 주눅이 들어 헉헉대는 나에게는 기이하게도 미아리고개를 넘어서서 예술대학의 건물이 보이기만 하여도 금방 주눅에서 풀려나 생기가 도는 것이었다. 그런 예술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한 마리 암뱀이 되어 당연한 것처럼 암흑의 사상을 품어 퇴폐며 탐미, 그리고 위악이라는 새끼들을 낳았다. 아아, 그 새끼들 덕분에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문인 행세를 하며 살아남을 줄 누가 알았으랴.
원천자료	김주영·이근배·오정희 외, 2013, 『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 작가세계, pp.18~19

No.	099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한승원의 회고**	키워드	한승원, 뽕뽕다리, 1960년, 교수진

이야기

별들이 번쩍이던, 미아리고개 강의실
한승원(60학번, 소설가)

1960년 3월, 미아리고개의 2년제 서라벌예술초급대학 문예창작과 1학년 강의실에는 별들이 번쩍거렸다. 학과 정원이 60여 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삼분의 일가량이, 이런저런 대학의 문학 콩쿠르에서 장원, 차상, 차하, 최우수상 따위에 입선한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등록금 전액 면제의 갑류 장학생이거나, 반액 면제 혜택의 을류 장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문단에 등단한 시인도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 대단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방 시인이 그였다. 나머지는 등록금을 온전히 내고 들어온 일반 학생들이었는데 나와 이문구와 하현식은 거기에 속했다. 그 속에서 시골뜨기인 나는 만학이었으므로 늘 가슴 두근거림을 안은채 하루하루를 살았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진이 좋아서 미아리고개의 서라벌예대 문창과로 모여든 오기와 패기 넘치는 문사들이었다. 시인으로는 서정주·박목월·김구용 선생이, 소설가로는 김동리 선생, 평론가로는 조연현 선생이 강의를 했다.

'시 창작론'과 '시 실기' 강의는 서정주 선생과 김구용 선생이 했고, '문장론'은 박목월 선생이 했고, '소설 실기'와 '소설 창작론'은 김동리 선생이 했고, '희곡론'강의와 '시나리오론'강의는 지금 나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어떤 분들이 맡았다. 40대 중반이거나 후반이던 그 선생님들은 모두 열강을 했다.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실기 시간은 늘 치열했다.

이마에 별 한둘씩을 달고 있는 학생들은 실기 시간에 누군가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사정없이 찍고 까고 헐뜯었다. 오만과 치기가 넘쳐났다. 작품을 제출한 학생은 뭇매를 맞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강의실에는 나중에 경희대로 전학 간 조세희 소설가(후에'난장이'연작 소설로 서울의 종이 값을 올려놓았다.), 이세방 시인, 이문구 소설가(『관촌수필』의 작가),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간 박상륭 소설가, 졸업 후 한양대로 편입한 이건청, 하현식·장효문 시인, 강호무·한상윤 소설가, 이재금·조정자·곽현숙 시인 그리고 내가 있었다.

나는 교수들의 강의 한마디 한마디, 학생들의 감상소감 발표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들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발견이었고, 하루 하루의 삶은 피와 살이 되고 있었다.

김구용 선생은 T.S엘리엇의『황무지』와「J.A.프루프록의 연가」, 단테의 『신곡』들을 줄줄 외면서 강의를 했고, 학생들에게도 외우라고 했다. 미술 전람회에 반드시 가라고 하고, 좋은 연극·영화를 보라고 하고,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들으라고 권했다.

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국립도서관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고, 점심을 굶으면서도 유치진 선생의 남산 원형극장에서 공연하는 <햄릿>, <세일즈맨의 죽음>, <포기와 베스> 등을 관람했고, 음악 감상실에 드나들었다.

미아리 학교 앞에서 길음동으로 가려면 정릉천을 건너야 했다. 내를 가로질러 뽕뽕

	다리가 놓여 있었다. 뽕뽕다리 양옆에 대포집과 밥집·떡집·빵집들이 널려 있었다. 학생들은 끼리끼리 어울려 대포를 마셨다.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서 마시기도 했다. 나는 하현식과 함께 2학년 교실에 가서 도강을 했다. 선배들은 후배들의 도강을 모른 체했다. 선배들의 강의실에는 소설가 김원일과 시인 신중신이 있었다. 훗난 영화감독이 된 김원두도 거기에 들어 있었다. 신중신은 시 실기 시간에 발표한 「내 이렇게 살다가」라는 시를『사상계』신인상에 응모하여 당선되었다. 키 작달막한 오 모는 재학 중에『자유문학』소설부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다. 나는 도강을 하면서 선배들의 치열한 활동을 부러워했다. 아, 누가 다시 가져다줄 것인가. 하루하루 가슴 두근거리게 하던 그 미아리 서라벌예대 문창과 다니던 시절을.
원천자료	김주영·이근배·오정희 외, 2013,『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 작가세계, pp.67~69

No.	100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정종명의 회고**	키워드	정종명, 오정희, 이경자, 윤정모, 김년균

이야기

내 문학의 뿌리는 제4강의실
정종명(66학번,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단편 당선되어 특기장학생으로 문창과 입학

나는 탄광촌으로 알려진 태백에서 중학교를 나와 강릉으로 유학을 갔다. 전신이 사범학교인 강릉고에 진학해 보니, 거기에 시인 원영동 선생님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셨다. 선생님은 내가 만난 최초의 문인이었다. 중학교 시절에 소설 비슷한 글을 써서 『학원』이란 학생 잡지에다 이름 석 자를 올려 본 이력을 밑천삼아 겁도 없이 문예반을 기웃거리게 되었는데, 그런 병아리를 선생님은 은혜로운 눈길로 보살펴 주셨다.

그 선생님을 따라 두세 군데 백일장에 나가 입상의 영예를 누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장차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내리게 되었다. 내가 고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원영동 선생님은 서울로 훌쩍 떠나시고 말았다. 당시 몇몇 대학에서는 고교생을 상대로 백일장이나 문예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된 학생을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했다. 나는 그 관문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작심을 진작부터 굳혀 놓고, 입시공부는 뒷전으로 밀어 둔 채 습작이나 문학작품 탐독에 더 열중했다.

이듬해 초여름 데모 열풍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조기 방학이 실시되어 나는 태백 친가로 돌아갔다. 무덥고 지루한 50여 일의 방학 동안 나는 약 1천 매에 가까운 장편과 70여 매에 이르는 단편을 썼는데, 「도주」라는 그 작품이 서라벌예대 문창과 주최 고교생 문예콩쿠르에서 당선되는 행운을 차지했다. 그 소설을 뽑아준 사람이 김동리 선생님이었다.

오정희·이경자·윤정모와 어울리며

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라벌예대 문창과에 입학한 나는 약간의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바로 위 학년에 작가 이동하, 시인 김형영 형이 포진하고 있었다. 1년 후면 나도 그들처럼 학생 작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리라는 터무니없는 시건방을 여러모로 과시했던 것 같다.

50여 명에 이르는 학생 가운데서 나중에 문단에 나온 문우를 손꼽으면 김년균·오정희·이경자·윤정모·이우선·김희원·장경호·이남진·이옥희·안병국 등이 나의 동기였다. 그중에서 오정희와 이경자는 나와 동인회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학교 앞에다 정한 내 하숙집에도 스스럼없이 드나들 정도로 절친했다. 내가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이미 신춘문예를 통과해 당당한 작가로 입신한 오정희는 문창과 조교로 재임하고 있었다.

김년균 시인의 자취방에서 습작

신춘문예 최종심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신 그해에 학교는 졸업했으나 직장 잡기가 난감했다. 그 무렵 김년균 형이 월간문학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미아리 달동네에다 방 하나를 세 들어 혼자 살고 있었다. 문창과 동기생이기는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면서 대학에 들어온 그 형이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일단 자기 집에다 거처를 정해 놓고 차차 진로를 모색해 보자고 제의했다.

끼니는 대개 미아리 길음시장에서 매식으로 때웠고, 김년균 형이 출근하고 나면 나는 어두컴컴한 그 빈방으로 혼자 돌아갔다.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작품을 쓴답시고 고심했지만 여름날 뿌리 뽑힌 고구마 줄기처럼 심신이 고루 시들어버린 나머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쓴 약 5백여장의 중편 하나를 기념 삼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디에도 내놓을 형편이 못 되는 엉터리 작품이었다. 그 엉터리 작품을 싫증도 안 내고 끈기 있게 읽어 주면서 "잘 썼다. 넌 틀림없이 큰 작가 될거야."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던 김년균 형의 그 무던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어 달을 그렇게 버티고 나서 소설가 이동하 형이 소개해 준 『월간스포츠』라는 잡지사에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잡지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출근 6개월 만에 다시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이동하 형이 다시 소개를 해서 이번에는 작가 김원일 선배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국민서관이라는 출판사에 입사했다. 아동물 출판사인데 걸핏하면 야근이었다. 나는 거기서 4년 6개월을 근무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아내를 따라 병원에 갔는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 굴러다니는 잡지 한권을 집어 뒤적거리다가 거기서 나는 참으로 충격적인 동화 한 편을 발견했다. 내가 한 사람의 작가가 되기를 어쩌면 내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여자'의 장선작품이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문학과는 거의 의도적으로 담을 쌓고 지낸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당치도 않은 패배주의자의 자기기만적 자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로부터 오래잖아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일에 대해 아무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가능성과의 고달픈 씨름의 연속이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엄습하는 처절한 불안감과도 싸워 이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먹고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숙제 앞에서는 더더욱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소설가 김문수 선배가 재직하는 출판사에 연줄을 대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내 생에에 잊을 수 없는 몇 사람과의 교우가 시작되었다.

윤후명·이문열·이외수 등과 '작가동인'결성

처음 만난 사람이 윤후명이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유익서와 이채형·황충상을 만났다. 윤후명은 이미 기성시인이었지만 유익서 등은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에 없지만, 하여간 우리는 월 1회씩 습작품에 대한 합평회를 갖는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약 1년정도 그런 작품 합평회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했고,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네 사람 모두 그토록 동경해 마지않던 문단에 얼굴을 내밀게 됨으로써 그 지루하고 암담하고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했던 힘겨운 문학 수업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1978년 10월호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나의 데뷔작은

「사자의 춤」이다. 등단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작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문열·이외수·윤후명·손영목·서동훈·유익서·김원우·김채원·유홍종·표성흠 등 쟁쟁한 젊은 작가들을 만나 '작가동인'을 결성한 것이다.

1980년 8월 15일, 한국문예진흥원 뒤뜰 잔디밭에서 첫 회합을 가졌고, 이어서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작가동인』 1집을 내었다. 『작가동인』을 4집까지 내는동안 강석경·김상렬·김인배·정소성·최학·황충상 등도 참여했다. 이들 덕분에 나도 덩달아 '좀 쓰는 젊은 작가'로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문단 말석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내력도 어쩌면 그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강릉과 서라벌예대 제4강의실은 내 문학의 뿌리이자 산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원천자료	김주영·이근배·오정희 외, 2013, 『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 작가세계, pp.122~125

No.	101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서라벌예대 졸업생 소설가 이문구의 회고**	키워드	이문구, 청진동, 박용래, 박상륭, M
이야기	그 무렵 청진동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문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술집은 가락지라는 맥줏집이었다. 좌석도 100석 남짓한 데다가 소녀티를 갓 벗어난 20대 초반의 예쁜 아가씨 7,8명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 시중을 들어 문인들의 인기가 대단했다. 빈자리 없이 문인들로만 꽉 찬 날도 있었다. <한국문학> 편집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해서 매일 문인을 만나야 하는 이문구로서는 이곳을 제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최고 단골고객일 수밖에 없었다. 이문구의 사람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가락지에 이문구를 무척 따르던 한 아가씨가 있었다. M이라고 해두자. M은 이문구를 결코 손님으로 대하는 법이 없었다. 이문구를 바라보는 M의 시선에는 그리움이랄까, 애달픔이랄까 늘 그윽한 색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문구는 소녀다운 감상쯤으로 치부했는지 늘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게 대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락지에서 M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집안사정으로 시골집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M은 가락지를 그만둔 후에도 옛 동료들을 통해 이문구의 안부를 묻고 그에 대한 애틋한 감정들을 털어놓곤 했다. 그 절절한 마음은 그때그때 이문구에게 전달됐다. 눈이 몹시 많이 내리던 그해 겨울 어느 날, 이문구는 M의 집주소를 적어들고 경기도 남쪽 끝 어느 마을에 있다는 M을 찾아나섰다. 이문구가 찾아갔을 때 M은 갓난 조카를 등에 업고 있었는데 이문구는 무작정 M의 손목을 잡아끌어 쏟아져 내리는 눈을 맞고 한참을 걸어야 하는 읍내로 나가 음식을 사먹이며 자신에 대한 M의 사무친 그리움을 달래주었다는 것이다. 그때 M은 음식도 제대로 들지 않고 하염없이 이문구만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데... 비단 M뿐만이 아니었다. 70년대의 이문구는 여러 문인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문인들이야 언제든 청진동에 찾아가면 이문구를 만날 수 있지만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절에 지방문인들은 특별한 볼 일이 없는 한 상경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순전히 '이문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느닷없이 청진동을 찾아오곤 했던 지방문인이 있었다. 대전에 살던 '눈물의 시인' 박용래였다. 새벽 첫 열차를 타고 상경해 이문구를 찾은 것도 여러 차례였다. 박용래는 아침나절이건 한밤중이건, 이문구가 바쁘건 말건, 할 일이 있건 없건 손목을 잡아끌고 근처 술집으로 향하곤 했다. 같은 사내 간에 그것도 동연배가 아닌 열여섯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처지에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표현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늘지도 모르나 두 사람이 술상을 사이에 놓고 마주앉아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마련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의 뜨거운 해후장면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대개 박용래는 이문구의 두손을 마주잡고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고, 이문구는 그런 박용래를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와 함께 딱하다는 표정으로 건너다보곤 했던 것이다. 서울은 그래도 대전에서는 가까운 편이었다. 캐나다로 이민 간지 6년 만에 갑자기 이문구가 보고 싶어서 하루 밤낮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이문구 앞에		

불쑥 모습을 나타낸 문인도 있었다. 소설가 박상륭이었다. 이문구는 전날 곤죽이 되도록 술을 퍼마시고 여관방 신세를 진 다음, 아침 일찍 출근해 아래층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었따.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동기생으로 10년 지기였던 박상륭은 이민 간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갑자기 그 앞에 우뚝 서있는 박상륭을 보는 순간 이문구는 눈앞이 아찔하면서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 박상륭이 죽었구나. 붕정만리 이방에서 죽은 모양이구나. 그리고 혼백만 귀국하여 내 앞에 현시하는구나!'

그 순간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고 이문구는 후에 술회했다.

그로부터 닷새 동안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진동에서 파는 모든 종류의 술을 닥치는 대로 퍼마신 다음 박상륭은 다시 훌쩍 캐나다로 떠나갔지만, 어쨌거나 1970년대의 청진동은 문인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후에 이문구는 그 무렵의 청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지금도 많은 문인이 그리움으로 추억하고 있듯이, 이 동네의 술집들은 단순히 마시고 취해서 돌아가는 '업소적' 의미의 장소만은 아니었다. 문학을 토론하고, 그것의 실천적 의미를 함양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분석하고, 신념과 투지를 확인했던 간판 없는 회관이자 전선(前線)의 영내(營內)였다.

원천자료	정규웅, 2010, 『글 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이가서, pp.22~25

No.	102	작성자	차현주
제목	**소설가 안수길과 그의 제자들**	키워드	서라벌예대, 종암동, 문인장, 최인훈
이야기	안수길에게는 문인 제자가 유달리 많았다. 1950년대에 서너 해동안 '문인의 산실'로 불렸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장으로 재직했던 까닭도 있지만, 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문인 또한 한둘이 아니었다. 59년<자유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인훈을 비롯해서 유현종·남정현·박용숙·오인문 등이 모두 안수길의 손을 거쳐 등단했다. 온후하며 다정다감한데다 세밀한 성품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작고하기 불과 6개월 전인 76년 가을에도 <현대문학>을 통해 마지막으로 또 한사람의 젊은 작가를 문단에 배출했다. 이광복이었다. 추천작품이 실린 책이 나온 뒤 안수길은 꼭 40살 차이가 나는 이광복을 집으로 불러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해 등단을 축하해주었다. 안수길의 '제자 사랑'은 대개 이런 식이었다. 제자들도 안수길을 어버이 섬기듯 했기에 서울 종암동 그의 낡은 한옥에는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가족 가운데는 큰아들인 영화평론가 안병섭, 맏사위인 소설가 김국태, 사촌동생인 독문학자 안인길 등 글과 관련 있는 이도 많았다. 제자들이 몰려와 그의 '좁고 길쭉한' 서재에서 술 마시며 웃고 떠들면 안수길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제자들의 술시중을 들곤 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의 서재는 매캐한 담배연기와 온갖 소음으로 가득차게 마련이었다. 안수길은 술을 즐기기는 했지만 주량이 센 편은 아니었다. 제자들이 술을 권하면 술잔을 손의 온기로 덥히기라도 하듯 두 손으로 감싸 쥐거나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음미하듯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스타일이었다. 어떤 제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우시다'는 버릇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아마도 그런 습관은 그의 건강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터였다. 병원 출입이 잦았던 그는 술과 담배를 삼가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수길의 건강상태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위험신호가 켜져 있었다. 1911년 함흥 태생으로 일본 와세다대 영문과에 입학했던 그는 부친의 와병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혼자 힘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에 매달렸으나 본래 섬약한 체질이던 그는 오히려 건강만 해치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학업의 꿈을 접고 요양을 겸해서 간도 용정으로 건너가 소설에 매달린 끝에 35년 <조선문단>을 통해 데뷔했다. 1948년 가족과 함께 월남한 후 <경향신문>조사부장과 여러 대학 강단에 서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북간도>와 <통로> 등 두 편의 대하소설을 비롯해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는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따금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70년대 중반까지 소설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그 무렵 한 쪽 폐를 잘라낼 정도로 건강은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경향신문>에 <이화에 월백하고>를, <현대문학>에 <동맥(冬麥)>을 연재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면 늘 '괜찮다'고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인데도 소설에 파묻혀 지내다가 폐에 다시 문제가 생겨 입원을 하게 됐지만 안수길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지 않않았다.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안수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최인훈과 김윤식에게 그는 '많이 좋아			

지는 것 같다'고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안수길은 그 다음날 4월 18일 숨을 거뒀다.

안수길의 영결식은 4월 20일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풍기는 동숭동 문예진흥원 앞뜰에서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동향의 후배 시인 구상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자를 대표해서 최인훈이 스승의 영전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사를 읽었다.

우리는 당신의 좁고 길쭉한 서재를 빼앗아서는 안 되었고, 맞담배질을 하여 서재의 공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고, 술잔을 권하여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었고, 당신의 휴식할 밤을 송두리째 빼앗아서는 안 되었고...

영결식장에 숙연함이 감돌았다. 특히 안수길의 제자들은 일제히 눈을 감거나 머리를 숙여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 제자들을 멀리했다면 그것은 안수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건강을 유지해 수명을 얼마간 늘릴 수 있었더라면 '안수길 문학의 절정'을 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문단의 아쉬움만 남았다.

원천자료	정규웅, 2010, 『글 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이가서, pp.78~81

No.	103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71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	키워드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이야기

지지세력의 두께로 볼 때 71년 1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뽑는 총회에서 김동리 이사장의 상대로 나설 사람은 조연현일 것이라고 문인들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동리의 카운터파트로 나선 사람은 뜻밖에도 조연현이 아닌 서정주였다. 서정주와 조연현 사이의 밀약의 결과였다. 서정주로서는 김동리에 대한 서운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조연현으로서는 여러 모로 선배가 되는 서정주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서정주의 지지세력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조연현의 적극적인 지지까지 등에 업었으므로 서정주의 당선은 무난해 보였다. 게다가 조연현의 지지세력과 성향을 같이 하는 문덕수·이봉래 등 이른바 문단의 '중간 보스'들까지 서정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서 서정주 '캠프'는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김동리의 압도적 승리, 서정주의 무참한 패배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조연현 등이 공개적으로 서정주 지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정하는 문인들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김동리의 지지세력은 숫자는 적었지만 똘똘 뭉쳐 있었고, 박목월의 지지세력까지 가세해 표의 이탈을 막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김동리가 2년 임기의 이사장직에 절반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 인기에서 서정주에 앞섰다는 점이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런데 71년 총회의 선거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73년 총회에서 '조연현 시대'를 열게 하고 이어서 70년대 막바지까지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김동리와 조연현이 맞붙은 73년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를 문단에서는 '김동리-조연현의 대회전'이라 부른다.

1월 하순께 서울 서소문에 있던 명지대학교 15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문인협회 정기총회는 말 그대로 선거열풍의 도가니였다. 총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문인들이 꾸역꾸역 몰려 들었다. 몸이 불편해 동료 문인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하는 문인도 있었고, 심지어 <성북동 비둘기>의 원로시인 김광섭은 휠체어를 타고 입장해 장내를 잠시 숙연케 하기도 했다.

700명에 가까운 문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회가 시작됐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순히 표의 성향 분석으로는 서정주·문덕수·이봉래 등의 계파지지, 그리고 김윤성·이동주·이형기·이인석 등 중진·중견 문인들의 개별지지를 받은 조연현이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나이나 문단 경력 그리고 문학적 지명도에서 조연현은 김동리에 한참 뒤져 있었고, 무엇보다 김동리가 3년간 한국문인협회를 별 탈 없이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는 점이 조연현에게는 걸림돌이었다.

투표가 끝나고 한 표 한 표가 개표될 때마다 장내에는 탄성과 탄식이 교차됐다. 엎치락뒤치락이 되풀이되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었다. 이윽고 개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다. 321표 대 312표, 김동리의 9표 차 승리였다. 하지만 한국문인협회 정관에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투표에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김동리가 득표에서 앞서기는 했으되 당성된 것은 아니었다.

한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고심하던 조연현은 측근 몇 사람을 불러 사퇴의 뜻을 전했다. 측근들은 펄쩍 뛰었다. 2차투표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조연현을 설득했다. 조연현은 가타부타 말없이 눈을 감고 듣기만 했다. 그들은 1차투표에서 패배한 원인이 서정주의 미온적인 태도, 그에 따른 서정주계 문인들의 이탈에 있다고 보고 휴회시간을 이용해 물밑작업에 나섰다. 서정주계 문인들은 서정주의 눈치를 살피기만 했다. 마침내 서정주가 입을 떼었다.

"조연현 후보를 지지해주시오."

서정주의 그 한마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투표 결과 조연현은 20여 표 차로 김동리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표의 숫자대로라면 1차투표에서 조연현에게 등을 돌렸던 서정주계 문인들이 2차투표에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됐다.

73년은 김동리가 회갑을 맞는 해였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직을 내놓게 된 김동리는 이문구 등 측근 문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새 문예지를 창간키로 했다. 명분은 회갑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월간문예지 <한국문학>은 김동리를 발행인으로, 이문구를 편집장으로 그해 10월 창간됐다. 이문구는 편집사원으로 여류소설가 서영은과 시인 김년균을 채용했다. 김동리의 부인 손소희가 세상을 떠난 뒤 부부가 된 김동리와 서영은의 인연은 그때 시작된 것으로 문단에서는 보고 있다. 만 서른의 서영은은 김동리보다 꼭 서른 살이 아래였다.

원천자료	정규웅, 2010, 『글 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이가서, pp.228~231

No.	104	작성자	백외준
제목	**북디자이너 정병규가 회고하는 서라벌예대와 한국 문학**	키워드	서정주, 김동리, 김수영, 4.19, 50년대 한국문학

이야기

북디자이너 정병규 역시 서라벌예대에서 스무살 청춘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1946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하근찬, 손창섭, 장용학의 소설을 읽으며 문사의 꿈을 키웠고, 1967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이시영 시인, 감태준 시인, 소설가 송기원이 그와 함께 공부했고 바로 위로는 소설가 오정희가 있었다. 정병규가 이야기하는 서라벌예대는 오늘날 대학의 풍경과는 퍽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서라벌예대는 문학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가난한 청년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기성 질서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던, 낭만적 기백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6.25와 4.19를 겪으며 자라난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관점과 시야로 세계를 관찰하며 혁신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그런 점에서 서라벌예대라는 이름은 그저 물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현대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어떤 국면을 보여주는 열쇳말이기도 하다.

다음에 올 글은 필자가 북디자이너 정병규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학시절 회고담이 아니다. 마치 강의를 방불케 했던 정병규의 긴 이야기 속에는 서라벌예대라는 하나의 예술사적 이정표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 현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60년대 한국 문학과 대학생 사회를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소년 문사'들의 집합소

중·고등학교 때 보면 늘 삐딱한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씩 있잖아요. 약간 웃자란, 겉자란 잡초끼가 있는. 제가 그런 축에 속했습니다. 학교 공부라는 게 뭐 시시했지요.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문학 세계밖에 더 있겠어요. 물론 특이한 경우 음악이나 미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했죠. 그 당시 저는 손창섭, 선우휘, 오상원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죠.

제가 67년도인가, 68년도에 예대를 들어갔는데 전국의 소년 문사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예대 입학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어요. 개천예술제니 백일장이니 해서 고등학교 때 서로 접촉을 많이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대회에는 참가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예대에 입학하게 된 데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시대적 상황도 한 몫 작용했다고 봅니다. 4.19와 5.16 이후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이 문학 편향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말이지요.

미당, 동리, 김수영

미당(서정주 시인) 선생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미당 선생님은 날씨가 좋으면은 "오 날씨가 좋구만!" 하시면서 건너편 길음시장 쪽에 있었던 '밀리언 다방'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방이 주 강의실이었던 셈이죠. 거기 가면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네 뭐 쓴 게 있는가?" 물어보시곤 했어요. 또 흐린 날에는 "이런 날 어떻게 강의를 하나" 하시면서 나가셨죠. 하여튼 소위 오늘날 우리

가 생각하는 강의라는 것은 안 하셨습니다.

반면에 소설가이신 김동리 선생님은 자주 강의를 하셨어요. 주로 글 쓸 주제 하나 던져주시고는, 다음 수업 때까지 글을 써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손'에 대해서 몇 매를 써와라 이런 식으로. 산문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김수영(시인) 선생은 거의 격년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나는 김수영 선생 강의를 못 들었어요. 잠깐 뵙기만 했었는데 주로 낡은 국방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소매가 반질반질했어요. 눈이 굉장히 컸어요. 김수영 선생이 복도나 교정에서 학생들을 잡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도 김수영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웬만한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은 거의 다 서라벌예대에 출강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일반 대학 국문과에서는 안 받아 주었으니까. 당시 문교부 규정에 의하면 학위가 없으면 교수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서라벌예대나 나중 서울예대 같은 학교만이 우리나라 최일급 문인들에게 강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문학은 현실 저너머의 세상을 꿈꾸는 것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든지 술을 먹었죠. 친구들 중에 누가, 언제 고향에서 하숙비가 올라온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하숙비 받은 친구를 앞세우고 술집으로 갔던 것이죠. 어떤 날은 친구들 몇 명이랑 가까운 정릉 산속에 들어가서 술을 먹기도 했지요. 그때 우리는 문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배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우리는 등교한다고 하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다고 그랬어요. 강의도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 강의시간에 나가느냐는 그런 생각이었지요. 지금은 참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저나 친구들이나 세상을 우습게 아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문학을 하니까 니네들보다는 다른 세계에 산다는 우월감이 있었죠. 예술을 한다는 핑계만치 삶을 양극으로 넓혀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또 좋은 맛이지요.

예술 대학에서 제가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다른 세계가 있다, 이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다소 낭만적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사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하나의 생긴 신념이라고 한다면 '아, 문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정신의 성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미아리고개, 내 삶의 분수령

저에게 미아리고개는 삶의 분수령 같았어요. 그 고개와 근대사에 얽힌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그 고개를 넘기만 하면 황량하면서도 대책 없으면서도 자유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라기보단 방종이었죠.

사실 저는 미아리라는 이름보다도 길음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친근해요. 미아리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거창한 이름 같지만, 길음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서울에서 찾은 정신적인 고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나죠. 같이 예대에 다녔던 친구들이 다 그럴 걸요. 그런데 지금 지나다니다 길음동에 아파트가 들어선 걸 보면 길음동이 아닌 것 같아요.

60년대 후반의 학생사회

예술대학에 있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을 못했습니다. 예술은 또 문학은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죠. 특히 예대나 미대 또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현실참여를 안한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 학생사회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60년대 학생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학생사회나 정신사의 반쪽만 보는 게 됩니다. 지금 60년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생 '운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당시 '운동'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생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현실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 지식인들은 왜 그랬던가를 한 번 살펴봐야 해요. 이 부분이 한국 정신사의 성감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60년대 한국 문학의 더 깊은 맥락

당시 우리는 문학은 현실참여를 위한 그런 게 아니다, 문학의 본령은 더 넓고 깊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에 대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이해가 본능적으로 있었던 시대에요. 그것을 '4.19세대'라는 세대의식으로 집약시켜서 문학사적으로 자리매김해 버리는 일방통행식 관점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다, 순수다 하는 이런 문제 이전에 한국문학에는 더 깊은 맥락이 있어요.

6.25동란 이후의 한국문학의 맥락은 내거티브한 쪽이든 어떤 쪽이든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던 시대였어요. 그 후 4.19와 5.16이 일어나면서 우리 문학은 더 넓은 세계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1950년대 전후 문학은 일제강점기와 오늘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한강철교인데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소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근찬, 손창섭, 장용학 이런 작가들. 그들과 그들의 문학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해봐야 합니다.

인문학의 중심, 문학

요새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점점 인생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좌표설정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인문학의 어떤 분야든 문학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문학만이 유일하게 진지한 비평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서에는 문학의 수준만한 비평 행위가 없지요. 거의 유일하게 비평적인 이념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그럴까. 그런 점에서 문학 고유의 비평 행위가 오늘날 인문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인문학이 가벼운 인생론이나 행복론으로 흐르지 않고, 현실을 반성하고 비판함으로써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인문학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자료	인터뷰 2014. 12. 1. 서교동 투썸플레이스

No.	105	작성자	차현주
제목	**소설가 계용묵**	키워드	부흥주택, 서재, 장만영
이야기	미아리 가는 고개를 넘어 서라벌예대가 빤히 바라다보이는 정릉입구 개천가에 훨씬 옛날에 새워진 부흥주택 치고는 좋지 못한 곳에 살고 있다 파아란 펭키칠을 해놓고 택을 묻는 사람에게 대문에 파아란 칠한 집이예요 라고 설명한다. 서재라고 변변할리 없다 커다란 책상 하나만 놓고 그 위에 책들을 첩첩이 쌓아 올렸다 누구보다도 책을 수집하기를 즐겼고 뿐만아니라 독서열이 높은 씨인지라 좋은 책들을 퍽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동란 때 다 잃고 그래도 꼭지니고 다니던 책 몇권은 역시 서적을 즐겨 모으는 장만영씨가 아주 탐을 내서 기왕다 없어진 책 몇권 가지고 있으나 마나니 완전하게 갖출수 있는 사람에게 나주자 고 선듯 내주었다는 것. 아랫도리를 벗고 고추를 내논 손자녀석들이 책상위에 기어 올라가서 오줌을 싸고 하는 판이라 좀 큰집을 가지고 싶은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서재다운 서재를 꾸미고 장편을 한번 쓰겠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 8. 16		

No.	106	작성자	차현주
제목	**소설가 박계주**	키워드	순애보, 정릉, 미아리 산꼭대기

이야기

'별'은 이제 어디에…
박계주씨의 영전에 붙여
-전숙희

3년전 2월 어느날 아침 부인으로부터 위독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으로 뛰어갔을 때 박선생은 회복실이라는데서 산소호흡기라는 것을 코와 입에 꽂고, 링겔 줄을 양 팔에 느린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지요.

지난밤 친구들과 어울려 약주를 마시고 늦게 돌아와 주무시는 동안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신채 깨어나지 못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우리들과 함께 즐겁게 밀려다니던 박선생, 남이 백년을 산다면 박선생은 백이십년을 살고도 남을 것 같던 그 왕성한 정력과 도도한 풍채, 이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죽은양 누워계신 그 모습을 대할 때 문병간 우리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 박선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 마음 모아 빌었습니다. 과연,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열에 아홉까지는 절망적이라던 박선생이 회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환성을 올리며 다시 입원실로 쫓아갔었지요.

그러나 아 아 그때의 박선생의 그 모습, 우리들 가슴속에 차가운 눈물을 괴어주던 그 모습! 그 커다란 두 눈을 빤히 뜬 채 우리들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도 움직임도 없이 마치 산송장 모양 누워계시던 그 모습-회생의 기쁨을 소리쳐 나누러 갔던 우리는 차마 그 모습을 더 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일년 후 부인의 지극한 간호로 기적은 다시 한 번 나타났지요. 박선생은 꿈에서 깬 양 친구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나타나듯 박선생의 망각의 지대에 추억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었지요.

어느날 박선생은 손수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지요. '전숙희씨요? 나 박계주요. 나 지금 서린호텔에 나와있는데 모두들 보고싶으니 좀 와주시구려.'옛날과 같은 그 음성 분명한 발음.

최정희씨, 모윤숙씨, 조애실씨, 이렇게 같이들 보러갔을 때 박선생은 아기처럼 웃으며 기뻐했지요. 박선생이 좋아하시는 냉변을 시켜다 먹으며 옛날이야기들도 했지요. 걸음도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한 1년후에는 모든 기능이 회복되리라 믿어졌던 박선생.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지요. 너무나 박선생 일에 대해 방심했지요. 오랜 병치료에 시달린 끝에 정릉집마저 팔아버리고 미아리 산꼭대기 게딱지 같은 집으로 옮겨앉으신 박선생, 거기서 한없이 한없이 옛 친구들이 그리워, 사람들이 그리워 기나긴 나날을 옛 추억을 더듬으며 그리움 속에 살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주지않는 이 청명한 봄날에 박선생은 다시 못 올 저 세상으로 더 큰 작품을 써보려던 야망과 그리움을 안은채 가버리셨군요.

그 못다한 말, 가슴속에 삼키고, 그 못 다푼 한과 정 육비에 새기고 이제 영영 가버

	리셨군요. '순애보'이래 무단의 산역사요, 증인이었던 박선생, 그 독설과 재담으로 남의 가슴을 서늘하게도하고 훈훈하게도 해주던 박선생, 건장한 체구에 아기같이 욕심없던 박선생, 그저 마냥 무엇인가 그리워 친구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던 죄없는 박선생, 앓아누우신 3년 동안 더욱 그리움에 지치고 야속한 인정에 지쳐 영 눈감아버리신 박선생, 오래잖아 라일락도 필 이 따사로운 봄날에 박선생은 어이그리 훌훌히 떠나셨나이까? 초라한 이방안에 놓인 저 불길한 나무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박계주씨의 그 커다란 몸이 시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누워계신 관이라구요? 영 믿어지지 않는 이 엄숙한 사실, 그 관위에 웃고 계신 커다란 사진, 그 사진 속의 입을 벌려 박선생은 히죽이 웃으면서 마지막 독설을 우리에게 퍼부우실 것 같군요. '친구들, 울긴 왜울어. 이 외로운 방안에서 애간장이 타도록 기다릴땐 모른척하던 당신들이 지금 와서 울긴 왜 울어.' 박계주씨! 다시는 불러보지 못할 이름 박계주씨! 용서하셔요. 그리고 모든 노여움, 그리움 다 푸시고 이제는 뜬 세상의 아픔도 설움도 그 지긋지긋하던 가난도 다 잊으시고 저 바람과 구름 벗 삼아 편히 쉬셔요.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6. 4. 11

No.	10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조각가 권진규**	키워드	작품전, 명동화랑
이야기	조각가 권진규씨의 테라코타와 건칠작품전이 10일부터 16일까지 명동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석조각 작품 3점을 포함해서 모두 32점이 나온 이 전시회는 흙을 말려 구운 테라코타 작품과 진흙으로 골을 만들어 삼베를 감고 그위에 톱밥과 칠액을 바른 건칠작품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각양식의 전시회론 국내서 처음이다. 이 두 조각 양식은 모두 고대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현재는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다. 로댕의 제자 부르델에게서 배운 일인 조각가 청수다가시에 사사한 권진규씨는 무장야 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59년에 귀국, 미아리고개 옆에 개인 가마를 놓고 제작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작품은 명동화랑 측서 제작비를 부담했다. 권씨는 일본의 재야전인 이과회의 회우로 이과상을 받았으며 일본 동경 일본교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었고 작품 1점이 일본국립근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 12. 14		

No.	108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성악가 테너 박인수**	키워드	경동고, 정릉, 미아리
이야기	내가 태어난 곳은 광화문 근처 내수동이지만 네 살 때 미아리로 이사한 뒤로는 미아리 일대가 내 어린 시절의 놀이터였다. 당시 미아리는 온통 산과 논밭, 개울 뿐이었고 인가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치원은 미아리고개를 넘어 덕성유치원까지 가야했고 국민학교는 돈암동까지 가야 했다. 학교가 멀어서 애를 먹긴 했지만 여름에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개울에선 붕어와 가재를 잡는 재미가 그런 불편을 보상해 주었다. 겨울엔 꽁꽁 얼어붙은 앞 개울에서 온종일 팽이를 돌리고 썰매를 타는 것이 일과였다. 내 어린시절은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된 생활이었다. 경성부(지금의 시청)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그림에 굉장한 소질을 가진분이어서 내가자는 모습을 주로 그려주시곤했는데 지금 보아도 보통 솜씨가 아닌 듯하다. 아버지는 또 집안에서 항상 노래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이태리 민요 「돌아오라 소렌토로」로부터 안기영의 「그리운 강남」, 고복수의 「고향설」, 홍난파의 「봉선화」등 못 부르시는 게 없었다. 나의 음악적 재질은 아버지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은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린 나이에도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데 취미와 소질을 발휘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 학예회의 합창단 모임에 응모했다가 「째지는 목소리」라고 보기좋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땐 노래하는데 전혀 소질없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실망했다. 중학교에 들어가 변성이 되고 마침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어미니를 따라 교회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이 「곱고 예쁜 목소리」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에 들어선 것은 (경동)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의 부흥목사로 오신 김창일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음악하면 배고픈 직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사회통념이었지만 부모님도 반대하지는 않으셨고 나 또한 순전히 음악이 좋아서 택한 길이었다. 새벽마다 정릉뒷산의 약수를 마시고 소리를 질렀으며 밤이 되면 동네 골목길이나 뒷동산 오솔길을 발성연습장으로 삼곤 했다. 소리가 나는 모든 사물을 열심히 관찰하기도 했는데 사자가 가장 우렁찬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걸 배우겠다며 창경원 사자우리앞에서 하루 종일 사자가 울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고 복부의 힘을 기르기 위해 백근짜리 역기를 올려놓고 숨쉬는 연습을 한 적도 있었다. 날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는 말에 매일 아침 날달걀 한 개씩만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집안사정이 여의치못해 그 소원은 끝내 이루지못했다. 대학 1학년 때에는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하루 내내 연습을 하자면 배가 고파 눈이 핑핑 돌 지경이었다.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3. 6. 23		

4.19혁명의 현장, 미아리고개

No.	109	작성자	차현주
제목	**데모대원을 실은 트럭, 미아리고개를 넘어 창동으로**	키워드	4.19, 데모대, 트럭, 창동지서
이야기	한편 이날 밤 일부 데모대원들은 시내에서 탈취한 트럭들에 분승하여 행동하였는데 밤 11시 2분 현재 1대의 트럭에 분승한 데모대원들이 성북경찰서서 창동지서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고 있고, 또 다른 데모대원들이 약 2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미아리고개를 넘어 창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약 2천 명의 데모대원들이 을지로6가 서울운동장 근처에서 장시간에 걸친 사격전이 벌어졌었는데 이중 7명이 경찰에 체포 연행되고 밤 11시경 해산되었다.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밤 12시 현재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 4. 20		

No.	110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안암동의 총성**	키워드	4.19, 계엄령, 안암동, 미아리, 총성
이야기	19일 서울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데모 소동도 이 밤을 지내고 난 20일에는 계엄령 공포와 더불어 밤새에 진주한 군인들이 시내 요소 요소를 경비하는 가운데 일단 그 소동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의 서울 거리 거리 골목 골목에는 돌멩이, 벽돌, 유리 파편 등이 깔려 있어 무시무시하였던 전날의 모습을 그대로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다. 중무장을 한 군인들과 군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MI소총과 칼빈 소총을 손에 들고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른 아침에는 미아리와 안암동 쪽에서 산발적인 총성이 들려오고 있었으나 8시 경에 이르러 일단 잠잠해졌다. 종로, 동대문, 성북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는 거의 남김없이 불태워지거나 파괴되었고 경찰관은 완전 철수. 이날 아침 9시 현재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속을 어린 아동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넝마주이들은 산산히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가기에 바빴다. 정릉 버스 시발점에는 버려진 시발택시 속에 총에 맞아 유혈이 낭자한 대학생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행인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였다. 피에 젖은 신분 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과 방규석(23)군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간밤 11시 경 학생 서너 명이 시체를 실은 이 차를 몰고 이곳까지 왔다가 성한 사람만 경관에게 붙들려간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 4. 21		

No.	111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방면 8백여 군중**	키워드	4.19, 25일 데모, 군중
이야기	상오 5시 반, 데모의 기운은 이미 아침 5시 반 경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25일 밤에 이어 26일 새벽까지 단행된 1만여 군중의 데모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세종로 주변에 7,8백 명의 군중이 종로4가 주변에 1천여 군중, 미아리 방면에 8백여 군중, 을지로2가, 4가에 7백여 군중이 길가에 늘어선 사병들의 경비태세도 아랑곳없는 듯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어느 틈에 탈취했는지 6여 명의 학생들은 버스 1대와 시발택시, 합승택시 등에 각기 분승하여 거리를 질주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는데 보는 군중마다 박수를 보냈고 경비사병들은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 4. 27		

No.	112	작성자	차현주
제목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의 유서**	키워드	진영숙, 4.19, 유서
이야기	저는 가겠습니다. 한성여중 2년 진영숙 지난 4월 19일 서울의 대학생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총 궐기하자 나어린 남녀 중학생들도 언니 누나에게만 맡길소냐고 앞을 다투며 혁명 대열에 용감히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죽음을 당한 어린 학생들이 많았음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그 중의 한 사람인 한성여중 2년생 진영숙 양이 혁명대열에 참가하기에 앞서 남겨놓은 유서입니다. 진양은 삯바느질로 자기를 학교에 보내주신 편모슬하에서 언니오빠의 네 식구가 난속에서도 굳건하게 공부하다 19일 학생혁명에 참가해서 자유를 외치다 미아리에서 무차별 사격을 받고 희생된 학생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 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요.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해서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 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0. 4. 30		

No.	113	작성자	차현주
제목	**진영숙, 4.19의 밤 미아리고개에서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다**	키워드	진영숙, 어머니 김명옥, 한성여중, 돈암초등학교
이야기	이젠 울지 않으련다. 뿌린 피 헛되지 않았기에. 영숙아 엄마는 이젠 울지 않으련다. 너와 너의 동지들이 뿌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터오르는 제 2공화국의 새아침을 너는 보고 있느냐. 네가 간 지도 벌써 꼭 이십 일이 되는구나. 나는 거듭 결심했다. 어미로서 너의 오빠와 언니를 너의 참된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길러야 겠다는 결심이다.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218번지 어느 조그만 집에서 어머니 김(김명옥)씨는 어머니날에 다짐했다는 슬픈 독백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진양은 한성여중 2학년 2반생이다. 아직 나이 열다섯이지만 그는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해서 씩씩했다. 상급생들도 그와 같이 있을 때면 자연히 영숙이의 주장에 따르게 되었다. 영숙이는 농구선수였다.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한 것이 처음보면 누구나 고등학생인가 했다.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곧잘했다. 그런 영숙 양이 4.19의 밤 미아리고개에서 버스를 타고 시위하다가 귓전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더구나 영숙이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하오 4시 경 어머니 앞에 유서가 된 마지막 글을 써놓고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엄마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날 너는 파스포드와 뺏지를 책상서랍에 넣고 나갔더구나. 하루 전에 갈아 붙인 교복 카라를 새것으로 바꾸어 달아입고 밤거리 데모로 나선 너의 그토록 큰 뜻을 이 엄마가 어찌 잊겠는가. 영숙 양이 그날 4.19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친척 아주머니만이 있었다. 그때 대문밖 골목에는 영숙이가 데리고 온 급우들 오륙십명이 서성대고 있었다. 영숙이는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상을 밀쳐놓은채 밥을 먹지 않았다. 바깥이 시위로 소란해서 아주머니가 거리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영숙이는 무엇인가 바쁘게 연필로 적고 있었다. 그것이 유서였던 것이다. 영숙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모두 파스포드와 교복 뺏지를 떼서 다른 데 두고가자고 지시하듯이 말했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한성여학교라는 말은 끝내 하지 말라고도 다짐했다는 것이다. 영숙 양은 새 카라로 교복깃을 하얗게 바꾸어 달고 나서 유서를 이불 밑에 넣어 놓고 집을 나섰다. 유서에 적힌대로 (전략)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저 고함소리 지금도 들립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아무튼 바쁩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후략) 하고 뛰쳐나갔던 것이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련다 했지만 뼈를 깎는 슬픔을 어찌하랴, 서울서 크게 데모가 터		

	져야한다던 영숙이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김주열 군의 시체 이야기가 신문에 났을 때 그 애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19일 아침 학교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들이 안 하면 우리 클라스 친구들을 선동해서 나설테야.” 하기에 염려가 되어 너는 공부나 할 일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김여사의 독백은 영숙이가 아직도 어머니 몸속에 있었던 8.15 해방 당시로 돌아가 영숙이를 불러보는 것이었다. “영숙아. 엄마는 1945년 가을에 아빠랑 너의 언니 오빠와 함께 하얼빈 만주를 나섰다. 두만강을 걸어넘어 고향인 청진에 닿을 때까지 그간의 고생스럽던 노정을 어찌다 말하겠느냐. 더구나 엄마는 너를 담은 무거운 몸이었으니까. 그래 그 다음해 5월 15일에 너를 청진에서 낳았는데 아빠가 고향인 수원으로 떠나는데도 네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너와 나만이 뒤에 처졌다. 너의 백일 무렵에야 수원으로 왔었지. 네가 두 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6.25 때 엄마가 괴뢰군에 끌려가 너를 안고 매를 맞았을 때 겁에 질려 울어대던 너의 모습이 엊그제 일 같다. 1.4 후퇴 때 부산 피난 2년 후에 수원으로 돌아와 네가 팔달유치원에 다닐 때랑 초등학교에서 늘 무용반에 뽑혀 즐거웠던 일. 이젠 너는 가버리고 그 날의 사진만이 이렇게 어미 마음을 헝클게 해줄 줄이야. 3학년 때 서울 돈암초등학교로 전학와서 무럭무럭 자라던 너, 한번 크게 앓아본 적도 없었던 너 영숙이가 아니었더냐. 그렇다 다시 엄마는 슬픔을 거두련다. 너의 정신을 밝히고 새 공화국의 탄생을 네 무덤 앞에 보여주게 될 그날을 약속하며. 이젠 울지 않으련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0. 5. 11

No.	114	작성자	차현주
제목	**4.19 당시 미아리의 총성**	키워드	4.19, 정현식, 정릉, 돈암동 전차종점, 경찰의 추격
이야기	한양대학 공과대학 정현식의 수기 정녕 이밤이 새기전 우리도 기어이 경찰이란 가면 앞에 이슬처럼 사라져야 하는가 보다. 너와 나를 의식못한채 허황한 공간만을 주시하는 공포의 밤이었다. 아직껏 이따금 미아리 쪽에서 울리는 가냘픈 총성을 들을 때마다 서로의 눈을 마주 쳐다보며 공포와 분노가 휘감긴 싸늘한 전율마저 느끼게 되었다. 몇 시간 전 민족의 염원을 이루다 못해 쓰러져간 형제들의 붉은 피에 손을 적시웠고 이젠 나마져 붉은 피를 뿜어 형제의 고운 손길에 엎드리운 채 떠나려 함이 아닌가? 시커먼 공간속에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이성 없는 총탄 앞에 무참히 떠나버린 고고한 생명 앞에 내 자신을 맞대보기도 하였다. 지금의 나는 분명 존재의 가치다. 하지만 쓰러져 간 형제는 나를 불렀고 조국을 맡겼다. 조금 전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이곳 정릉의 산속까지 오게된 여덟의 생명 스스로가 민주주의 사수에의 용감한 선구자가 되어 총탄을 무릅쓰고 불의 앞에 반항해온 참된 생명들이 이제는 포수의 총부리를 피해 쫓겨야 하는 생명이 되어 좁은 찢차 안의 희미한 내등을 켜고 이곳 낯설은 산속의 밤을 새우려 했다. 장밋빛보다도 짙은 피를 이강산에 물들였고 태극기마저 적시운 오늘 우리 또한 모두의 영혼이 승천하는 시간까지 민주대한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침묵의 단결이 얽혀있었다. 끝없이 흐르는 한류처럼 무언의 침묵과 다가만 오는 시간에 저항할 따름이었다. 우리에겐 설움이 없었고 멸시도 없었다. 이제 서로를 우러러보며 회심의 분노에 제가끔 몸을 떨었다. 그와 고 마음한 구석엔 공허가 자리잡고 홀연이 떠너들간 형제의 넋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가 우린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용기와 저주가 뒤섞여 나를 쳐다보며 나직이 물어보는 여학생이있었다.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밤을 새우려하는 우리에게 배반이 따르는 것만 같은 두려운 심정에 안타까움 마저 깃들게 되었던 것이었다. 피를 누구보다도 두려워 해야할 나어린 여학생마저 애국심에 불타 자신들을 죽음앞에 내맡긴 갸륵한 현실앞에 이밤이 새기전 정의의 승리로 환호성을 울려야 할 것 아닌가? 시간은 좀처럼 흐르지않았고, 우리에겐 대진한 기다림이 있었다. 새벽 일시가 지났을 무렵 차창으로 훈훈한 바람이 새어들었고 빗방울마저 떨어졌다. 하느님도 슬퍼하시는가봐 침묵에 어울리지 않는 명랑한 음성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모두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보니 여학생들에게는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집들이 생각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측은한 생각에 무슨 말로 위로 해야할지 망서림이 앞섰다. 나 역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처럼 위험한 몸이 되었다는걸 알게 되셨다면 얼마나 걱정들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 나 또한 집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광주를 떠나오기 전 마산 데모의 신문기사를 읽으시며 너는 행여라도 이처럼 불행한 희생자가 되지말라 하셨건만 오늘 죽는다 해도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라는 신념의 무기 하나만을 들고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폭풍우처럼 몰아쳐간 삼일오 선거때 술취하신 아버님께서 우리에겐 선거권마저 박탈당했으니 이젠 국민이 아니고나 하시며 애통해 하시던 아버님의 손안에 빼앗긴 선거권을 기어코 찾아 꼭 쥐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새삼스레 치솟았다. 가끔 차내의 등을 끌 때마다 어슴프레 비치는 달빛에 희미한 밖을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복을 입은 경찰이 방금 달겨들것만 같은 환상에 얼른 불을 켜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곤 하였다. 우리 아버진 자유당이에요 저의 오빠와 나는 아버지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기만 하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애요 하며 미소를 지우는 여학생의 말에 모두들 서글피 웃을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들만 이렇게 뒤로 뺀 게 아네요? 라고 말하는 꼬마 운전수. 고등학생인데도 제법 신나게 운전을 잘하는 그가 믿음직스러워보였다 자기 아저씨 자가용차를 끌고 나왔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렇게 앉았느니보다도 더 반항해 보자는 그들의 심정이었다.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 시간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가 굶주림에 기운 없는 낯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까 동대문 근처에서 아주머니들의 정성으로 깨소금 묻힌 주먹밥 한 덩이에 지금은 뜨거운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좁은 좌석에서 남을 편안히 앉히려는 온정에 감격하며 시간은 흐르기만 하였다. 무서운 우수와 불안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실오라기 같은 추억과 승리를 꿈꾸는 아득한 환희에 잠시 현실을 망각할 수 있었다. 길 옆의 개울물 내려가는 소리마저 여느 때처럼 한가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끔 불규칙한 흐름인 것 같았다. 우리에겐 미래의 시간에 있을 승리를 바라는 것보다 현실의 참된 반항에 휩쓸려 하였고 행동하였다. 시간의 중요성마저 잃었었다. 새벽달이 채높이 뜨기 전 훤히 동이 터오기 시작하였다. 때늦은 졸음에 하품들을 하며 조금만 시간이 더 흘러가길기다렸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산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평화의아늑함을 맛보였고 개울건너 위쪽에 절간이 있었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이제 모두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생겨났다. 입은 쓰디씻고 눈이 까실하여 앞을 잘 볼수가 없었다. 시원한 공기는 허기증을 더하였고 까무러칠 것 같은 휘청거림을 느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다. 아직껏 새벽인데도 골목 골목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근심스러운 빛을 던져주었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대로 내려와 돈암동 전차종점의 길목을 건느려 했을 때 길바른 편쪽에 경찰의 복장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붙잡아 세워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모양을 보았을 때 우리에겐 반항력은커녕 적개심마저 이순간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길목을 못본 듯이 지나치기란 너무나도 괴로웠고 위험했다. 다시 사잇길로 접어들어 차를 세웠다. 이젠 모두가 하나로 바뀌어야 했기에 서로가 이름도 성도 기억 못한채 조심하라는 한 마디씩을 입밖에 내며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망설여 걸음을 옮기면서도 등져간 그들에게 조심해 라는 한마디를 덧붙이며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꾸겨진 교복들 흩어진 여학생들의 머리칼, 나의 검정 작업복 바지에 묻은 피자국.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 고임을 느끼며 나는 순경을 피하여 골목길을 걸어갔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 5. 17

No.	115	작성자	차현주
제목	**4.19 때 쓰러진 진 양에 명예졸업장**	키워드	진영숙, 미아리, 한성여중
이야기	4.19 당시에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섰다가 흉탄에 맞아 쓰러진 한성여중 3년생 고 진영숙 양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식이 오는 6일 상오 10시 한성여중 강당에서 열린다. 학교의 농구선수로 의협심이 강했던 진 양은 4.19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홀어머니 앞으로 “남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있겠습니까? 안 돌아오더라도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 한다. 그날 하오 6시 경 수도의대 부속병원에서 진 양이 총에 맞아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 김명옥 씨가 달려갔으나 이미 절명한 뒤였다 한다. 같이 데모에 참가했던 친구들 말에 의하며 진양은 미아리에서 데모차에 타고 외치다 흉탄에 맞았다 한다. 진양이 죽은 후 학교에서는 묘비를 기증하고 작년의 1주기에도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망우리의 묘지를 찾아 넋을 위로했으며 지금도 그의 초상화는 학교에 걸려 길이 학생들의 기억에 남겨주고 있다. 어머니 김씨 말에 의하면 진양은 평소에도 신문에서 자유당의 불의를 밝힌 기사를 보면 분개해 마지않았다 한다. 진양의 유가족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언니와 오빠가 한 사람 씩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2. 2. 5		

No.	116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고개를 넘었던 5.16 반란군**	키워드	5.16 3주년, 포병대
이야기	좀 묵은 얘기지만 지난 14일 저녁 종로 네거리에 있는 H관 2층에는 약 2백명 가량의 청장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기름기없는 머리, 허름한 의복, 생활에 실의한 듯한 표정의 이들은 3년전 5.16때 미아리고개를 넘어왔던 제 6군단 소속포병 장병들이었다. 당시의 지휘관이었던 지금의 신윤창 국회의원이 이날 옛 동지들과 저녁을 나누는 광경이었던 것 이제는 모두가 제대하여 군복을 벗었으나, 이렇다할 직장도 없이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이날 신의원을 향해 현실을 몹시도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들의 생활고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3년전 미아리고개를 넘을 때 가슴에 품었던 의욕과 기대를 오늘의 현실과 비겨보면서 솟구쳐 오르는 실의를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날 신의원은 그저 묵묵히 참아달라는 한숨섞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었다니 5.16 3주년을 맞는 주체들의 심경은 이렇게 착잡?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4. 5. 16		

No.	117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67년 6.8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고교생들의 산발데모**	키워드	6.8총선, 고등학생, 데모, 성북고, 서라벌고, 삼선고
이야기	학생데모는 16일 상오에도 산발적으로 일어나 서울시내 일부 고교생들이 거리에 나와 한때 데모를 했다. ▲상오 10시 반쯤 서울 마포고교수도공고 동도공고등 1천여 명이 각기 교문을 나서 공덕동 시장앞에서 데모를 하다 경찰과 교사들의 만류로 각각 학교로 돌아갔다. ▲상오 7시쯤 배재고교생 1백여 명이 덕수궁 앞에서 데모를 하려다 교사들에 의해 해산. ▲8시 45분쯤 인창고교생 1천2백여명이 교문을 나서 데모를 벌이려다 경찰의 제지로 학교 안으로 되돌아갔다. 이중 30여 명은 서대문로터리에서 연좌데모를 벌였다. ▲상오 9시쯤 서울 동대문상고생 50여 명이 숭인동로터리까지 데모를 벌였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 ▲상오 8시쯤 성북고교생 1천여 명이 혜화동로터리에서 데모, 경찰의 제지로 해산. ▲상오 8시경 고명상고생 5백여 명이 돈암동로터리에서 데모, 경찰의 제지로 해산. ▲16일 상오 7시 30분쯤 서울청량종합고교생 2백여명이 청량리역 앞에서 “휴업령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학교 쪽으로 데모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 ▲상오 8시경 서라벌고교생 8백여 명은 미아리 고개서 경찰의 제지로 해산. ▲상오 10시쯤 숭인공업고교생 2백여 명은 교문 부근에서 경찰의 제지로 해산. ▲상오 8시쯤 삼선고교생 5백여 명이 삼선교 앞까지 나왔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 ▲상오 10시쯤 경기·중앙·휘문고교생 등 1천여 명이 시민회관 앞에 모여 데모를 벌이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부산] 16일 상오 9시부터 시내 동아대학교를 비롯, 동래고·동래원설고·브니엘실고생 등 약 2천 명이 데모, 경찰관과 충돌, 투석과 최루탄으로 쌍방에 많은 부상자를 내었다. [송탄] 16일 상오 9시, 평택군 송탄읍 효명중고교생 3백여 명은 교문을 나와 “6.8총선거를 다시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데모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7. 6. 16		

No.	118	작성자	차현주
제목	**4.19 당시 데모대의 시위 장소**	키워드	돈암동, 성북경찰서, 북선파출소, 미아리고개, 데모버스
이야기	오후 6시 40분 경 소방차와 트럭등에 분승한 데모대원들이 종로3가를 지나 동대문경찰서 앞을 통과할 무렵 경찰은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이때 동대문 경찰서에는 장갑차 2대와 경비경찰관 2백 35명이 배치되어있었다. 한 때 이곳에서 쌍방간 최초의 사격전이 벌어졌으나 데모대는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곧 동대문쪽으로 쫓겨갔다. 이 총격전으로 종로4가일대는 수라장이 되고 길가 복덕방 임원협 노인(65)이 총에 맞아 숨지는 가 하면 시골서 올라온 오빠와 보도위를 걸어가던 김진자(16. 한성여고1)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도 했다. 한편 경무대와 중앙청 앞에서 경찰의 추격으로 후퇴한 또 한 갈래의 데모대는 탈취한 무기들을 들고 트럭등에 분승, 종로와 안국동, 원남동을 거쳐 돈암동 쪽으로 넘어가 극렬한 시위를 벌였다. 밤 9시경 이들 기동 데모대 등 트럭 2대에 분승한 3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성북경찰서 앞을 통과할 때였다. 어두컴컴한 경찰서 건물 안으로부터 느닷없이 빗발치듯 총탄이 날아왔다. 급정거한 트럭에서 황급히 뛰어내린 데모대는 골목과 민가로 뿔뿔이 흩어졌으나 순식간에 5, 6명이 어둠 깔린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날 아침 어머니로부터 타낸 2백환으로 태극기를 사서 머리에 동여매고 데모트럭을 탔던 최기두(19. 덕수고 중퇴)도 이곳에서 회생됐다. 이날 밤 12시경 취재차 이곳에 들른 외신기자들은 바로 경찰서 정문앞에 그때까지 방치된 채 버려져있는 트럭 두 대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한 트럭의 운전대에는 핸들을 쥔 채 숨진 젊은이가 기대있었고 그 옆 조수석에는 제복을 입은 고등학생 차림의 시체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외신기자들이 시체의 명찰과 단추를 조사하자 경찰서 담안에 집결해있던 경찰관들은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서울 동북방의 돈암동과 미아리 일대를 제압한 기동 데모대는 쉴사이 없이 트럭, 버스등을 타고 미아리고개를 오르내리며 기세를 올렸다. 밤 8시 경 미아리로 갔다가 다시 돈암동으로 넘어오는 데모버스에 탔던 진영숙(14. 한성여중2년)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구호를 외쳐대다가 북선파출소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진영숙은 4.19희생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서를 남긴 학생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5. 6. 2		

미아리 텍사스촌

No.	119	작성자	차현주
제목	**종삼 '밤의 여인들' 미아리로 이주**	키워드	종로3가, 폐쇄조치, 적선지역, 이주
이야기	서울의 홍등가로 이름 높던 세칭 종삼 일대의 적선지대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일제단속 H아워인 4일 상오 5시 현재 남아있는 4백여 윤락여성들은 이날하오 5시까지 시립영등포부녀보호소에 강제 수용됐다. 단속 전날인 3일 하오 종로 3가 일대 골목마다엔 전축이며 캐비닛 등을 헐값에 사겠다고 몰려든 고물장사들이 붐비고 밤의꽃이 세들던 대부분의 집들은 빈집인데다 일부에서는 빌딩을 지으려고 허무는 둥 새바람이 분다. 그러나 서울시의 벼락치기 폐쇄 조치로 몸값으로 장만했던 TV, 전축, 옷장 등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마지막으로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던 박모 양(28. 인의동)은 "갑작스런 종삼정화계획으로 곗돈은 잘리고 월부침대는 빼앗겼다"고 눈물이 글썽했다. "이런 직업(?)으로 세동생의 공부를 시켜왔다"는 양모 양(25. 돈의동)은 지난 5월 6만6천원짜리 월부 전축을 들어다 그동안 매달 7천원씩 2만8천원을 물었는데 종삼폐쇄 보도가 있은 후 지난달 28일 전축상회에서는 전축을 그대로 회수해 가버렸다고 울상이고 20만원짜리 계를 매달 1만2천원씩 1년 동안 물어왔다는 주모 양(26. 돈의동)은 동료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바람에 자립 밑천을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통곡이다. "포주에게 진빚은 무효화한다"는 당국의 지시와는 달리 악착같은 포주들은 돈 대신 이부자리 등 가구를 압류하는 소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나 경찰은 모른척하고 있다는 게 김모 양(27. 봉익동)의 하소연이다. 종로3가 일대의 1천6백여명(시청 집계 8백 명)의 윤락여성들 중 8할 이상은 이미 정릉, 미아리, 상계동, 양동 등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도심지 여관을 무대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 아직 떠나지 않은 윤락여성들은 포주와의 채권 무효화 선언에 따른 시비가 벌어져도 관할 파출소 등은 얼씬도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국의 호릿한 종삼 폐쇄 조치를 비난했다. 문제의 종삼지역은 이조말 아전 등 말단관리들이 살던 주택지, 이조의 몰락과 함께 술집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해방이 되자 혼란한 사회속에 밤의 여인이 등장했고, 6.25를 겪으면서 홍등가로 뿌리를 박았다. 5.16이후인 지난 62년 이들 윤락여성을 선도하기 위해 적선지역으로 책정, 일종의 공창으로 윤락지대의 대표 구실을 해왔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8. 10. 4		

No.	120	작성자	차현주
제목	**매춘여성 사진 전시회**	키워드	이화여대 총학생회, 여성문화
이야기	지난달 28~31일 이화여대 교정에서는 여대생과 매춘여성들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린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보라. 국적 잃은 문화 속에 신음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이대 총학생회 여성부가 기획, 대학가 여대생들의 모습과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 등의 매춘 현장을 직접 찍어 마련한 것. 성이 상품화 되어 있는 여성문화의 현실에 대해 반성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이 전시 사진들의 바로 옆 의견을 적는 벽보판에는 ‘슬프다, 가슴아프다, 창피스럽다는 생각을 떨치고 문제를 제기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하다. 떼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원천자료	한겨레신문 1988. 6. 1		

No.	121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0년 미아리 텍사스 취재기**	키워드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천호동, 88올림픽
이야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8번지. 시내방면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 내려가 오른편 화랑로로 꺾어든 뒤 곧바로 차도 왼편을 따라 종암동사거리까지 약 1.2km 동안 이어지는 이 일대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서울 북동지역의 일개 최소 행정구역일 뿐이다. 겉모습이 거의 똑같은 2~3층짜리 한옥과 양옥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대낮에는 건물과 차도 사이를 차단하는 높이 2.5m의 측백나무 숲에 적당히 은폐된데다 사람마저 별로 없어 아무런 움직임도 느낄 수 없지만 주위가 어둠으로 휩싸이기만 하면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로 변한다. 노출이 심한 똑같은 홈드레스를 유니폼처럼 입은 짙은 화장의 젊은 여성들이 5~10명씩 쇼윈도 가에 얌전히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이미 다른 곳에서 상당히 취기가 오른 손님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킬킬거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야한 드레스 각 업소에서 뿜어대는 강렬한 조명,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는 수많은 젊은 내·외국인들은 서로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금방 이곳은 북부 서울 최고의 향락지대로 탈바꿈해버린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 한강 이남의 천호동 텍사스와 함께 남북 텍사스를 이루며 서울의 관광 명소로까지 발전한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윤락가가 아니다. 이 일대는 이제 우리사회 전반의 퇴폐향락화, 비도덕화에 발맞춰 돈이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유전 무소불능지대로 정착하고 있으며 여성의 몸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상품화하는 반인간적 경제구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성 단체들의 주도로 매춘행위를 윤락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월곡동 천호동 일대의 실태를 통해 적선지대의 윤락행위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책 등을 살펴본다. 주말인 지난 10일 밤 직장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미아리 텍사스에 갔다온 중소 무역회사 신입사원 권오준씨는 아직도 그날의 원색의 낱말들 난무. 이날 사무실주 변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꽤 취기가 들도록 마신 권씨는 신입사원 환영식을 해준다는 선배들과 함께 그곳에 들렀는데 대학시절 귀동냥으로 들었던 미아리 텍사스의 진귀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정해진 코스를 밟았으나 즐겁기는커녕 경악과 수치심과 자기 모멸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일종의 분노마저 느끼고 돌아왔다. 권씨는 우선 자기 동생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수천 명 씩 한 장소에 모여 거대한 매춘단지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권씨가 정작 충격을 받은 것은 삐끼의 안내로 ××정이란 업소에 들어갈 뒤부터였다. 일행의 수만큼 방안에 들어온 아가씨들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기소개를 하는 신고식과 함께 대중가요의 가사를 외설적으로 바꾸고 ××정이란 구절을 삽입한 주제가를 합창한 뒤 각자 묘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권씨는 신체의 특정부위로써만 진행되는 이 묘기에 전혀 즐겁지 않았고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 선배들에게 묘한 반항심을 느꼈다. 지난 60년대 중엽부터 형성된 미아리 텍사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종로3가 등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윤락가였다. 그러나 지난 83년 이곳을 관통하는 월곡천의 복개 공사 이후 대대적인 새 단장과 함		

께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문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윤락행위 직전에 거행되는 신고식과 묘기 연출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아리는 다른 윤락가와는 다른 독특한 명성과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 관광객과 바이어 등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현재 하월곡동 일대에는 1백80여 개 업소가 영업 중인데 업소당 작은 곳은 3~5명, 평균 10명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으로 알려진 ㅅ, ㅁ, ㅊ 등의 업소는 30여 명의 여성을 두고 있어 윤락기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통해오게 되는데 남대문로 일대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대표적인 창구로 알려져 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개 딴 곳에서 1, 2차 술자리를 거친 뒤 오게 마련인데 혼자 오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 아가씨들의 설명이다.

다른 윤락가와는 달리 미아리 텍사스는 철저한 정찰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맥주 안주를 포함한 술 한 상과 묘기 공연 및 실질적인 윤락행위 모두를 포함해 1인당 2만원이면 돼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묘기가 선보일 때마다 들어가는 팁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의 수고료까지 포함하면 1인당 4만~5만원씩의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곳 업소들의 소유주는 미아리에서 뼈가 굵은 여성들이 독립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윤락업과는 별 관계 없는 이들이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업소는 대부분 현역에서 물러난 여성이나 현역중 최고참 중 1인을 마담으로 두고 있는데 이 마담이 경영전권을 행사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여성들은 한달에 업주로부터 25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는데 팁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아 70만~80만원에 이르고 있다.

ㄷ정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문모 양은 업주측이 드레스 및 숙식을 제공하는데다 낮에는 잠자기 바빠 돈을 쓸데가 거의 없다면서 동료들 대부분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입이 높은데다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드높은 상태여서 이전처럼 강제납치 구속감시 등의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고 업주들은 말하고 있다.

ㅈ정 업주 양모 씨는 이곳 아가씨들은 전부 자발적 취업상태라면서 요즘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 두고 딴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객들의 행패와 여성들의 자위권 발동 등으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나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바뀌고 당국의 순찰 감독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거의 뜸한 상태.

관할 종암경찰서 월곡파출소 측은 이곳에 4개의 초소를 설치, 구청·교육청· 청소년선도지도육성회 등과 함께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데 파출소장 인노수 경위는 요즘은 무전취식 폭력 등의 사건이 거의 없어졌다고 귀띔했다.

한 편 미아리의 지금까지의 호황을 위협하는 요소가 최근에 등장해 이곳 사람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 조치와 길건너 재개발 아파트 단지 건립이 바로 그것.

심야영업 단속 이후 많은 업소들이 간판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손바닥만한 포터블 간판을 내거는가 하면 밤 12시 이후에는 커튼을 치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나름의 자숙의

지를 보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정작 불안해 하는 것은 재개발 아파트의 건립.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돈암동 2-2지구 현대아파트가 내년초 완공되면 입주자들의 거센항의가 예상되는데 이에 몇몇 업소들은 최근 전업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ㅂ 업주 백모씨(40)는 아파트 주민들이 틀림없이 텍사스 철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딴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 미아리와 함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번지. 속칭 천호동 텍사스도 미아리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서울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상업중심지였던 이곳에는 예부터 이른바 니나노집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미아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형태의 윤락가가 이루어졌다.

전성기였던 88올림픽 전후에는 6백여 명의 여성이 몰려있기도 했던 이곳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13개였던 업소가 눈에 띄게 감소 현재 87개 업소에 2백 60여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여성들의 임금이 미아리보다 훨씬 높아 업주들은 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업주들의 모임인 업소자율정화위원회회장 김동호씨는 심야영업단속이후매상이 격감 종업원 월급주기도 힘들다면서 올 연말이면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소들의 마지막 까지 가버린 윤락양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부도덕보다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병폐의 노출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여성 단체 연합 박난숙 간사는 70년대 이후 가속화된 3차 산업의 기형적 성장 및 전체 산업 구조의 파행성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면서 역대 정권을 비롯한 사회 상부구조의 부도덕성도 웬만한 부도덕을 합리화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또 여성을 비하하는 봉건적 가치관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발상이 교묘히 결합한점 정상적인 여성인력의 고용이 어려운점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어 이같은 문제점의 극복방안으로는 산업구조를 적절히 재조정 향락 퇴폐로 유입되는 돈을 막고 매춘행위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며 언론매체 사회단체등에서 계몽과 선도를 통한 윤리성의 함양 등을 제시했다.

YWCA 인신 매매신고센터 상담원 최순옥 씨는 최대한의 말초 신경 자극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 수요가 이같은 도덕적 마비 현상을 불렀다면서 남성들에게만 무조건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락행위 방지법등 현행법이 윤락행위의 예방 선도는 물론 처벌조항도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사부 김명숙 부녀복지과장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등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등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심여대 성민선 교수는 윤락행위의 사전예방 방안에 대해 가족법과 같은 남녀불평등법의 개정으로 남녀간지배 종속논리를 타파하고 윤락행위를 단속 상담 선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이들을 전문화시켜야 윤락 그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0. 3. 28

No.	122	작성자	차현주
제목	**연극 <미아리 텍사스>**	키워드	76극단, 바탕골소극장, 공창지대
이야기	속칭 미아리 텍사스 촌을 배경으로 매춘부들의 생존과 삶의 모습을 담은 연극이 76극단의 <미아리 텍사스> 이다. 13일부터 8월 8일까지 바탕골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 25년의 전통을 갖고 한국의 사창과 공창의 모델을 제시한 미아리 텍사스 촌이 도시개발 정책 때문에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해있는 만큼 이 작품은 이 지역의 독특한 속성을 부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속적인 의미의 매춘고발이나 애환을 다루기보다는 밑바닥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 우리 사회 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작가는 우리 사회 상부구조에서 매춘행위가 은밀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 드러내 놓은 조직적 공창지대에는 생존의 문제가 치열하게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다. 매춘부와 폭력조직이 얽히고 호객행위와 단속이 반복되는 미아리텍사스촌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이봉규, 서경옥, 김영식, 이화정, 정경선, 김미준 씨가 출연.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0. 7. 13		

No.	123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텍사스’ 정화 대회**	키워드	자율정화추진위원회, 5개항 결의, 경찰
이야기	서울의 대표적 윤락가인 성북구 하월곡1동 88번지. 속칭 ‘미아리텍사스’ 일대 업주 3백여 명은 13일 오후 3시 자율정화추진위원회 주최로 결의대회를 갖고 미성년자 자체 색출, 호객행위 금지, 가출소녀나 인신매매 자진신고, 영업시간 준수 등 5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미아리 텍사스’ 지역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찰 2백여 명을 상주시키며 출입자 통제와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해왔다.		
원천자료	한겨레신문 1991. 11. 14		

No.	124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텍사스」 사라진다	키워드	성북구, 도시계획, 용도변경, 고층빌딩
이야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88 일대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사라진다. 동대문구 청량리「588」, 강동구 천호동 423 「천호동 텍사스」, 영등포역 주변 등 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홍등가로 흥청거리던 미아리 텍사스촌이 속속 들어서게 될 고층빌딩에 밀려 97년쯤부터 서서히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성북구가 이 일대 7만7천여 평을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또 이 일대를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등이 크게 제한되고 도시 기능이 재배치돼 1~2층짜리 소규모 홍등가가 사실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구는 이곳을 대대적으로 정비, 고층 빌딩촌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2년 정도 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97년 쯤부터는 이일대의 홍등가 기능이 크게 축소돼 점차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65년 정부의 시내 중심가 무허가 유흥업소 철거에 따라 도심에서 쫓겨온 업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형성됐으며 70~80년대 거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홍등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이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피해 90년대 초에는 유흥업소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 아파트촌으로부터 시야를 차단하기도 했다. 현재는 1백여개 업소에 8백50여명이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청량2동 588일대는 최근 서울시가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층 건물 신축을 유도하고 있어 멀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 역 주변 홍등가 역시 상세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중이어서 점차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5. 4. 7		

No.	125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수와 수입**	키워드	250개 업소, 856명, 월수입
이야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등 서울시내 5대 홍등가에 몸담고 있는 윤락녀는 모두 5백71개업소에 1천6백2명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윤락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250개 업소에서 856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동구 천호동 423일대 2백 95명(업소수 120개)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197명(56개) △동대문구 청량리 588일대 167명(90개) △용산구 용산역 앞 87명(55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월곡동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수입은 월 2백만원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이하 35%, 1백만~2백만원 25%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50%, 중졸 34%, 국졸이하 12%순이며 연령은 20~24세 63%, 25~29세 30%, 30세이상 6%순이었다. 전직으로는 무직이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사무원 23%, 생산직공원22%, 점원 10%등이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6. 6. 2		

No.	126	작성자	차현주
제목	**미아리 텍사스촌 폐쇄**	키워드	미아리 텍사스, 검찰, 조직폭력배, 십대소녀
이야기	검찰은 서울시내의 대표적 사창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이 지역 윤락업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최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미아리 텍사스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가출 10대 소녀들을 사실상 가둔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소에 대한 수사와 폐쇄조처를 강구하라는 대검의 지시가 서울지검에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업소 대부분은 폭력조직 우두머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시내에 이런 '강력범죄 커넥션'이 치외법권지대처럼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1부와 강력부는 이날 구체적인 미아리 텍사스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착수시기를 18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영업중인 70여 개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 대부분이 13~17살의 가출 소녀를 10~30명씩 고용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이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화대마저 빼앗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 업소가 이런 방식으로 한달 7000~8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 업소 대부분을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사실을 중시하고, 폭력조직 소탕 차원에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최근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백송'에 감금됐다 탈출한 신아무개(15)양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이 업소 대표 이승덕(41.여)씨와 마담 서선옥(45.여)씨 등을 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9월 가출한 신양은 단란주점으로 알고 간 이 업소에서 석달 남짓 갇힌 채 한 사람당 6만~7만원을 받고 하루 6~8명을 상대했으나, 이씨 등이 이를 대부분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형사처벌한 업소중 미아리 업소 3~4군데 화양동의 1곳 등도 10대 소녀들을 감금한 채 윤락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천자료	한겨레신문 1997. 12. 12		

No.	127	작성자	백외준
제목	**2.8% '미아리텍사스 맥주'**	키워드	저알콜, 저스트라이트
이야기	한 유명 맥주회사의 홈페이지. '저온 발효'에서 '비열 처리'까지 제조공법(?)도 다양한 제품이 14개나 소개돼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고알코올(도수 6.9%) 맥주도 있고, 노래방용으로 알려진 무알코올 맥주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회사가 만드는 맥주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름하여 '저스트라이트' 맥주도 존재한다.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저스트라이트 맥주'는 알코올도수가 2.8%로 국내에서 시판 중인 맥주 가운데 제일 순하다. 하지만 이 맥주는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다. 이 맥주를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집창촌. 그래서일까. 이 맥주는 '미아리텍사스 맥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미아리텍사스에서 일하는 한 여성 접대부의 말이다. "서울 미아리에만 있는 맥주예요. 서울 영등포와 지방 몇 곳에도 일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아가씨들의 건강과 꽤 취한 뒤에야 이곳을 찾는 남성들의 몸을 생각해서 들여온 맥주죠. 한 2, 3년 됐어요." 이 맥주의 정체를 알기 위해 맥주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오히려 이런 질문이 날아왔다. "그 맥주를 어디에서 보셨어요?" "미아리텍사스에서 봤다"고 하자 그 직원은 "그렇다면 맞다"고 답했다. "특수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맥주로 시중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이 관계자가 들려준 '저스트라이트 맥주'의 역사는 이렇다. 2003년 맥주회사들은 일제히 도수가 낮은 맥주를 시장에 내놨다. 과도한 음주문화를 질타하는 사회 분위기에 부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블루오션 전략'이었다. 하지만 실패였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설비와 광고비를 쏟아부었지만 소비자는 저알코올 맥주를 외면했다. '밋밋하고 쏘는 맛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 쌓이는 재고만큼 맥주회사들의 시름은 깊어갔다. 이때 등장한 '흑기사'가 집창촌. 집창촌 여성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온 것이다. 덤핑으로 넘기다 보니 업주들도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게 3, 4년이 흘렀고 이제 이 맥주는 '미아리텍사스 공식 맥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한 업주에 따르면 미아리 집창촌에는 O, H사가 만든 저스트라이트 맥주가 평균 2, 3일에 한 번, 4t 트럭 한 대 분량이 공급된다. 맥주회사로서는 그야말로 '효자시장'인 셈이다. 이 사실을 좋아해야 하나, 감춰야 하나. 맥주회사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쁜 기색이다.		
원천자료	주간동아 2007. 10. 9		

No.	12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서울 미아리 텍사스 '性戰' 10년 그 이후…**	키워드	김강자, 재개발, 철거, 성매매특별법
이야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는 외딴 '섬' 하나가 있다. 5~6년 전 급격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 한가운데에 1, 2층짜리 단층건물 10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단순한 쪽방촌이 아니다.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집창촌이다. 2000년 1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대대적 '성전(性戰)'을 펼치면서 미아리 텍사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기자가 찾아가 본 미아리 텍사스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지역 주민들과의 불편한 동거(同居)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밤 12시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를 나서자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입구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던 것. 미로처럼 복잡한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서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이모'들이 대뜸 물었다. "연애하고 가시게?"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100여 m를 걷는 동안 귀에 이어폰을 낀 호객꾼들이 열 번도 넘게 기자의 손목을 잡았다. '피크 시간'대라는 오전 1시가 되자 '볼일'을 보고 나오는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한창 잘나가던 시절(500여 곳)만큼은 아니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90여 개 업소가 성업 중이었다.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김경아(가명·30·여) 씨는 "철거된 줄 알았다가 옛 생각에 다시 한 번 와보는 손님도 있고, 그렇게 한 번 왔다가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도 아가씨 한 명에 하루 평균 5, 6명의 손님을 받는다"고 했다. 이 동네에서만 16년째 이모 일을 하고 있다는 이모 씨(42·여)는 "예전에는 경찰 단속이 제일 두려웠다면 요즘은 동네 사람들 눈치가 제일 보인다"며 "업주들이 신참 이모를 쓰지 않는 것도 동네 주민과 손님들을 구별하는 '눈썰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빨간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검은 커튼을 치는 것은 기본이다. 재개발만 되면 집창촌이 사라질 거라 믿었던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지난달 30일 다시 찾은 이곳에서 만난 이모 씨(72)는 "재개발 초기에는 집창촌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창촌 때문에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사를 결심한 주민도 있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의 신고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다. 서울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요즘에는 성매매 지역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성 신고도 거의 없다"며 "매일 단속에 나가다시피 하지만 성매매 현장을 매번 적발하기는 어렵다. 재개발이 되면 자연 소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일대가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미아리 텍사스는 지난해 1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월곡 1구역으로 지정됐다"며 "2012년 상반기나 돼야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다른 집창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용산역 일대의 집창촌은 현재 재개발 보상을 놓고 협의 중인데 연말쯤에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미아리 텍사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성매매단속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검거 인원은 2000년		

	7783명에서 지난해 7만3008명으로 증가했지만 구속 인원은 895명에서 63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검거 인원은 늘었는데 구속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요된 성매매'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00년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채무를 빙자한 감금 및 강요 등 반인권적 행위가 많아 구속 건수가 많았던 반면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2004년 이후 강요된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소나 방식만 바뀌었을 뿐 성매매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 여성들이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근거지를 옮기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흩어지면서 성병 등 보건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성매매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범의 성매수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존스쿨(성범죄 재발방지 교육기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2010. 9. 7

미아리 점성촌

No.	12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자연이 알려주는 미래, 고대 한반도의 점술**	키워드	고대인, 자연, 점뼈

이야기

아침에 까치가 와서 짖으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침에 까치소리를 듣게 되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하는 작은 기대를 해보게 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까치와 손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신다는 손님이 미리 까치를 날려 보낸 것도 아닐터.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에 짖는 까치소리를 좋은 징조, 즉 '길조(吉兆)'로 여긴다. 반대로 까마귀가 울면 '흉조(凶兆)'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도 점의 일종이다.

이밖에도 징조로 여기는 자연 현상은 많다. 달빛으로도 점을 칠 수 있는데, 정월대보름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로 여겨진다. 또 달을 감싸고 있는 빛이 두터우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엷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다. 동짓달 연못의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도 내년의 풍흉을 점칠 수 있다. 얼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풍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흉년이다.

꿈도 빠질 수 없다. 돼지꿈은 단연 복이 들어올 조짐. 이 꿈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 복권을 산다. 돼지뿐 아니라 꿈에 나오는 동물 대부분은 태몽(胎夢)에도 등장하는데 용, 호랑이, 곰 그 외 여러 가지 동물들이 태어날 아기를 상징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뇌의 작용, 꿈 역시 미래를 계시해 주는 징조의 하나로 대접 받는다. 그래서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다. 꿈을 잘 풀이하여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성서 속 요셉의 일대기는 널리 알려진 '몽점(夢占)' 이야기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특정한 기상 현상, 식물의 형태, 동물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과 꿈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하루 또는 한 해의 길흉을 점쳤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연 환경에 맞서서 늘 생존을 걱정해야만 했던 원시인들은 이렇게나마 앞일을 점쳐서 그에 맞게 대비책을 마련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인들의 점술과 사고 방식은 역사 시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의식과 관습 속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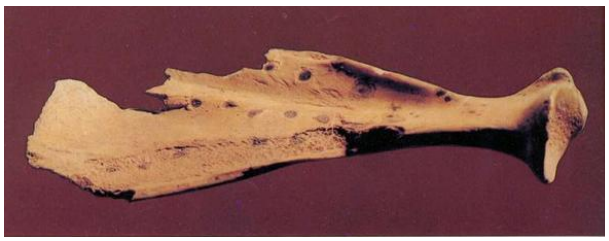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술 역시 전문화되어 갔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생겼고, 식량과 영역 확보를 위한 집단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 시기 하늘 또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祭祀)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집단 내의 제사를 집전하는 정치적 지도자는 신(神)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제의 역할을 겸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거북점이나 시초점은 고대 중국의 제정일치 사회에서 지배자가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점술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럼 그 옛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점쳤을까? 다음은 중국의 사서에서 전하는 부여(夫餘)의 점치는 풍속이다.

> 군사(軍事)가 있을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소를 잡아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나쁜 것으로 여기고 발굽이 붙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긴다.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
> —『삼국지(三國志)』 권30 「오환·선비열전」

부여인들이 국가의 중대사의 결정할 때 점술의 결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고구려 역시 부여와 같은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의 뼈나

발굽을 이용하여 점치는 풍속은 부여인이나 고구려인들뿐 아니라 남방의 백제에서도 있었음이 고고학 발굴 조사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유물이 2008년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토성터에서 발견된 소의 어깨죽지뼈(길이 34cm)인데, 이 뼈에는 7~8개의 낮은 홈을 파고 불을 지져 점을 쳤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점뼈라 하는데, 한자로는 갑골(甲骨) 또는 복골(卜骨)이라고 한다.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에서 그것도 비교적 큰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런 점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백제인들도 지배층을 중심으로 자주 점술을 행했음을 말해준다. 점뼈는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적에서도 점뼈가 나왔다. 이렇듯 동물의 뼈를 불에 지져 길흉을 점치는 풍속은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중부의 백제, 남해안의 신라와 가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행사의 하나로 치러졌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호곡)유적 출토 점뼈(길이 14.2cm)

서울 풍납토성 발굴 점뼈(길이 34cm)

부산 기장군 출토 점뼈

김해 부원동 유적 출토 점뼈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도 점술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쳐서 저주를 밝히는 과정이나 차대왕 3년 흰 여우가 뒤를 따라오며 울기에 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고 무사(巫師)에게 길흉을 물은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백제의 점술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의자왕 말년에 백제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아 땅을 파보니 3척 가량의 깊이에서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는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백제의 멸망을 예언한 기사가 전한다. 신라는 또 어떤가? 신라의 국호를 계림(鷄林)이라고 한 것은 흰 닭의 울음소리를 점쳐서 정한 것이며, 진평왕 때 김유신이 고구려의 자객 백석을 잡은 것도 점술 덕분이었다. 특히 선덕여왕의 명으로 만든 첨성대는 별의 위치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占星術)의 발전 수준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원천자료	『한국의 점복』(1995), 『한국세시풍속사전』

No.	130	작성자	백외준
제목	**고려시대 점술과 맹승**	키워드	최지몽, 태사국, 태복감, 맹승, 개경

이야기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 통일신라 말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로운 한국사의 한 대목이다.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 후백제 견훤과의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 결국 민심을 얻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이야기들은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왕건의 승리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를 보좌하던 책사와 장수들의 지략과 충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최지몽(崔知夢, 907~987)은 왕건이 가장 믿고 아끼던 책사였다. 최지몽의 원래 이름은 최총진(崔聰進)으로 경서와 역사서에 능통하였고 특히 천문과 복술에 정통하여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소문을 접한 왕건은 당시 18살이었던 최지몽을 불러들여 자신이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하였다. 그 꿈의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는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최지몽은 꿈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길조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삼한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건은 기뻐서 이 초롱초롱한 눈빛의 젊은이에게 '알 지'자, '꿈 몽'자, '지몽'이란 이름을 내려주고 당장에 그를 책사로 삼았다. 이후 최지몽은 항상 왕건을 따라 종군하였고, 삼한 통일 후에도 재상으로 있으면서 왕건 이하 여러 왕들을 도왔다. 고려의 요셉이라고나 할까?

최지몽은 몽점뿐 아니라 점성술에도 능했다. 혜종(고려의 제2대 왕, 재위 943~945) 때 왕규의 반란음모, 경종(고려의 제5대 왕, 재위 975~981) 때 왕승의 반란음모를 미리 알고 적발한 것도 모두 최지몽이 별을 보고 점친 덕분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점복 행정을 관장하는 관청을 설치한 것 역시 최지몽이 기반을 닦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점복 관련 기관으로는 태사국(太史局)과 태복감(太卜監)을 두었다. 태사국이 천문, 달력, 기상 관측 등 오늘날 기상청이 하던 일을 맡은 관청이라면, 태복감은 그밖의 점복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복정(卜正) 또는 복박사(卜博士)라는 관직을 두었다. 이후 두 관청은 사천대(司天臺)·사천감(司天監)·관후서(觀候署)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을 고쳤다가 고려말에 와서 서운관(書雲觀)으로 통합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려왕조는 과거제도를 시행하면서 따로 복업과(卜業科)를 설치해 민간의 점술가를 점복사(占卜師)로 등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시각장애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점복업에 진출해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통상 이들을 '맹승(盲僧)'이라 불렀는데 '눈먼 승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을 스님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때의 '승(僧)'은 도교 계통의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고려시대의 맹승은 관직에 등용되기는 했지만 그리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한 듯하다. 『고려사』를 보자. 때는 숙종 7년(1102)이었다. 감찰기관인 어사대(御史臺)에서는 진사 이제로(李齊老)가 맹승 법종(法宗)의 아들이므로 과거 응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왕은, 과거는 어진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니 그 아버지가 누구이든 간에 학식과 재주가 뛰어나다면 마땅히 관료가 될 자

	격이 있으므로, 이제로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고려시대 맹승의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점술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민간에서도 두터운 풍습이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한편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진사 이제로는 과거에 합격했을까? 고려시대의 반란이나 암살 모의 사건에도 맹승은 관여했다. 다음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준은 맹승 백량(伯良)이 문황(文璜)의 암살 음모에 대하여 길흉을 점쳐 주었다 하여 바다에 던져 죽이고 그 집을 몰수했다. —『고려사』 권130 열전, 「김준(金俊, ?~1268)」 그 옛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거사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거나 거사일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따져보다가도 결국은 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사 모의를 끝낸 음모자들이 최종적으로 찾는 사람은 점술가, 그것도 맹승이라야 했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라면 맹승만큼 좋은 상담자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비밀 모의에는 언제나 백량과 같은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끼어 있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맹승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충렬왕 6년(1280) 5월 가뭄이 심하여 '맹승을 모아 비오기를 빌었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기우제가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몇 년에 한 번 씩은 꼭 치러지는 국가 행사임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맹승들의 평상시 모임 또한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들의 과거 응시를 막는 귀족 관료들로부터 씁쓸한 차별을 맛보았던 맹승 법종. 정치가들의 비밀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맹승 백량. 이처럼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나약한 개인으로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고려 후기에 오면 마침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 개경의 따가운 햇볕 아래서.
원천자료	『고려사』

No.	13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시각장애인, 조선시대 점술의 주역들**	키워드	시각장애인, 관상감, 명통사, 맹청(통명청), 이수광

이야기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쓴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조선이 중국보다 뛰어난 점 네 가지를 들고 있다.

> 우리나라 사람의 일로서 중국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부인이 절개를 지키는 것, 천한 사람도 상(喪)을 치르는 것, 맹인이 점을 잘 치는 것, 무사의 편전(片箭) 쏘는 재주 등이다.(我國之人 有中朝所不及者四 曰婦女守節 曰賤人執喪 曰盲者能卜 曰武士片箭也)
>
> —『지봉유설』 권16 어언부, 「잡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곧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의 점술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점복 활동이 왕성하였고 그 수준 역시 상당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야말로 조선시대 점술의 주역들이었다.

조선시대 관상감

고려가 설치한 점복 관련 기관인 서운관은 조선에 와서 관상감(觀象監)이란 명칭으로 계승되었다. 영의정이 명목상 책임을 지고 정3품 관료 정(正)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관상감은, 고려의 서운관과 마찬가지로 천문, 풍수지리, 책력, 술수, 기상관측, 시간측정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조선의 최고 법전 『경국대전』에 나온 관상감의 관직이다.

정1품	영사 1명(영의정)	종7품	직장 2명
정3품	정 1명	종8품	봉사 2명
종3품	부정 1명	정9품	부봉사 3명 천문학, 풍수학 훈도 각 1명 명과학 훈도 2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2명		
종6품	주부 2명 천문학, 풍수학 교수 각 1명	종9품	참봉 3명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관상감 안에 종8품 봉사(奉事) 2명과 정9품 부봉사(副奉事) 3명을 두어 점복에 관한 일을 맡겼다. 봉사직에는 명과맹(命課盲)이라는 시각장애인 점술가를 임명하였으므로 '봉사'는 점차 보통명사화되어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 갔다.

조선전기의 명통사

앞서 고려시대 수도 개경에 모여 비오기를 빌었던 한 무리의 '맹승'을 살펴본 바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민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결속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명통사(明通寺)'가 바로 그것이다. 명통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집회, 점복교육 등을 실시했던 기관으로 1402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명통사라는 명칭은 한성의 5부 중에 하나인 북부(北部)의 명통방(明通坊)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초기 시각장애인들은 이 명통사를 중심으로 점복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의 명을 받아 기우제를 올렸으며,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 혹 임금이 능침을 알현하기 위해 거둥하면 어가가 궁궐 밖으로 나아갈 때나 돌아올 때에 여러 시각장애인이 의례적으로 도포를 입고 성 밖으로 나가 어가를 영접하기도 하였다. 이런 명통사에 국가는 정기적으로 곡식과 노비를 내려주어, 시각장애인 점술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명통사는 국가의 공식 관청은 아니었지만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시대 음양학과 점복업의 요람 역할을 하였다. 또 이러한 명통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곧 조선의 장애인 복지정책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명통사라는 이름은 세조 3년(1457) 9월의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고 유학의 근본이념에 충실한 사림(士林)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소격서(昭格署)와 마찬가지로 도교 계통의 기관으로 분류되었던 명통사는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맹청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전의 명통사를 계승하는 단체로 맹청(盲廳)이 등장한다. 1500년대 명통사가 없어져 시각장애인들의 구심점이 없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할 때 시각장애인 신경달이 선조를 도와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조정이 한양으로 돌아온 후 논공행상이 있자, 신경달은 소원을 묻는 임금에게 맹청을 세워줄 것과 시각장애인들에게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양의 시각장애인 점술가 8명이 모여 맹청을 만들었으나 뒤이은 호란(胡亂)으로 인하여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17대 효종대에 들어서다. 효종의 셋째아들인 계산대군이 어려서 시력을 잃었는데 계산대군은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국종호를 만나 삶의 뜻을 찾게 된다. 효종은 이를 대견스러워하며 맹인 역리업자의 결사체인 '맹청'을 서울 중구 저동(현 중부경찰서 자리)에 설립하도록 했다. 맹청에 속한 이들은 차례를 정해 일을 나눴고, '5훈 · 5계'와 같은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지켰다. 서양으로 치면 중세의 동업조합 길드(guild)와 비슷했다.

맹청은 산하에 10개의 지부를 두었는데 이를 문생청(門生廳)이라고 하였다. 문생청은 시각장애인들의 경제 단위이자 여기에 속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복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은 서당이나 학교처럼 한 스승이 여러 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1:1로 만나서 하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스승은 제자를 받아들이면 그 날부터 제자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강미(講米,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철저히 이해시키고 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절구로 만들어 외우게 하였다. 다음날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는 어제 배운 것을 스승 앞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운 후에야 새로운 학습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는 그날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해야 했다. 교육 내용과 기간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처음 2년 동안은 육효, 다음 2년은 사주, 마지막 1년은 단시 · 택일 · 경문을 배웠다. 교육이 끝나면 제자를 처음 가르친 스승은 맹청 내에서 인격과 재력을 갖춘 사람을 골라 다시 스승을 정하여 정식으로 사제 관계를 맺게 하였다. 그러면 제자는 새로 모시는 스승, 즉 정사(正師)의 문하생이 되며, 정사의 제자들끼리는 동문생이 되고, 정사 선생님의 동문생과는 숙질간이 되었다.

문생청으로 대표되는 시각장애인들의 관계맺기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미아리고개 역학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필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권오형 님과 항상 동행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 역학사 한 분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 사무총장님이 그 분에게 '고모'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모님이시냐고 여쭈었더니,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문생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각장애인은 상호부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장애인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옛날의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영 · 정조 시대엔 서울에만도 900명의 시각장애인이 맹청에 속해 있을 만큼 민간에서도 맹복이 번성했다. 도성 안에서는 '판수'라 불렸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북과 지팡이를 들고 둘 씩 짝을 지어 '수에-'라고 외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빽빽이 들어찬 지붕 사이 사이에는 점집임을 알리는 하얀 깃발이 긴 장대에 매여 펄럭였다. 좁은 골목에서는 북과 징을 두드리며 힘차게 경을 외는 판수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단연 한양의 명물이었다.

그렇게 맹복의 전성기가 지나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모든 국가제도가 혁신되면서 맹청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끊겼다. 그렇지만 문생 조직까지 해체된 것은 아니어서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다시 새 단체를 설립하여 맹청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된다.

김홍도, <맹인호점> (1700년대 말)

원천자료

『서울 육백년사』, 『한국의 점복』, 『매일종교신문』

No.	132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개화의 물결 속 점술**	키워드	과학, 질병, 구마검, 계몽

이야기

19세기 후반 개화의 물결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조선까지 들이닥쳤다. 거대한 군함을 끌고 눈앞에 나타난 서양의 실체를 목도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저들을 배워 '개화'해서 '문명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서양의 막대한 국력이 저들의 과학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개화 추종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비과학적인 것은 죄다 시대에 뒤진 것, 쓸모 없는 것, 나쁜 것, 심지어 나라를 병들고 망하게 하는 원인으로 비쳤다. 흔히 우리가 미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점술과 독경은 조선에 가장 만연해 있는 미신이었다. 특히 독경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조선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나면 가장 먼저 의원이 아닌 시각장애인 점술가, 즉 판수에게 달려갔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나쁜 귀신이 몸에 들어와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수가 환자 옆에서 신 나게 경을 외우면 귀신이 몸 밖으로 나가 병이 치료된다고 믿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의원에게 가지 않고 독경 의식만으로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 것도 사실이다. 개화 추종자들은 이 점을 따지고 들었다. 독경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할 뿐인 불량한 풍습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연설이나 글을 통해 주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해조(1869~1927)가 1908년에 쓴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이다. 서울 중부 다방골에 사는 만득이라는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자 그의 어머니 최씨가 판수의 독경, 무당의 굿만 찾다가 아이가 죽고 결국 가산을 탕진해 패가망신한다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 무릇 나라가 진보하지 못함은 풍속이 미혹한데서 비롯되나니, 슬프다! …… 사람을 내어 놓고 귀신을 위하여 무녀와 판수가 능히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맞아 오는 줄 여겨, 한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이 본받아, 적게는 한 집만 멸망할 뿐 아니라, 크게는 나라까지 쇠약케 하나니, 이는 곧 억만 명 황인종이 금일 참혹한 형상을 당한 이유이다.
>
> — 이해조, 「구마검」

과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작가에게 판수의 독경은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고 동양이 서양의 침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비쳤다. 하지만 소설을 거꾸로 읽어 보면, 거세게 밀어닥쳤던 개화의 물결 속에 독경과 굿이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몰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판수나 무당에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 민간 신앙의 많은 부분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일상의 일부로 굳어버린 풍습이 소수 계몽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사라질 리 없었다.

원천자료	이해조, 『구마검』

No.	13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일제강점기 조선역리대성교의 설립**	키워드	조선총독부, 미신단속, 조선역리대성교
이야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총독부가 인정한 종교는 딱 세 가지뿐이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에서 들여온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 정식종교로 인정받았다. 무속, 점술과 같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민간 신앙 행위는 식민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유사종교로 취급되었다. 식민지 경찰은 민간의 허가받지 않은 종교 행위를 단속, 처벌하였다. 이전 한국의 계몽 운동가들이 나라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미신타파를 외쳤다면, 일본은 오직 식민지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신을 단속했다. 일정한 장소나 건물을 두지 않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며 하는 점술과 독경은 일본인들에게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미신 단속으로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점술에 대한 믿음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을 찾아 고민을 상담했고 귀신을 쫓아주기를 부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동업조합 맹청이 없어진지는 오래였지만, 지부 역할을 했던 문생청이 제 구실을 한 덕분에 1:1 역학 교육과 상부상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춥고 어두운 식민지의 계절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겨울 나무처럼 견디었다. 1925년 마침내 전국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1925년 9월 1일 <조선맹인역리대성교>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한 전국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누차에 걸쳐 조선총독부에 항의하여 결국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생업을 위하여 민간의 점복과 독경 행위를 묵인한다는 조선총독의 허락을 받아냈다. 조합의 창설을 위하여 김병순, 방덕권, 조명규, 이규옥 등 시각장애인 네 명이 기미년 3·1운동부터 7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다. 초대 회장은 이문호가 맡았다. 이후 <조선맹인역리대성교>는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동업조합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1956년 <대한맹인역리대성회>로 명칭을 바꾸고, 1971년에는 <대한맹인역리학회>라는 명칭으로 법인 설립 인가를 얻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27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시각장애인 수는 모두 11,206명으로 총인구의 약 6%를 차지했다. 이 중 무직자 8,353명을 제외하면 점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39명으로 직업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는 침술과 안마에 종사하는 사람이 383명, 기타 직업이 931명이었다. 침술과 안마는 조선총독부가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맹학교를 세워 훈련시킨 새로운 직업으로, 이때부터 점차 종사자가 늘어났다.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 직업 가운데 안마사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복업이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었다. 아무래도 점복업 쪽이 수입으로 보나 사회적 대우로 보나 더 나았기 때문이다.		
원천자료	『서울육백년사』, 『매일종교신문』		

No.	13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영도다리와 종삼, 남산의 점 마을**	키워드	영도다리, 종로3가, 남산, 양동

이야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항상 자신들의 의사를 공동체를 통해 표출했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모토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 결함은 시각장애인들이 외따로 혼자 살기보단 여럿이 함께 모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고려시대 개경 맹승들의 모임, 조선시대 명통사와 맹청, 일제강점기의 대한맹인역리대성교. 이 모두는 이름만 다를 뿐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었던 단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역학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영도다리

6.25전쟁 기간 부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피난민들에게는 집과 식량의 확보도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큰 고통은 피난길에 식구들과 헤어져 생사도 모른 채 지내야 하는 것이었다. 부산 중앙동과 영도를 잇는 영도다리는 피난민들이 매일 운집하는 장소였다. 다리 밑에 가면 혹시 잃어버린 부모, 헤어진 형제,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영도다리에 매일처럼 나갔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거나 하염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는 일. 잃어버린 식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누군가 나타나 알려주기만 해도 나을 성싶었다. 다급한 사람들은 역학사들을 찾았다. 평소 집 나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데 용한 육효점은 이산가족을 찾는데도 그만이라 생각한 까닭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육효점에 정통한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이 하나 둘 영도다리 밑으로 와서 자리를 깔았다. 어느새 다리 밑은 '점바치 골목'으로 변했고 이것이 오늘날 점성촌의 기원이 되었다. 전쟁 전만 해도 점집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때부터 점집들이 한 곳에 죽 늘어선 형태의 점성촌이 만들어진 것이다.

피난시절 영도다리 밑에 점을 보는 사람들

영도다리 밑 점바치 골목(2014). 한때 50여 집이 영업할 정도로 번성했으나 점점 규모가 줄어 지금은 3집만 남아있다.

종삼과 남산

전쟁이 끝나자 피난민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도 서울로 돌아왔다. 전쟁 기간 폐허가 되었던 서울 시내도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다시 인구도 늘어났다. 한때 부산에

서 점성촌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은 이제 한 구역에 모여 점집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점집을 큰 상점들이 있는 대로변에 얻을 수는 없었으므로, 행인이 많이 다니면서도 집세가 싼 곳을 골라 점집을 차려야만 했다. 그렇게 따지자면 종로3가 뒷골목과 남산 기슭의 양동과 도동이 최적의 장소였다. 동양철학관 이회택 역학사의 설명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종로3가 종묘 앞부터 돈화문 앞을 거쳐 낙원동까지 점집이 즐비했다고 한다. 역학사들은 지붕 위로 점집임을 알리는 하얀 깃발을 긴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고. 탑골공원 둘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노점이 많았다고 한다.

남산 기슭 양동과 도동이란 곳은 지금의 남대문로5가에 속한 지역이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를 둘러싼 동네이다. 지금은 구 대우빌딩, 힐튼호텔 같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아래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지만 50~60년대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 점성촌으로 알려졌다. 종로3가에는 비교적 성공해서 부유한 역학사들이 점집을 차린데 비해, 수많은 판자집이 들어찼던 양동과 도동은 방세가 종로3가에 비해 훨씬 싼 편이라 주로 점집을 차린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역학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서울의 최대 관문 서울역과 마주하고 있어서 자연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도심을 드나드는 사람들,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한 사람들, 남산에 한가하게 놀러나온 사람들, 역 주변에서 날품팔이로 일하는 사람들로 역전은 늘 붐볐다. 그래서인지 양동과 도동의 점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시내의 모습은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 신설했다. 도심재개발도 함께 추진했다. 도심재개발은 우선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 또는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한 주거지를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종로3가와 양동과 도동 역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철거를 단행했다. 이들 구역은 점집뿐 아니라 성매매업소가 대거 밀집해 있어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별수 없이 자리를 내어준 역학사들은 영등포, 보문동, 용두동, 서대문 등 도심 외곽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종묘 앞 종로3가 뒷골목 풍경(1967)

양동 무허가 건물 철거(1964. 9. 23.)

원천자료

『서울육백년사』

No.	135	작성자	백외준
제목	**미아리 점성촌의 형성**	키워드	이도병, 소음, 먼지

이야기

철원철학관의 이도병 역학사가 남산 기슭을 떠나 동선동 미아리고개 아래의 마을로 들어온 것은 1966년 말이었다. 그해 10월 15일 돈암동과 미아리를 잇는 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면서, 미아리고갯길 폭도 8m 2차선에서 25m 4차선으로 넓혀졌다. 고개의 경사를 낮추기 위해 고갯마루를 깎아내렸고 야트막한 고가도로도 놓았다. 그리하여 고가도로 밑에는 도로 양쪽 동네를 연결하는 굴이 생겨서 행인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도병 역학사는 이 굴다리 밑에 노점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이 제법 많았다. 소문을 듣고 다른 역학사들도 하나 둘 이곳으로 들어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도병 역학사는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용해서라기보다도 미아리고개 아래가 행인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여기가 전차종점이거든. 지하철 다니기 전에는 을지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차 노선이 있었어요. 청계천 건너 을지로4가에서 타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전차가 여기까지 오니까 정릉, 삼양동, 우이동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전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거야. 전차가 더 싸니까. 그때 전차 요금이 5원인가 10원인가 했거든. 그거 타고 을지로 가서 을지로에서 영등포나 서대문으로 갔었죠."
>
> — 이도병 역학사(철원철학관)

1988년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한 역학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 "우리 같은 점집은 시골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세상살이 힘겨운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길목이어야 합니다. 과거 남산 언덕배기에 점집이 많았던 것은 그곳이 어렵고 힘없는 변두리 서울 사람들의 휴식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신통하단 소릴 들어야 잘사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
> — 『한겨레신문』 1988. 9. 28.

1970-80년대만 해도 미아리고개 아래 지금의 성신여대입구역 교차로 부근은 미아리고개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이었다. 아침이면 시내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저녁이면 미아리, 아리랑고개 너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고 그 인구가 시 외곽으로 흘러넘치던 시기, 미아리고개는 외곽과 중심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점집이 들어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미아리고개 아래 점집을 차리기 좋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방세 덕분이었다. 당시 미아리고개를 넘는 만원버스들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일으켜 시커먼 연기와 배기가스를 마구 뿜어댔다. 매연으로 도로 양옆의 집들에서는 마당에 빨래도 내어 널지 못할 지경이었다. 소음도 대단했다. 살림집을 차리기에 부적당한 이곳의 방세가 싼 건 당연했다. 많은 행인과 저렴한 방세. 미아리고개 밑 동선동은 역학사들이 입주하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이었다. 더구나 이미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가 널리 알려져 미아리고개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미아리 점성촌'이라는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이런 좋은 영업조건 때문에 미아리고개 아래 점집 수는 계속 늘어나 1980년대 중반에는 70여 호의 점집이 모인 전국 최대의 점성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원천자료	인터뷰

No.	136	작성자	백외준
제목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전성기, 그리고 IMF**	키워드	1980년대, IMF

이야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자 미아리고개 점집들도 이에 힘입어 전성기를 누렸다. 용하다는 입소문과 미아리의 유명세를 듣고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 택시를 타고 '미아리 가주세요'하면 으레 동선동 미아리 점성촌으로 데려다 주던 시절이었다. 연초나 입시철, 선거철과 같은 대목에는 한 집에 30~40명이 찾아와 쉴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고객은 주로 30~50대 주부들로 그중에는 단골이 꽤 있어서 한 달이 멀다하고 찾아와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인 관광객도 여행사의 소개로 자주 찾았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도 끼리끼리 어울려 점성촌을 찾았다. 대학생들, 결혼을 앞둔 연인들, 가끔은 술 한 잔 걸친 친구들끼리 와서 막연한 호기심에 점집 문을 두드리곤 했다. 윤대녕의 단편소설 「January 9, 1993. 미아리통신」에는 그렇게 무심코 점집을 찾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 시절 간혹 신문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을 비꼬는 기사가 오르기도 했다. 정치에 막 입문한 정치 초년생부터 정당의 중진 의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점성촌을 찾았다. 당사자가 직접 점집을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의 부인들이 와서 점을 보고 갔다. 정치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공천이나 선거에서의 당락 여부, 선거운동 방법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권력 중심부 있는 사람들이나 당내의 중진들은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떠오를지 물어보는 수가 많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복채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비쌌다.

1996년에 끝난 미아로 확장공사는 점성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도로폭을 기존 5차선 25m에서 8차선 35m로 넓히면서 도로 남쪽의 건물들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점집들도 많이 헐렸다. 현재 도로 남쪽의 점집 간판들의 수가 북쪽보다 유난히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듬해인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는 점성촌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흔히 경제가 어려우면 괴로운 일도 많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점집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막상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점집을 찾고 싶은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점성촌을 찾는 발길이 하나 둘 끊기자, 문을 닫거나 이사하는 점집이 늘어났다.

손님이 준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IMF가 터지자 실직자가 급증했고, 그들 가운데는 역학을 배워 점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시각장애인 역학사들과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입지도 줄어갔다.

"어느날 IMF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가 대량 생산이 되었잖아. 돈 버는 게 귀천이 없어졌어. 대학 교수, 회사 사장도 점쟁이 일을 하게 되었어. 점쟁이는 맹인들이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만신 무당이나 하는 직업이었는데, 엘리트들이 점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야. 역학은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책 몇 번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역서가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말이지. 그래서 맹인 역학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었지.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다다닥 두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점 보잖아. 손님이 이래저래 계속 준단 말이지……."

— 심남용 역학사(청산철학관)

원천자료	인터뷰

No.	13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전자점의 등장**	키워드	미아리고개 점집 간판, 전자점
이야기	출퇴근길, 눈에 띄는 것이 미아리 고갯 마루의 점장이들 간판이다. 한집이 멀다고 즐비하게 늘어선 걸 보면 제법 성업중인 모양이다. 잘은 모르지만 자기신수를 알아 보겠다는 인간심리는 현재의 불안에서 탈출하려는, 아니면 미래에 거는 기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전 일본에서 모처럼 시간이 있어 닛꼬 일광이라는 관광지를 찾은적이 있다. 동조궁인가하는, 우리네 해인사나 장안사에 비하면 별것 아닌 절에서 일본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나 풀린 듯 그저 희희낙락하면서 경건한 합장을 하는 것이었다. 천황을 밀어제치고 근 2백60여 년동안 일본을 다스린 막부를 창설한 도꾸가와 이에야스를 모셨다는 절.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참배할 필요가 없어 홀로 처졌는데 그러다 보니 좀 심심했다. 그런데 마침 휴게소 옆에 전자점이라고 쓰인 마치 전화통같이 생긴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비상한 손재주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들은 드디어 인간 두뇌 결정체라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 사람 신수까지 점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1백엔을 넣고 생년월일을 댔더니 대뜸 점괘가 나왔다. 목하 진행 중인 부부냉전에선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게 이로우리라. 그때 나는 1년 이상 아내 얼굴을 보지 못했던 외유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며칠 전 한 원자물리학자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다. 포켓용 전자 계산기.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그 계산기에는 생체리듬이라든지 점치는 장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내 생년월일을 묻더니 대뜸 토요일 태생이군요 하면서 자못 만족스러워하는 것이다. 만세력을 보기전 내가 토요일에 낳았는지 일요일에 낳았는지 알 바 아니지만 어떻든 그 전자점이 정확하다는 사실 만은 당장 그날 저녁으로 확인되었다. 건망증을 조심할지어다라는 점괘가 나온 아내가 내 반주를 잊어먹은 것이다. 앞으로 그 숱한 미아리 고개의 점장이들이 더욱 성업을 벌일것인지, 아니면 밥을 굶을 것인지 목하 나는 전자점을 치고 있는 중이다. – 이장규(원자력병원장)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6. 11. 8		

No.	138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78년 2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개명, 손님, 요행, 사회

이야기

점을 치러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해가 바뀌고 구정을 앞둔 일년신수, 입학철을 맞아 지망교 선택과 합격여부,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 당선 여부, 변동이 심한 증권과 부동산의 시세변동 등을 점쳐보려는 사람들로 복점업은 유례없는 성시를 이루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중구 남대문로 남산 기슭, 서대문구 충정로 · 의주로, 종로구, 통인동 · 내자동 등 어느 곳에나 즐비한 운명철학원, 예언의 집, 작명소마다 줄을 잇는다.

적게는 1천원부터 최고 3~4만원씩에 앞날을 물어보는 손님들은 잘보는 운명철학가를 만나기 위해 5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와 만날 시간을 예약하거나 초대해 가기도 한다.

성북구 돈암동 로터리에서 미아리고개로 오르는 고가도로 양옆에 늘어선 40여개의 운명철학관, 천도화운명원, 봉선화처녀철학관, 처녀학사운명감정원, 현대 예언 인생 컴퓨터 등 내건 간판도 요란스럽다.

집집마다 두 평 남짓한 방안에 10여명의 손님이 꽉들어차 점술가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방밖 마루턱에도 5,6명의 대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순서를 기다리기도 한다.

"박근모라...나무목자가 세 개가 끼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이름을 갈아." 30대 맹인점술가가 50도 넘어보이는 손님에게 카랑카랑한 반말로 사뭇 명령조다.

박씨는 사업에 손을 대기만 하면 실패, 이번에는 부동산투기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쩌나 싶어 점술가를 찾아 왔다 이름을 갈라는 호통을 듣고 8천원에 새 이름과 부적을 얻어 돌아갔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국역술인협회(회장 지창용. 56)에 가입한 회원은 5천여명이며 이중 2천여명 이상이 서울에 물려 저마다 간판을 내걸고 있다.

역술인협회 측은 "정부의 행정수도 발표 후, 역리학회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고 귀띔하고 "정치인, 유명 경제인뿐 아니라 연예인 등이 수시로 자신의 운명을 점치러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준다"고 자랑했다.

한 점술가가 줄잡아 10여명의 단골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부인들이 단골이지만 고급관리, 정치인, 재벌급 사장, 연예인이 주로 많고 남녀 대학생까지 단골로 드나들고 있다는 것.

최근 점술계에서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종로구 통의동 김모 씨(45)의 N작명소에는 하루 3백명 이상의 손님이 몰려 한번 점을 치려면 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김씨가 이름을 풀이해 주는데는 1천원, 이름을 만들어 주는데는 6천원 이상인데 김씨는 혼자서 이 많은 손님을 다 보지 못해 직원 4명이 거들고 있다.

소문에는 김씨가 지난 10여년 간 점을 쳐주고 벌어들인 돈이 수억대나 된다는데 김씨는 손님이 워낙 많아 한 손님과 약 3~5분동안 얘기하고는 곧 다음손님을 맞는다.

남산에서 예언의 집을 차리고 운명을 점쳐주는 점술가 강문수씨(45)는 "동양철학의 심오한 음양설에 근거를 둔 역리는 몸으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역술인과 함께 자신의 앞날을 살펴보고 이치에 순응키위해 노력하는 손님

	들이 항상 찾아준다"고 점술가를 찾는 손님층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 같은 점술계의 성업에 대해 고려대 사회학과 임희섭 교수는 "정직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꼭 성공하는 사회라면 이런 일은 크게 성하지 못할것"이라고 내다보며 "성공 출세나 부귀등의 기회를 쉽게 갖지 못했던 서민들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요행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풀이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8. 2. 4

No.	139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78년 4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조태혁, 미신, 과학

이야기

한 많은 미아리고개를 마악 넘기 직전에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저길 보세요. 간판들이 붙어있지요. 취재 나왔다고 얘기하면 아마 돌아앉을지도 몰라요."

자신있다는 택시운전사의 말에 나는 겁을 먹는다. 나름대로 궁리해 보았던 내 취재 방법도 터무니 없음을 느낀다. 에라, 모르겠다. 복채를 각오하고 딱한 손님으로 가장해 쳐들어가자. 내 정체를 알아낸다면 그들은 귀신(?)이어서 진짜 운명판단가일테고, 모른다면 나중에 슬슬 구슬려서 이곳 반문명의 신비한 권위의 정체를 벗겨낼 터이고.

어느 집으로 먼저 들어갈까. 「계룡산」, 「백일홍」, 「거북집」, 「개성」, 「봉선화」 아크릴 간판이 즐비한 20여 채의 맹인복술가 중에서 무턱대고 한 집을 택했다.

"운명감정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들어서서 1분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젊은 맹인은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우물쭈물한다.

"댁은 점치러 오지 않았소"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 지금 말하기 싫으니 어서 나가시오"

그래서 3분도 지체 못하고 쫓겨나 버린다. 어리벙벙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일까. 맹인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내 목소리에서 무엇이라도 느꼈다는 이야긴가.

다음 집으로 들어서면서는 훨씬 조심조심. 처녀복술가여서 조금은 만만한(?)기분으로 돌진.

"복채 3천원을 얹으세요."

속절없이 3천원을 털린다.

"무엇을 알기 원하세요."

"글쎄, 금년 신수나 좀 봐주시오."

앞을 볼 수 없다는게 탈이지, 이 곱상한 처녀점술가의 껌벅이는 괴이한 눈짓 말고는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생은 이제부터 ○○년 대운이 텄어요. 그러나 이 운도 물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쑤시개병 같은 데서 바늘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따악 멈춰진다.

"물문이라니요."

"부처님께 운의 물길을 터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빌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데요?"

"선생은 가만 있어도 돼요. 대신 제가 빌어드립니다."

	“물문 트는 값이 얼맙니까?” “5만원 입니다.” “꽤 비싸군요” “대운을 눈 앞에 둔 사람한테는 그건 돈도 아니에요.” “다시 오지요. 이곳에서 자리잡은지 얼마나 됩니까?” “돌아가세요.” 이상하다. 그들 세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듯하면 금새 내쫓는다. 이곳 문명의 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율법일까. 그들 말대로 이곳에서는 어떤 서울사람이든 맥을 못춘다는 신비의 심령과학에 대한 자부와 긍지 때문일까. 그러니까, 복술을 반문명이라 말할때 그들은 코웃음 친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대표자 격으로 군림하고 있는 K운명판단소 조태혁씨(52)는 서울의 유명동인 동선동4가 맹인촌의 점술이 컴퓨터보다 정확하다며 자신만만하다. “우리는 이제 복술을 신비의 철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과학 그 자체거든요. 미신이라니요. 천만에. 어디, 나한테서 틀린 점괘 받았다는 서울사람 나서봐요.” 90%의 적중율을 자랑한단다.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모모 인사들이 이 곳의 단골손님이란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말을 모두 믿고 확인할 길은 없다. 정작 과학적인 프로테이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들 맹인들의 편리를 위해 음양오행 원형이정 고리해석들이 적힌 맹인용 점선문자판을 만들고 있더라. 이곳의 복술소는 20여개소. 작명 하나 하는데 5천원. 매 복술가를 찾는 손님의 숫자는 하루 30명꼴. 그러니가 6백명의 서울시민이 매일 바뀌어 점치러오는 셈이다. 서울은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가. 남녀 비율은 반반이며, 계절을 타는 기업(?)은 아니란다. 굳이 시기적 특색을 들자면 정초의 재수점, 신학기의 학생과 선택점, 부동산 투기바람을 탄 복부인들의 재수점, 봄철의 궁합점, 입후보자들의 당락예언점 등이 있으며 신생아의 작명이나 새 기업체의 상호를 짓는 일 등 이곳의 문턱은 닳기가 급하다. 제 앞은 못보지만 남의 앞날은 예견한다는 동선동4가 맹인 복술촌. 문명이 발달할수록 복술업이 더욱 성행하는 이 요상한 세계적 추세는 어인 일인가.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8. 4. 6

No.	140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78년 10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점술가, 고객, 점술의 사회심리
이야기	선거철 입시철을 앞두고 점이 성행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죄기보다는 확실한 미래를 남보다 한발이라도 먼저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에서 연유되는 것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점장이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숱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안 맞을 줄 알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점장이가 시키는대로 몇십만원 부적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는 여성들의 심리는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1)서울의 점술가 2)점술가의 고객들 3)점술의 사회심리등을 상·중·하로 계획했다. 미아리고개 아래, 30여명의 맹인 점집이 낮은 지붕을 맞대고 있고 관상사주집이더러 섞여 있는 점복가. 이곳의 특색은 판수가 산통에서 산가지를 뽑아 점치는 육효점, 육문점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한 골목에 깊숙이 자리잡은 Y관상집. 맹인집이 아님을 확인하고 점방으로 들어가니 세 여인이 점을 보고 있다. 한 여자는 16년을 숨어서 첩노릇을 했다는데 남편이 언제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러 온 것. 또 한 여자는 자기가 본처인데 남편이 본 시앗이 언제 떨어져 나가겠느냐고 물으러 온 것. 또한 여자는 이제 결혼할텐데 신랑감의 사주가 어떤가 보러 온 것이다. 마치 희곡대본으로 꾸며진 인생극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연히도 함께 점방에 마주 앉아있는 세 운명의 여자들. 그들은 모두 대학 출신이라고 했고 외모로 보아도 교양이 있어 보인다. 얼마후 다시 두 명의 남자가 점방에 들어왔다. 스물다섯의 젊은 남자와 마흔셋의 중년 남자. 점집의 조그마한 방안에선 끊임없이 연속 상연하는 인생극의 연극무대처럼 온갖 사연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위안 받으려고 같은 말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며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다. 그에 비하면 남자들은 얘기만 듣고는 황황히 나가버린다. 여성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마음을 풀려고 점방에 앉아서 하소연을 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점복이 왜 존재하고 왜 필요했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알고 싶은 것을 알고자 하는 심리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원시 시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까지 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서울에는 줄잡아 1천여명의 점복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중에는 대한맹인역리학회에 183명, 현대한국역학인회에 205명이 공식 등록되어 있고 이외에도 성공경신회 등 여러 유파의 역술인 회원이 있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복가들이 많이 있어서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맹인점의 복채는 한 사람당 1천원, 사주 관상가들은 2천원의 복채를 받고 있다. 한나절 어느 점방에 앉아서 손님 수를 세어보니 21명이었다. 서울에서 비교적 많이 몰려 잇는 점동네로는 적선동, 통의동, 체부동, 내자동일대를 들수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이름을 풀어 운명을 점치는 방법이다.		

	이곳 외에 미아리 동선동4가 종로5,6가, 광희동, 신당동, 숭인동 일대 창신동, 인형동, 초동, 남대문 회현동 일대 정릉, 불광동 등에 점복가들이 비교적 몰려있다. 그러면 점이란 대체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20여 종류의 점이 있다고도하고, 50여종이 넘는 점이 있다고도 한다. 점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점의 종류로는 신수점, 재물점, 구직점(취직·시험·관직·입학), 혼인점, 이사점, 질병점, 소망점, 대이점, 심인점, 실물점, 출행점, 행선점, 소송점, 잉태출산점, 천시점, 평생점 등 16가지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인생사 전반에 걸쳐 자기가 목적하는 일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간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점들은 이름만 다를 뿐 원리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들이 많다. 점은 크게 상과 역으로 대별해서 볼 수 있다. 상이란 관상, 골상, 수상 등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보고 운명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와 반대로 역은 주역을 말하는데 상과 마찬가지로 경험의 집적에 의해서 된 지혜의 집약으로 통계적 확률이 적용된 것이면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일이나 마음상태를 자연의 음양에 비교해서 상징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점은 64괘를 조합한 작괘법을 사용해서 주역의 조견표를 보고 인간운세를 풀이한다. 작괘법에 사용되는 물건에 따라, 작괘 원리에 따라 시초(쑥대)점 동전점, 송엽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에는 호도와 거북에서 뽑아내는 비슷한 방법의 점을 치는 곳도 있다. 글로 풀어서 하는 역점 외에 우리나라에는 샤먼 계통의 무당점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는 무녀 만신이 엑시타시적인 상태에 돌입하여 신탁으로 점행위를 하는 것, 즉 신들린 상태의 무당의 입을 통해 운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년월일시로 보는 사주점이 있고, 출생일에 해당하는 12성좌로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도 있다. 위에 든 종류 외에도 점의 도구나 방법에 따라 붙여진 점의 종류는 많이 있다. 결국 점이란 인류 역사가 빚어낸 경험의 소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위안과 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점의 역사를 보면 점복가가 인생상담이라는 진지한 입장에서 점을 행하지 않고 축제의 수단으로 혹세무민하던 폐습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악해를 빚어왔던 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8. 10. 19

No.	141	작성자	차현주
제목	**점에 약한 여심**	키워드	가정, 부동산, 점술
이야기	계절이나 때에 관계없이 길흉사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점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이나 선거가 아니더라도 가정문제, 애정문제 심지어 아이들의 지망학교 선택문제 등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점장이를 찾는 등 점술은 우리의 가정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최근 역리학이니 주역이니 하며 거창하게 내건 간판이나 주간지에 크게 실린 광고 등이 눈길을 끌지만 주역, 연해자평, 명리정종 등 역학에 관한 기본서적을 제대로 읽은 점장이는 별로 없고 17세의 처녀맹인, 소년 점장이, 신들린 여자 등 허황한 소문들이 그들의 간판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사주를 보는데 드는 복채는 보통 1천원에서 3천원. 점괘가 잘맞다거나 운수가 좋으면 5천원에서 1만원도 받는다. 기가 막히게 꼭 맞힌다는 용한 집의 경우 사주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타고 몇시간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신수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쁘니 이름을 갈아라” 시어머니가 금년내에 돌아가시니 부적을 해라“ ”남편에게 바람기가 있다“하여 부적이나 액땜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통 작명에는 5천원 이상이 들며 부적은 5만원 이상, 많을 경우는 부적 한 장에 50만원 이상 호가하기도 한다. 요즘은 절에서도 점을 봐주는 곳이 있다. 예전처럼 스님들이 단골신도들에게 간단한 관상이나 사주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어 돈을 받는 상업화된 절들이 서울 주변에 더러 있다. 점괘가 나쁘면 거북을 사서 연못에 방생하라는 말에 1마리당 4천원 하는 작은 자라를 사서 지정된 연못에 놓아주는데 “너도 나도 다 거북을 사서 그 연못에 산채로 놓아주니 그것이 바로 돈벌이가 아니겠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점치는 남녀의 비율은 보통 반반이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사업 부동산투기 등 큰일을 앞두고 부인을 시켜 점을 치기도 하지만 직접 점장이들을 회사나 집으로 초청, 점괘를 듣는데 이때의 출장비 명목은 한번에 5만원선, 용하다는 말만 들으면 자가용을 타고 정계인사 재벌집에 다니며 점을 봐주는 점장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생계에 자신이 없는 영세민이나 병약자 혹은 일부 유한부인들이 고객의 대종이지만 요즘은 여대생들에게도 크게 번지고 있다. “한다는 점장이를 찾아 미아리, 의정부, 개봉동 등 안 가본 데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모 여대생의 얘기. “어느 동네 누가 용하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찾아가 하루종일 소일하는 극성파도 많다는 것이다. “점장이를 100% 다 믿기보다 부모나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상담할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이 여대생 자신들의 진단이다. 과학의 발달로도 밝히지 못하는 인간의 미래나 운명을 미리 알수 있다는 것처럼 허황된 일은 없다. 점이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역할을 해주는 긍정적인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괘를 맹신, 재산을 탕진하거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일이 종종있어 주부들의 각성이 크게 요구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78. 6. 10		

No.	142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84년 6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최씨, 송춘식, 김도사

이야기

수도 서울, 인구 9백50만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전조 탁선 예언 관상 등으로 초인적인 인간과 접촉하여 미지의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점이 성행한다. 길흉 화복을 점을 통해 알아보려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다.

성북구 동선동에서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는 길 왼쪽, 빨간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선 점치는 동네의 최역학관. 40대 부인이 택시에서 내려 이집으로 들어섰다. 3평 정도의 방안에는 남자 맹인 최씨(58)가 검은 안경을 끼고 책상 앞에 앉았고 책상 위에는 대여섯권의 점자책과 10cm정도 크기의 나무거북, 5cm정도의 은색 쇠통이 놓여있다. 벽에는 청룡을 탄 관음보살과 언월도를 들고 그를 호위하는 관운장이 그려진 폭 1.5m, 길이 2m 가량의 탱화가 걸려있다.

이리 앉으시죠. 무슨 일입니까.

"작년말 제 딸의 대학입학문제로 선생님을 뵈었었는데 하도 용하셔서 또 찾아왔어요. 아들을 장가보내려는데 운수와 궁합을 보러왔어요."

부인은 복채 2만원을 나무 거북등 위에 조심스레 얹어 놓았다.

최씨는 부인이 아들과 신부감의 이름과 사주를 물어본뒤 점자책을 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운세를 짚더니 다시 쇠통을 흔들어 안에서 쇠막대기를 뽑아 6효(점괘의 6가지 획수)를 지었다.

10여분동안 뭔가를 계산하고 입속말을 하던 최씨는 "둘다 궁합 사주는 참 좋습니다. 단지 아드님이 천생으로 타고난 성패살이 내년 6월에야 풀리기 때문에 결혼날짜는 그 뒤로 잡는게 좋겠군요" 했다. 부인은 "올해 안으로 식을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면 할 수 없이 내년으로 미뤄야겠군요" 하면서 절을 하고 물러났다.

최씨는 이곳에서 15년전부터 역학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7세 때 열병으로 두눈을 잃고 16세 때 서울맹학교에서 역학을 배우다 일본에 건너가 '나고야'의 대관선사당에서 6년간 역학을 수련하고 귀국했다고 했다.

최씨는 점을 제대로 치기 위해선 네 가지 역학과목을 완전 체득해야된다고 했다. 평생사주를 보기위해선 명리정종을, 택일에는 선택정종을, 단기운수에는 복서정종을, 액운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자의 도경을 완전히 터득해야 한다는 것. 각각 10만자의 한자로 되어있다고 한다.

도경 중에서도 몸이 약한 사람에겐 보신경으로, 액이 있는 사람은 도액경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청룡언월도가 관우에게는 보검이지만 도둑에게는 흉기이듯 주역과 음양오행 등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역학은 모르는 사람에겐 미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에 근거를 둔 고등수학 공식과 같은 것" 이라고 말했다.

고객은 30, 40대 부인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남자들도 있고 여대생 손님이 늘어나는 추세라는게 최씨의 말. 손님 중에는 10년이 넘게 한달에 한두번씩 찾아와 집안의 잔일까지 의논하는 단골도 있다.

연초나 입시철 선거철에는 하루 20~50명이 찾지만 보통 때는 손님이 없고 특히 여름에는 하루 2, 3명이 고작이란다.

복채는 1년 신수 5천원, 평생신수 1만원이 공정가격이나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더

	없어주며 미래를 용하게 맞혔을 때는 점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 찾아와 두둑하게 사례비를 내놓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미아리고개에는 철학관, 예언점성가, 역학관 등의 이름으로 개업하고 있는 복사, 복인, 복자, 일자, 점자가 50여명이나 몰려있다. 대부분 맹인들이다. 이중 10여명은 괜찮은 수입을 올리나 20여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한다. 한국맹인역리학회 서울지부장 송춘식씨(48)는 "미아리 점성촌은 60년대 말에 형성됐다"면서 "흩어져 있으면 손님들이 찾기 힘들고 맹인 점성가들의 활동이 불편해 모여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는 현재 213명(전국 6백여명)의 맹인점술인이 있다. 맹인 아닌 역학인들도 7백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기집이나 여관 등을 근거로 영업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수입이 괜찮다. 유명점성가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다. 보통사람의 신수보기나 작명에는 잘 응해주지 않고 제왕이나 된 듯 손님에게 반말에 욕설 섞인 고함을 질러대는 역학인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을 미신으로 보고 있는데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은 늘고 있다. 하루 평균 점치는 서울시민이 5천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을 즐겨 치는 사람들 중에는 유한부인들도 적지 않고 유명 지식인도 들어 있다.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자칭타칭 역학인들이 계속 늘어난다. "점성가라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손님비위만 잘맞춰 돈을 버는 사이비도 적지 않습니다. 역학계도 한 차례 정화운동이 일어야 할 것입니다." 20여년 경력을 가졌다는 김도사(63)의 말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84. 6. 19

No.	143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85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정치점, 합격점, B역학관
이야기	입시와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점을 치는 집이 크게 붐비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가족이나 선거운동원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C도사 집에는 요즘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하루 10여명씩 찾아온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족, 친지, 선거운동자들이 입후보자의 사주팔자만 내놓고 1년 신수와 관운, 관재수 등을 상세히 묻는 다는 것. 주로 구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통의동 B씨 역학관에도 요즈음 남편의 관운을 알아보려는 40~50대 부인이 하루 4, 5명씩 찾아오고 있다는 것. 또 정치점을 치는 사람들은 일반 손님보다 많은 복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만원 정도가 평균 액수이고 점괘가 나쁘게 나올 경우, 부적을 사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성북구 동선동 미아리고개 점술가촌에 모여 있는 50여 군데의 역학관에도 요즈음 대입 합격과 총선 당선운을 점치려는 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고객이 많은 집은 하루 10~30명씩이 몰리고 있다는 것. 미아리에서는 정치점보다는 합격점을 보는 사람이 많이 찾고 있다. 이곳 B역학관 점술가 송씨는 “지난 연말까지는 합격운을 보려는 사람들은 하루 한두명씩 밖에 찾아오질 않았으나 새해들어 갑자기 늘어 매일 7~8명씩 찾아 오고 있어 대학 입시가 끝날 때 까지는 지난 해 보다 많은 수가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85. 1. 7		

No.	144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86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입시점, 학부모
이야기	대학입학원서 마감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점술가 거리> 로 널리 알려진 서울 미아리고개 일대의 50여 군데의 운명철학원과 역술원에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와 입시점을 본 학부모들은 점괘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표정들이었다. 오후 1시경 이곳 C철학관을 찾아온 한 어머니는 이 철학관 주인(47)과 마주앉자마자 딸의 생년월일과 이름 등을 대고 입시운을 물었다. “꼭 합격하려면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요?” “그 정도 점수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셔도 괜찮을텐데요?” “점괘에 점수도 나오나요?” “대략 230점은 넘을 것 같은 점괜데요?” 딸의 학력고사점수가 233점이라는 이 어머니는 놀랍다는 듯 한결 솔깃한 표정으로 구체적인 질문공세를 폈다. 학생과 학교의 방향으로 봐 A대학이 <연이 맞는다>는 점괘대로 원서를 접수시키기로 작정, 홀가분한 표정으로 복채를 두둑이 내고 돌아갔다. 오후 3시경 한 재수생의 형이 주위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며 Y철학관의 문을 두드렸다. “동생이 지난해 떨어졌는데 올해는 운세가 어떻겠습니까?” 종이에 적힌 재수생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놋쇠 산통을 열심히 흔든 Y철학관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낙화 무춘의 운세니 힘들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럼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초조해진 재수생의 형이 묻자 철학관 주인은 근엄한 표정으로 “비방을 써야한다”며 부적을 몸에 지닐 것을 권유했다. 이에 재수생의 형은 “가족과 상의해본 뒤 다시 찾아뵙겠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철학관을 나섰다. 이날 미아리고개 일대에 입시점을 보러온 학부모들 중에는 입학 원서를 사들고 1,2,3지망을 점지해 달라고 매달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미달학과를 가르쳐달라”고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는 아버지도 있었다.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장이 들에게는 최근 하루평균 30~40여명이 입시점을 보러 오고 있으며 며칠 앞서 예약,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현상은 입시철마다 계속된 연례 행사다. 원서 마감 직전까지 <운과 요행>을 알아내려고 초조해하는 학부모들의 심경도 이해는 가지만 무언가 잘못된 풍속도를 보는 느낌이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한교수는 “현행 입시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86. 1. 8		

No.	145	작성자	차현주
제목	**정치인과 점**	키워드	정치인, 점
이야기	입시철이 되면 애간장이 타는 학부모들로 점보는 집들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대학 입시 경쟁률이 여느 해보다 치열했던 올해는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철학관이 밀집해 있는 미아리를 비롯해 용하다고 소문난 복술가들을 찾았다. 자식의 진학문제로 가슴을 졸이는 학부모 못지않게 국가 대사를 논하는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도 점, 사주, 관상, 풍수 등을 애용하고 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당지도자, 국회의원, 정치지망생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아닌 미신으로 분류되는 점복술을 가까이하고 또 실제 정치행위에도 점괘를 대입하고 있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을 비롯한 주요 정치행사의 택일을 복술가에게 물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그 날짜를 당시 중앙정보부 판단기획실장 김성낙씨 (유정회 1기 의원 역임, 사망)가 용하다고 소문난 세검정 모 점술가로부터 받아온 10월 17일로 정했다는 것. 박 정권 시절 중정에 근무했던 이종찬 의원(민자)은 최근 김씨는 개인사찰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독실한 불교신자로 평소 복술에도 관심이 많았다면서 10월 유신 단행 날짜는 김씨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0. 12. 21		

No.	146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5년 10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신세대, 점카페, 재개발, 세기말

이야기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세상은 적응할 틈도 없이 급격히 변화하고 그 변화의 방향도 예측하기 힘들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가로놓인 미래의 운명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미래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예언이 난무하는 사회. 종교는 힘을잃고 과학도 맥을 못추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초 종교」 「반과학」적인 풍조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근거없는 예언과 미신을 쫓고 있다.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른바 「종말론」의 초침소리는 점점 커지고 때마침 파고드는 세기말적 증후군이 사회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가. 요즘 점집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부는 물론 신세대들도 북적거린다. 젊은 층의 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또한 새로운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다. 「점 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컴퓨터문화에도 점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신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점문화」의 현장을 추적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미아리 점집 골목. 행정구역상으로 성북구 동선동인 이곳에는 100여 개의 점집들이 역술원 철학관 운명감정소들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남자역술인들은 대개 마니산, 지리산 등의 산 이름이나 지명을, 여자 역술인들은 개나리 천도화 등의 상호를 자주 쓴다.

대부분 영업이 잘 된다. 인근 부동산 주인 이모씨는 "여기는 집주인들이 건설사들의 재개발 요구를 거절하는 특이한 곳입니다. 재개발보다는 낡은 기와집을 역술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거든요" 라며 이곳 풍속도를 전한다.

점집이 날로 번창하다보니 역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서울 강남에 생겼다. 수강생은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퇴직 공무원도 있고 대학생도 눈에 띈다. 5개월 과정을 마치면 3~5명 정도는 바로 개업한다고 학원 관계자는 귀띔한다.

점집의 최대 고객인 주부들. 이젠 점을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배우러 나선 사람들도 많다. 롯데백화점 부설 문화센터의 경우 88년말 개원 당시 「생활명리학」1개반이었던 것이 지금은 8개반으로 늘었다. 사람이 많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수강생중엔 대학교수, 약사들도 있다. 진로문화센터도 마찬가지. 3개반 모두 수강생이 꽉 찬다.

대학생들도 점 보는데는 빠지지 않는다. 캠퍼스라이프지가 올 3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48%가 점을 본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점을 본 이유에 대해 저학년은 「재미」, 3, 4학년은 「답답한 현실」때문이라 밝힌 대답이 제일 많았다.

젊은 층의 점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점 카페」가 북적거리고 있다. 자칭 대학생 도사들이 운세를 봐주는 「사주공간」 「천기누설」등의 카페가 지난 90년에 생겨 지금은 서울시내에만 6~7곳이 성업 중이다.

강남구 신사동의 카페 '사주공간'에서는 10여명의 대학생들이 1만원을 받고 사주를 풀어준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임광석 씨(26)는 "보통 때는 하루에 20여명, 1월이나 취업시즌에는 50여명이 찾는다"고 밝힌다. 「연해좌평」 「궁통보감」 「적천수」등으로 사주를 배운 이들 대학생도사의 한달 아르바이트 수입은 보통 50여만원 정도.

점은 이제 컴퓨터와도 손잡았다. 「사주박사 3.0」이 그 결실체. 포인트라인이 판매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사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1천 2백 96만가지의 조합을 수록해 놓았

다. 사용자가 태어난 날과 시를 대면 30분 안에 80쪽 분량의 사주운명 책자를 만들어준다. 한달에 1,000여명이 이용한다.

직업 점쟁이의 숫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속칭 신점을 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신연합회 원수가 82년 3만9천명이던 것이 92년에는 15만 1천명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남한 인구가 80년 3천 8백 12만명에서 90년에 4천 2백 87만명으로 1.1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대단한 증가다. 점을 보는데 책을 주로 이용하는 한국 역리학회 회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은 3만명 가량된다. "이들중 90%는 개업했을 것"이라고 백운산 역리학회 부회장(52)은 추정했다.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는 것에 아랑곳 없이 점쟁이는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점으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갈수록 심하게 겪고 있다. 삼합길일이니 오합길일이니 하는 날은 예식장 주변 도로등과 공항이 몸살을 앓는다.

요즘엔 때아닌 출산 러시가 일고 있다. 올해가 60년만에 찾아온 복돼지해여서 올해 태어난 아기는 사주를 타고 난다는 미신이 퍼져 있기 때문. 서울시내 산부인과는 부쩍 늘어난 산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임신 5개월인 박지혜씨(25. 서울 방학동)는 "병원 갈 때마다 산모들이 많아 제시간에 진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점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점 자체로는 어쩌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역술서인 토정비결에서 나올 수 있는 7,000여개 점괘 중 행을 말한 것은 72%. 불행의 점괘보다 훨씬 많다. 즉 역술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이다.

소설 『토정비결』의 저자 이재운 씨는 말한다. "역학이야 필요한 학문이지만 현재 점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가 많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래가 궁금하면 점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 여행을 하는게 훨씬 실속 있을 겁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5. 10. 3

No.	147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성북점자도서관**	키워드	대한맹인역리학회, 양정렬 사무장
이야기	점집과 작명소가 몰려있는 서울 미아리고개 뒷골목 성북점자도서관의 양정렬 사무장(36). 92년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가 설립한 이 도서관은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제작,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대출하는 곳이다. 양씨는 이곳에서 총괄적인 기획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할 때는 사서 제판 녹음은 물론 차심부름, 책배달 등 온갖 궂은 일이 모두 그의 차지.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국의 맹인역리학회 회원 2천여명과 낮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안마시술사들입니다. 회원들이 역학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역학관련도서가 많이 나가고 역사소설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지망생인 그는 시각장애인 친구의 권유로 낮에는 점자도서관에서, 밤에는 신학대에서 「주경야독」하고 있다. “초기에는 신앙과 역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했지만 역술을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사라졌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제자식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장애를 안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언젠가는 목회자의 길로 떠나야 할 그가 이곳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점자도서관을 확대해 직업훈련시설과 노인정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맹인문화원을 설립하는 것. 이를 위해 94년 빚까지 내 일단 부지를 사들였는데 건축비 5억원이 없어 비싼 이자만 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새해에는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진이들의 관심과 정성이 쌓여 문화원이 꼭 착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6. 1. 16		

No.	148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총선, 공천, 심모 씨
이야기	이번에 당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운세가 불리해.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선거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30일은 일진이 좋지 않으니 움직임을 줄이고 동쪽으로는 가지 말아. Y성을 가진 사람과는 상극이니 선거운동원으로 두지 않는게 좋아.”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미아리, 신촌 등지에 몰려 있는 점집에 후보자나 가족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당락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다. 미아리 C철학관 심모씨(47)는 “선거결과를 물어보러 오는 정치인들이 5,6명 가량 된다” 면서 “사주만 정확히 알면 공천여부와 당락여부를 80~90%정도는 알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은 여야나 노소 구분이 없다. 특히 점을 미신이라고 무시 할 것같은 30대 젊은 후보들도 이들에게 「자문」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정치인의 당내 지위나 비중에 따라 질문 내용도 차이가 크다. 한 역술인은 총재 측근이나 중진의원 등은 자신의 당락보다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떠오를 것 같으냐”는 등 총선 이후의 판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역술인들은 일부 후보들이 당락여부를 넘어 “젊은 층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 게 좋으냐”는 등의 「비 역술적인」 질문까지 해오는 경우도 있어 곤혹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역술인들의 「대목」은 뭐니뭐니 해도 공천심사때. 이때 쯤이면 「정치점」을 잘 본다고 소문난집은 문전성시다.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부터 “전국구가 나으냐, 지역구로 가는 것이 좋으냐”는 「진로상담」까지 받는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복채는 일반인들의 2만~3만원에 비해 훨씬 많은 20만~30만원정도. 한 역술인은 “정치인의 장래라는 것이 원래 불투명하기 때문에 점에 의지하려는 정치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6. 3. 28		

No.	149	작성자	차현주
제목	**세계 점술가 대회**	키워드	세계 점술가 대회, 진영호 구청장
이야기	동서양의 점성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점술가 대회」가 내년 하반기 중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진영호)는 12일 점성촌으로 유명한 미아리고개에서 이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현재 70여 가구 1백여 명의 맹인이 운명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점성촌이다. 구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준비위원회를 조직,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은 60년대말 종로3가와 남산 주변에 집단거주하던 맹인점성가들이 하나 둘 몰려들면서 형성됐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96. 6. 14		

No.	150	작성자	차현주
제목	**1999년 1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IMF, 김모 씨, 조모 씨
이야기	『새해에는 나라 운세가 좀 펼까요』 『경제는 언제쯤이나 좋아지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려주세요』 IMF가 신년초 점집 풍속도 마저 바꿔 놓았다. 점을 보러온 사람들이 개인 운세 못지않게 국운이 어떻지 묻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실직이나 부도 같은 개인의 흥망성쇠가 국가의 운명과 직결돼 있음을 지난해에 절감했다는 얘기다. 서울 미아리에서 점집을 하는 김모 씨(48)는 『신정 연휴 동안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먼저 올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물은 뒤 자기 운세를 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아리에 있는 또 다른 점집의 조모 씨도 『어떤 사람은 외국 신문기사를 들먹이며 남북관계 위기설까지 묻는 등 나라의 앞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 고객층이 주부나 젊은 여성에서 IMF 직격탄을 맞고 있는 40~50대 남성으로 바뀐 것도 변화된 모습이다. 신촌 ㅇ철학원의 박모 원장은 『예년과 달리 찾아오는 이도 줄었고 그나마 찾아온 몇 사람도 대부분 기업간 합병으로 감원바람이 일 것을 걱정한 간부급직원들이었다』며 『이 사람들도 자기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IMF가 언제 끝날지부터 물어보더라』고 전했다. 유명 무속인 심진송씨(45)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2001년쯤에는 국운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99. 1. 5		

No.	151	작성자	차현주
제목	2005년 5월 미아리 점성촌 취재기	키워드	이도병, 역학인양성교육과정, 정비사업, 기독교
이야기	**오손도손 모여 앉은 '미아리 점성촌'의 40년 역사… 새로운 역학 트렌드의 파고에 조용히 늙어가나** 서울이 급팽창하기 이전 미아리고개는 서울의 관문에 해당했다. 비록 길이 넓지도 포장도 돼 있지 않았지만 1950년대 서울의 유일한 북쪽 외곽도로였던 미아리고개는 한국전쟁 때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었다.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과 서울을 지키던 한국군의 교전이 미아리고개에서 벌어졌고, 북으로 끌려가던 가족을 눈물바람으로 배웅해야 했던 곳도 미아리고개였다. 대중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도병씨 성공신화에 하나 둘 몰려 와** 동선동·돈암동과 정릉을 잇는 지금의 미아로, 곧 미아리고개는 본래 되너미고개(돈암현)로 불리던 곳이었다. 유래에 대해서는 분분하다. 병자호란 때 되놈(胡人)이 이 고개를 넘어 침입해왔다고 하여 되너미고개가 됐다고도 하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나가는 마지막 고개로서 끝에 이른 고개, 마지막 고개라는 뜻으로 되너미고개라는 설도 있다. 또는 고개가 몹시 가팔라서 허기가 질 정도이기 때문에 밥을 되먹는 고개라는 말이 변했다고도 한다. 여러 가지 설을 종합해보자면, 미아리고개 곧 되너미고개는 예로부터 경사가 급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아리에 점성촌이 들어선 것은 1966년 시각장애 역술인 이도병(64)씨가 이곳에서 복술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본래 서울에는 남산 기슭인 중구 양동 판잣집에 맹인 역술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남산에 살던 이도병씨는 집값이 싸고 전차 종점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미아리로 옮겨왔다. 1960년대 초 서울시는 미아로 확장공사를 벌이며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길 주변에 옹벽을 세웠다. 남북 방향으로 옹벽을 만들면서 동서 횡단하는 길을 그 밑으로 뚫어 자연스레 굴다리가 생겨났다. 이도병씨도 처음엔 이 굴다리 밑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고 '노점'을 시작했다고 한다. 옹벽과 굴다리로 그늘지고 으슥한 '낮은 곳'은 시각장애 역술인들을 보듬는 '인공 구조물'이 된 셈이다. 굴다리 밑에서 거리에서 점을 쳤던 이도병씨의 점이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꼬였다. 개업 2년 만에 이씨는 가게를 얻어 손님을 받았고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내 집 한칸을 마련했다. 당시야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특히 생계가 막막하던 시각장애인들의 꿈이야말로 자식들 안 굶기고 남들처럼 가르치는 일이었다. 제집 마련하고 4남매 고이 길러낸 이도병씨의 '성공신화'에 힘입어 갈 곳 없던 동료 역술인들도 하나둘 옮겨왔다. 밤 12시 통금이 있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름밤이면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미아리고개 도로에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라 한담을 나누는 풍경이 익숙할 정도였다고 한다. 고도성장기였던 70~80년대엔 미아리도 함께 호황의 분위기를 나눠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시각장애인 역술원이 100여곳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다. 현재는 1km 남짓한 도로 양편에서 70여곳이 영업 중이다. 대부분 점집과 살림집을 겸하고 있으며 역술인의 60% 정도가 자택을 소유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맹인역리학회의 학술이사이자 미아리고개에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심남용씨는 미아리고개에 점집이 번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점성학적인 풀이를 내놓았다. “미아리고개 너머엔 일제 때 조성된 한국인 전용 묘지가 있었다. 예로부터 사람의 영혼은 북으로 드나든다고 믿었는데, 서울의 북북동에 해당하는 미아리고개는 영혼이 다니는 길목이었던 셈이다. 북쪽은 황제의 별인 자미성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으로서 북두신앙이 기대는 방위다. 사람의 영혼과 운세를 다루는 미아리 점성촌이 성행하게 된 데는 이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결 과시하며 70여곳 영업 중

1984년 의정부에서 미아리로 옮겨온 이래 꾸준히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오순(64)씨는 “점집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딱히 단골이 없더라도 ‘미아리’만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다른 곳보다 벌이가 낫다. 또한 협회(대한맹인역리학회) 회원들끼리 함께 모여살기 때문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고 서로의 형편도 걱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점집이 많이 몰려 있는 신촌·압구정 일대와 달리 단결이 잘된다. 나름대로 정한 원칙에 따라 ‘상도’를 준수하는 것도 특징이다. 가령 미아리 점성촌엔 다른 동네 점집 간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사’ ‘처녀보살’ ‘도령’ 등의 문구가 없다. 송오순씨는 “처녀도 아닌데 처녀라고 하거나 영험한 초능력이 있는 도사라고 내세우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그런 표현은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앞 못 보는 사람들이니 손님이 금반지를 꼈는지 비단옷을 입었는지 알 길 없다. 단지 연월일시에 따른 사주풀이를 정직하게 말해줘야 한다. 역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실언을 늘어놓는 것은 금기시된다.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말해야지 허황되게 꾸미면 안 된다.”

이들의 단결력은 이익 보호 차원에선 더욱 철저하다. 미아리 점성촌이 소문이 나면서 몇몇 비장애인들이 점집을 열려고 했지만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역술인 대부분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가게를 임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년 전엔 열혈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찾아와 ‘예수 믿으라’는 피켓 시위를 여러 날 계속하다 역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이들을 내쫓았다고도 전한다.

100년 전 개화기때나 지금이나 ‘미신 타파’는 미아리 점성촌에 항상 들러붙는 비판이다. 90년대 말 성북구는 미아리 점성촌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미술대학에 의뢰해 점성촌 간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거리 상징물을 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나서서 미신숭배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 신문의 일갈에 성북구는 꼬리를 내렸다. 사업은 흐지부지됐고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를 옮겼다. 성북구의 한 공무원은 “기독교 신자들의 항의가 두려워 미아리 점성촌에 대해선 어떤 정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미아리 점성촌에 가면 들머리에 점성촌의 유래를 알린 간판이 서 있을 뿐이다. 가장자리를 오방색으로 꾸민 비슷한 간판들에서는 당시 중도 하차한 정비사업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정비사업, 기독교에 번번히 막히고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아가씨’들을 앞세운 유흥자본의 침식에 설 자리를 잃었듯, 미아리 점성촌 역시 타로카드를 비롯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운세풀이 등 나날이 새로

워지는 '역학 트렌드'의 파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 사주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니 딱히 돈 벌겠다는 소원이 있을 리 있나.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렇게 미아리에서 살다가 나중에 편하게 죽는 것만이 소원이지." '매화부인 예언가'로 20여년을 살아온 송오순씨는 얘기 끝에 한마디 보탰다. 미아리 점성촌 또한 연 2조~3조원로 추산되는 거대한 '점 시장'의 한켠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의 말은 미아리 점성촌의 오늘과 내일을 요약한 듯 보였다.

역학인 양성교육과정 마치고 '제2의 인생' 시작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직업 역술인들

화려한 꽃다발 세례나 학사모는 없었다. 그러나 졸업장을 받아쥔 이들의 얼굴은 환했다. 검은 선글라스 뒤 초점 잃은 눈동자는 여전히 표정을 담을 수 없었지만 입꼬리엔 미소가 어렸다. 고생스런 공부를 끝냈다는 기쁨이었다. 새로운 앞날에 대한 작은 희망이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흔히 '미아리 점성촌'이라 불리는 곳에 자리잡은 이 복지관에서 2월1일 작은 졸업식이 열렸다. 1년 동안의 역학인 양성교육을 마친 11명의 수료생들과 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졸업생들이 세상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떳떳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날이었다.

2004년, 절망의 바닥에서 잡은 끈

졸업생 문충성(36·서울 양천구 신월동)씨도 마음이 벅찼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던 그는 몇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져옴을 느꼈다. 조명등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계단에선 한발 내딛기가 어려웠고 눈가에 테를 씌운 듯 시야가 좁아졌다. 일상의 불편은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졌다. 전자부품 제조·수리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는 손에 익은 부품은 감으로 만질 수 있었지만 신제품의 경우엔 깨알만 한 글씨로 씌어진 매뉴얼을 일일이 대조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참다 못해 안과를 찾은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다. 망막세포변성증. 망막의 시신경세포가 장애를 일으켜 결국엔 시력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했던가. 하루하루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회사도 부도를 맞으며 문을 닫았다. 지체장애 2급에 실업, 시각장애까지, 모두들 월드컵의 흥분에 겨워 있던 2002년 그는 지독히 불행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동안 다리가 불편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다리는 목발이나 휠체어를 빌리면 되지만 눈을 잃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았다. 눈만큼 마음도 어둠이었다. 캄캄한 심연 속에서 버둥대며 하루에도 수백번씩 죽음을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절망이 바닥을 친 것이었을까. 죽을 용기가 없을 바에야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자기인정은 배움으로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몸이 불편해도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으로서도 밥 벌어먹고 살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닥치는 대로 정보를 구하던 중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 역학교육을 베푸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 이전엔 한번도 점을 본 적이 없었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맘에 들었다.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인지 철저히 겪어본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2004년 2월 용기

를 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역학교육'은 1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다. 매년 2월 신입생을 모집해 면접 심사를 거친 뒤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 처음엔 궁합·택일 등을 일러주는 <요집서>를 뗀 뒤 5월부터 사주학을 비롯해 산통·거북점 등을 통해 괘를 풀이하는 육효학, 작명·해명을 주로 하는 성명학을 공부한다. 마지막엔 희망자에 한해 독경을 할 수 있는 경문 공부로 마무리짓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역학교육은 뿌리가 깊다. 대한맹인역리학회가 역학교육을 시작한 것이 81년. 맹인들의 결사체이자 교육 양성소였던 '맹청'까지 거슬러올라간다면 조선시대 효종 임금대(1668)까지 닿는다. 1998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난 뒤엔 역리학회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아 복지관의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됐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시각장애인을 서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선 강의료를 한푼도 받지 않는다. 서울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방을 내주어 숙식을 해결하도록 해준다. 보통 정원 20명보다 1.5~2배 많은 사람들이 입학 신청을 하는데 장애등급·성별 등엔 제한이 없지만 중도실명자 중 점자·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 우대한다.

대한맹인역리학회의 1기 졸업생이자 이곳에서 사주학을 강의하는 심남용(56)씨는 "눈 잃은 아픔은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평등을 바란다. 나라에서 주는 생활지원금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가서라도 당당하게 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금 내고 사는 인생'을 살자고 누누이 강조한다."

"세금 내는 당당한 인생 살자"

부유한 사업가였던 심남용씨는 30살에 찾아온 포도막염증으로 시력뿐 아니라 재산도 명예도 한꺼번에 잃고 말았다. 코앞의 물체도 전혀 식별할 수 없게 된 무렵에도 자존심 강한 그는 한사코 '안질환자'라고 고집했다. 방황 끝에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을 인정한 뒤 '청송심씨 양반가에서 무슨 점쟁이냐'는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나서야 본격적인 역술인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20만원 보증금에 월세 2만5천원의 허름한 방에서 시작한 '철학관'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일요일이면 친구들을 불러서 책을 읽혀가며 공부를 했다는 그는 "당시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이 있었다면 고생을 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역학공부를 시작하지만 1년 동안의 공부만으로는 당장 '창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엉덩이에 풀 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술의 이치를 깨달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충성씨는 졸업과 동시에 역술인자격시험을 통과했지만 요즘도 강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으며 집에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 남의 운을 논할 정도로 공부가 깊어졌다고 판단될 때 철학관을 낼 계획이다. 드물긴 하지만 실력이 탄탄할 경우엔 역학인 양성교육을 받은 뒤 바로 개업을 한다. 문씨보다 한해 앞서 공부한 김선중(40·청암사주닷컴)씨는 졸업 직후 복지관 맞은편 미아리고개에 철학관을 내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복지관의 역학교육은 후학 양성뿐 아니라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문씨의 동기생인 정대흥(46·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함께 공부하고 졸업 뒤에도 운생계라는 '동창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

목을 다지는 점이 좋다"고 말한다. 그는 "보증금이 족히 5천만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미아리로 이사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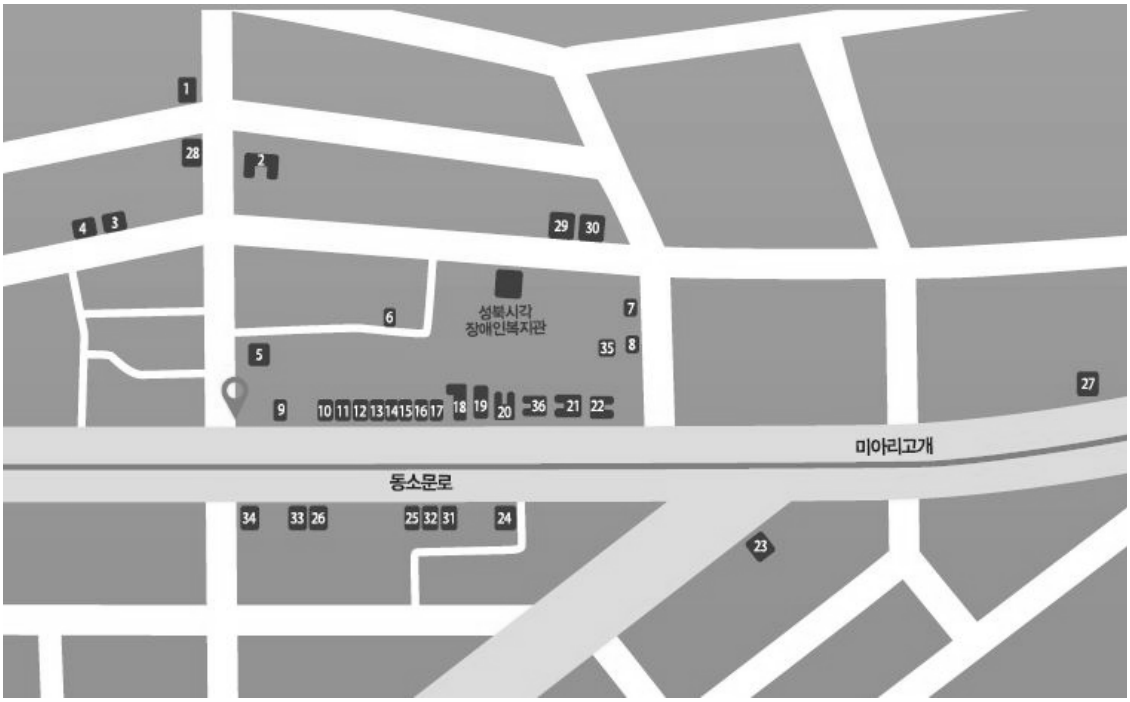
외로운 이들의 정서적 구심점

'몸값이 만냥이면 눈값이 구천냥'이라는 옛말이 있다. 남들이 만냥으로 살아갈 때 천냥에 의지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자기의 혹독한 운명을 인정하는 자기와의 투쟁을 격렬하게 벌이게 된다. 심남용씨는 "한번쯤 죽음 같은 절망에 치열하게 다가가본 사람들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주역의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이니 추우려니, 여름이니 더우려니 마음을 다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으로서 역술을 배우면서 또 하나 인생의 깨달음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원천자료	『한겨레 21』 2005. 2. 15

No.	152	작성자	차현주
제목	2014년 미아리 점성촌 지도	키워드	

北



1 **늘푸른철학원** _ 동소문로25길 21
2 **개나리여성역학사** _ 동소문로25길 18
3 **천도화여성예언가** _ 동소문로23길 8-17
4 **동양철학관** _ 동소문로23길 8-15
5 **청산철학관** _ 동소문로25길 6
6 **해당화여성점성가** _ 동소문로25길 6-9
7 **홍수성작명소** _ 아리랑로4길 76
8 **행운예언가** _ 아리랑로4길 80
9 **백일홍여성역학사** _ 동소문로27길 3
10 **다담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7
11 **김익중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7
12 **진심예언가** _ 동소문로27길 9
13 **현대예언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9
14 **유림운명철학원** _ 동소문로27길 9
15 **계명철학원** _ 동소문로27길 9
16 **태양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9
17 **은하수여성역술원** _ 동소문로27길 11
18 **모란여성철학원** _ 동소문로27길 13
19 **양정석희망철학원** _ 동소문로27길 15
20 **철원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17
21 **권윤자역학사** _ 동소문로27길 21
22 **춘암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25
23 **영빈여성철학관** _ 동소문로26다길 32
24 **김상철철학관** _ 동소문로28길 18-2
25 **계룡산예언점성가** _ 동소문로28길 10
26 **매화부인예언가** _ 동소문로28길 8
27 **소망젊은역술원** _ 동소문로 157
28 **개성작명소** _ 동소문로25길 17
29 **소원역학점보는집** _ 동소문로25가길 21
30 **천신암** _ 동소문로25가길 23
31 **영으로점봅니다** _ 동소문로28길 14-1
32 **천도암** _ 동소문로28길 12-1
33 **동인당** _ 동소문로28길 6
34 **새희망운명철학관** _ 동소문로26길 1
35 **흑진주여성역학사** _ 동소문로27길 25-5
36 **광명여성철학관** _ 동소문로27길 19

원천자료	조사

No.	15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송오순 역학사(매화부인예언가)**	키워드	

이야기

이 점집을 언제 차리셨어요?
이 집은 1988년에 차렸어요

그때 여기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열여섯 살부터 역술업을 했어요. 경기도 연천이 고향인데 부모님 슬하에서 있다가, 스무 살 때 서울로 나와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여기서 오래 정착했어요. 역술은 열세 살 때 처음 배웠어요. 마침 고향에 역술하시는 분이 마침 계셔서 거기서 3년을 공부했죠.

고향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천군 백학면 노봉리가 제 고향 마을인데 당시만해도 백 호 이상 모여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이었죠. 그 때는 제가 점을 볼 줄 아니까 동네에서 우물을 파려고 해도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는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 보러 나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서울에 학교도 있고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스무 살 때 아주 서울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서울서 사는 거죠.

처음 역학을 배우실 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점자도 있고 책도 많고, 아니면 테이프로도 듣고 컴퓨터 파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점자 책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물론 뭐 서울맹학교 이런 학교는 있었지만, 나는 시골서 학교도 안가고 이랬으니까 점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배웠어요. 뭐 가령 '갑자' 하면 '갑자' 이렇게. 선생님이 '갑자 을축'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하면 '병인 정묘' 이런식으로 따라서 외웠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되면 어제 배운 거 외워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땐 힘들었죠. 어리니까. 열세 살이면 뭐 애들인데 학교도 안 가보고 입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학교를 가는게 낫지 이걸 배우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안 배우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배워야 밥을 먹고 살지 학교 가면 못 산다 이거야. 그 당시 내가 맹학교 있다는 걸 알고 맹학교에서도 날 데리러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안 보낸 거야. 혼자 어린애를 어떻게 거기 보내냐는 거야. 맹학교 가서 안마를 배워서 하면, 옛날 말로 기생이나 마찬가지로 남자를 주물러야 되니까 가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학을 배우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집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하셨죠.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긴 맞아요, 지금 봐도. 우릴 찾아오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안마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랬냐 저랬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점을 배운 거에요, 그때.

형제들도 계십니까?

형제는 많아요. 칠남매나 되었으니까. 왜 제 이름이 오순이냐 면은 다섯째 딸이기 때문에 오순이에요 다섯 오(五)자, 순할 순(順)자.

서울에 오신 게 스무 살때였으면 바로 점집을 차리셨나요?

예. 그때 바로 차렸죠. 천호동에. 그때만해도 천호동이 아주 촌이었어요. 굽은다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방을 얻었어요. 내가 그동안 번 돈에다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서 방을 얻어서 영업을 시작했죠. 천호동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촌이어서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비만 왔다 하면 장화 없이는 못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로 이사를 갔냐면 우리 언니가 거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 사는 근방으로 보내야 안심이 돼서 거기로 보낸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촌이다보니 영업이 잘 안 되더라구요.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청량리로 이사 왔어요. 청량리에 살다가 또 종로에서 살다가, 의정부에도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오시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어선가요?

아, 계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고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지만 그때도 미아리 시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아봐야겠다 하고 왔죠.

오실 때 자리를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에 자리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기 물론 맹인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맹인들이 집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잘 안주고 근데 여기만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오기가 쉬웠죠.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 말하자면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습니까?

잘 될 때는 1, 2월도 되고. 또 학생들 수능시험 볼 때 손님이 많이 찾죠.

손님들이 어떤 것을 자주 물어보나요?

사주를 많이 봐요

손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젊은 층은 주로 학생들이 진로를 묻기 위해서 오고. 입학할 땐 또 어느 학교가 좋은가 그거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자기가 사주를 봐가지고 진로를 문의하려고 많이 오고 그렇죠. 또 사업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가 문의하러도 오고. 또 정치하려는 사람은 정치하면 자기가 출세를 하겠나 이걸 물어보러도 오고 그렇죠.

다들 만족해서 가시나요?

그래도 제가 사주는 잘 본다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이 와요. 우리 집에서 사주 보고 간 사람이 아 거기 아무 댁 가면 사주 잘 본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손님이 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와서 보면 과연 사주를 잘 본다고. 그런 손님들이 단골이죠.

미아리점성촌만의 특색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만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은 강남이고 홍대입구고 가면 사주카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으로도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니까 보지 않고도 그 사람 사주를 맞춰주는 거, 그것이 우리 실력이고 자랑이죠. 사주 보면 그 사람 성품, 직업 이런 거를 거의 파악을 하니까……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있죠. 눈으로도 못 보고도 알 수 있다는거. 눈뜬 사람은 눈으로 그 사람 차림새 같은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때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못 보고도 맞추니까. 우리 미아리의 자랑은 그렇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나요?

예. 일본인들이 가이드 데리고 많이 옵니다. 관광 왔다가 찾아와요. 미아리 가자 이런데요. 가이드가 여기 데려다주고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게 하는데, 주로 우리 집은 일본 손님들이 와요. 많은 편이에요. 나는 뭐 어디 광고도 안했지만 여기가 길에서 잘 보이니까 일본인들이 간판을 보고 간판이 아주 맘에 든다고 들어가자고 한 대요. 그렇게 와서 보고 또 아주 정말 흐뭇해 해요.

일본인들도 물어보는 것은 우리랑 비슷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더라구요. 자식 걱정 그런 게 많죠. 사업 관계, 연인 관계 직업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달라져요. 오늘와서 보면 그게 어떻게 되고, 내일와서 보면 또 다르고. 그렇지만 사주는 안 바뀌죠, 일평생. 점이라는 건 일수 좋은 거, 한달 좋은 거, 일년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거에요. 이게 점이에요.

선생님만의 점 보시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거에요. 이게 산통이라는 거에요. 이걸로는 산통점(육효점)을 봐요. 보시면 여기에 산가지가 8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에 한 금부터 여덟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와서 봐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산가지를 세 번을 빼내요. 그리고 그 금을 세어 합계를 해요. 이걸 작괘한다고 해요. 작괘라는 건 괘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산통점은 사주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거에요. 우리밖에 모르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통이 꽤 깊겠네요?

아, 우린 깊죠. 중국의 주역에서 이게 나온 건데, 먼 옛날부터 이 산통으로 점을 쳤으니까 오래 됐죠. 우리 맹인들이 점을 친 건 아주 오래 되었어요. 역사가 깊어요.

선생님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그 분도 못 보는 분이었는데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그 분은 시골서 산통점만 배워서 사주같은 건 모르고 순전히 육효 이런 점만 하시던 분이었어요.근데 이 점이 맞아요. 아주 신기하게. 이거는 꼭 찝어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일수를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러 가겠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일각에서는 점을 미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미신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미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순전히 주역에 기초한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를 해서 손님한테 괘를 내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면 좋다, 서쪽으로 가면 좋다 이런 게 점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앞으로 점성촌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점은 미신이 아니고 철학이고, 이거는 심리학,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크게 해야 돼요. 역학은 정말 다른 학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학문이죠.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원천자료	인터뷰

No.	15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심남용 역학사(청산철학관)**	키워드	

이야기

아까 선생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어떤 단체를 맡고 계시는지요?

제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직능별로는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와, 대한맹인침술협회, 대한맹인역리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맹인역리학회의 전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장소는 이 동네에 있고, 상호는 청산철학관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술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서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역술은 우리 나이로 서른두 살 때 시작했습니다. 벌써 33년 되었네요.

처음 시작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계동에서 시작해서 한 달만에 이 동네에 왔으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유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역사에 대해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 맹인 역술업의 역사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만, 인류는 제정일치에서 제정분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제정일치라는 것은 제사와 정치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왕검도 제사장이자 통치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정 분리가 되죠. 그러면 제정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우로 말하자면 부족국가 시대에 제정이 분리되죠. 그런데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이 때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한 중에 마한에서 제를 담당했던 제정관(祭政官)이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도 제를 지내는 것은 맹인이 했다는 기록이 있구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나 예나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인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한 쪽이 퇴화하면 한 쪽이 발달하는 것이 있겠죠. 다시 말해 시각이 퇴화되면 정신세계가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신세계가 깊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백선생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을 만나보셨을텐데 시각장애인은 영적인 깊이가 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에 들어와서 신라시대 첨성대와 마찬가지로 천지 우주의 이치를 관찰하는 기관인 태복감을 두었습니다. 이 태복감에 시각장애인이 벼슬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에 보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음양학(陰陽學)과 역학(易學)과 연결되어 국가의 녹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올해는 풍흉, 홍수, 온

역은 돌지 않겠느냐, 외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국가의 중대사들을 다 음양학 역학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 태복감이고 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이조시대에 와서는 태복감이 관상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계에 유래가 없는 특이한 제도가 생깁니다. 세계 최초의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명학(明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제도가 고려 광종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조시대에도 과거제도는 넘어오죠. 명학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과거시험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그야말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세계가 깊으니까 역학, 철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지요. 또 앞을 못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사적인 비밀, 승진, 역적질 성공 여부 등을 물어봅니다. 영화 《관상》에도 점쟁이 들어가죠? 만약 보는 사람을 점쟁이로 데려다 쓰면 발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맹인들이 정치 이면에서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는데, 이조로 바뀌면서 서울로 수도가 바뀌잖아요. 수도가 바뀌니까 맹인들도 개성에서 서울로 넘어옵니다. 옛날 서울에는 명통방(明通坊)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의 서북쪽. 거기에 명통사(明通寺)라는 절이 있어어요. 목탁 두드리는 절이 아니라 도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맹인들은 옛날에 머리를 깎았지만 내면으로는 도사야. 그래서 도승(道僧)이죠. 도사중이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명통사입니다. '절 사(寺)'자라 해서 부처님 모시는 절이 아닌 것이죠.

이 명통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모아다가 가르쳤던 겁니다. 음양학, 천문학을 일단 가르쳐야 과거시험도 볼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명통사에 쌀도 주고 콩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가 언젠가 시각장애인들만 과거를 보는 명학제도가 생겨서 고종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맹인들이 합격해서 벼슬하면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벼슬 중에 봉사(奉事)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참봉 위에 봉사가 있었어요. 봉사는 눈 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었어요. 이게 고유명사인데 점차 보통명사가 된 겁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시각장애인을 썼으니까는 어전회의에서 보통 신하를 '경(卿)'이라고 부르는데, 시각장애인 신하를 부를 적에 그냥 '경'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신하는 눈을 못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신하를 부를 때는 '소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소경도 시각장애인 신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화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외국말로는 시각장애인하면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무당이나 아는 척하는 중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대문 안에서는 맹인이 아니면 점을 못치게 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다 장애인 복지정책이었죠. 몇 백 년 전에 이미 시행했었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고 역사입니다.

갑오경장 때 신물결이 들어오면서 명학제도도 없어지고 관상감도 폐지됩니다. 관상감 예하에 통명청(通明廳)이라는 맹인들의 조직 기관이 있었지요. 원래 통명청 자리는 지금 중부경찰서 자리에요. 김모 판서의 집이었는데 국가에서 몰수했다가 맹인들에게 넘겨주었지요. 지금 재동 중앙고등학교 자리는 17대 효종대왕의 아드님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분의 사저입니다. 맹인 왕자의 집인 거죠. 왕자라고 맹인 안 되라는 법 있겠어요?

통명청 최고 벼슬을 지중추(知中樞)라고 했어요. 지중추가 뭐냐? 옛날 명성황후 민

씨가 점 보는 것 좋아했던 것 알죠. 그거 다 맹인들이 한 거에요. 민씨가 지중추를 불러 천지신명께 기도하게 시키고는 했죠. 세종대왕도 당뇨가 심해서 장님이 된 사람인데, 그 현명하신 분이 당이 아주 심해서 안맹(眼盲)이 되었죠. 세종대왕 병 나으라고 맹인들이 와서 경을 읽게 했어요. 기우제도 통명청, 지중추가 했었고. 이렇게 맹인들의 조직이 있고 국가의 녹을 받고 살았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오경장 때 날라가고 말았단 말았어요. 다 없어지고 한일합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들어와서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폅니다. 대표적으로 충알 맞은 게 우리 장님들입니다. 대한민국 민족 문화는 으레 점치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안택경도 하고, 병 나면 축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문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시작장애인 재산을 몰수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총알받이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제가 꿩대신 닭이라고 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이라는 맹인자활기관을 세웁니다. 지금 종로구 신교동 국립맹학교 자리입니다. 만들어서 맹인들에게 침하고 안마를 가르쳤어요. 새로운 맹인들을 데려다가 안마 가르치고, 침 가르치고. 안마가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가 민족문화말살 정책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1925년에 조선역리맹인대성교가 생겼어요. 요것이 과거의 통명청이죠. 흩어졌던 맹인들을 다시 규합해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선이 대한으로 바뀌고 역리맹인대성교가 역리협회로, 다시 학회로 바뀌면서 1971년에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육칠십 살이 넘은 맹인들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다 점칠 줄 알아요. 옛날에는 어려서 장님이 되면 무조건 점부터 가르쳤으니까. 그게 한민족의 문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맹인들은 어디든지 뭉쳐 다닙니다. 뭉쳐 다니는데 6·25사변 나고는 부산 영도다리 밑에 뭉쳐 있다가, 서울 수복 이후에는 남산 도쿄호텔에서 야외음악당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양동, 도동이 있어요. 야한 말로 하면 똥치굴이야 창녀촌이란 말이지. 거기가 방값이 쌌어요. 그래서 거기가 쭉 점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때 양동, 도동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암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미아리고개는 2차선 도로였어요. 원래 높이도 저 육교 높이까지 있었어요. 박정희 때 미아리고개를 깎아내린 거지요. 지금은 고개 오른쪽에 성신여대가 있는데 원래 거기도 다닥다닥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그때만해도 왼쪽 오른쪽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옛날 귀신나오는 영화보면 다 미아리고개에요. 그래서 여기가 집값이 싸고, 고갯마루 밑이고, 시내도 가까워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모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비용 저렴해, 귀신이 나오니까 점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 이런 환경이니까 점집들이 들어서기에 좋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 깃발을 들게 된 게……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 먼저 와서 영업을 했는데 잘 되는 겁니다. 한 회원이 들어와 영업이 잘 되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돼서 여기가 집성촌이 된 겁니다. 6·25 또 이후의 개발, 4·19혁명 등 민족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남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많은 때는 200집까지 되었어요. 미아리고개 주변에 다닥다닥 모여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점을 쳤는데. 1994년 도로확장 때 저쪽을 다 철거해 버린 거에요.

문화라는 건 각주구검 식으로 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뀐단 말이지요. 옛날 제일 좋은 것은 벼슬이고 제일 낮은 것은 장사꾼, 공돌이, 상놈이었지. 쟁이 붙은 것은 다 천민들 아니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점을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맹인

	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점을 쳤고 일부 무당이나 간섭했는데. 어느날 IMF가 터진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실업자가 대량 생산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돈 버는 게 귀천이 없어졌어요. 대학 교수, 회사 사장도 점쟁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점쟁이는 맹인들이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만신 무당이나 하는 직업이었는데, 엘리트들이 점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 1998년 IMF 때문입니다. 역학은 하이클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책 몇 번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역서가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맹인들이 직업을 많이 빼앗기고 이렇다보니 영업이 잘 안될 거 아니우. 인터넷도 발달해서 컴퓨터만 다다닥 두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점 볼 수 있잖아요. 손님이 이래저래 계속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 쪼그라들어 옛날 200집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40~50집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돈암동의 변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 얼굴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오로지 점을 봐서 점괘 나오는 대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내가 눈을 본다고 하면 얼굴에 개기름이 끼고 옷을 보니까 명품만 입었어. 그럼 부자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점치는 사람과 모르고 점치는 사람 중에 누가 정확할까요? 이것을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앞 못보는 사람한테 가면 점괘 나오는 대로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눈치가 90%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근데 앞 못보니까 에이! 답답해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으레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정도로, 점치는 사람이 머리에 비듬이 버글버글하고 이가 기어다녀도 '아'하면 '아'인가 보다 '어'하면 '어'인가 보다 했었대요. 옛날에는 그랬었대요. 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명을 감정하는 법은 세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이치(理致)로서 접근하는 법, 수(數)로 접근하는 법, 상(相)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은 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의 개념은 숫자. 그러니까 1, 2, 3, 4 같은 산수로 보면 안되요. 1은 동그라미, 2는 세모, 3은 네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원이 양이가 되고 양이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괘가 되고 팔괘가 64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 수의 개념입니다. 산통에서 점괘를 뽑아서 보는 것도 다 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산통에서 점괘를 뽑아서 보는 것에 월등해요. 이 방면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원천자료	인터뷰

No.	155	작성자	백외준
제목	**홍수성 역학사(홍수성작명소)**	키워드	

이야기

예전 미아리점성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차만 한 대 지나가도 먼지가 확 일어나서 아주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그럭저럭 있고 여기 일대가 집 값이 싸니까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엔 한 60여 가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0여집 밖에 안남았죠.

예전에 성북구에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점성촌이라는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줬었고, 내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진영호 구청장하고 간판사업을 진행했었죠. 철학관 간판들이 난잡하게 되어있어서 오방색으로 간판을 통일해서 바꿔 달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흐지부지 되어서 무질서하게 변했어요.

선생님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태어난 곳은 충북 제천이고, 시력은 다섯 살 때 잃었어요. 요즘에는 백내장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삼눈이라고 했었어요. 눈에 흰 것이 뒤덮여서 결국은 못 보게 됐죠. 아홉 살 때쯤 여주로 이사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죠. 열아홉 살 때부터 서울에 많이 오가다가 스물두 살 때 서울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언제부터 점을 봐주기 시작했습니까?

열일곱 살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와서 제대로 간판 달고 한 것은 스물두 살 때부터였어요. 서울에 처음 자리잡은 곳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건너편 쪽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답십리 들어가는 입구, 청량리 경찰서 뒤편, 보문동하고 삼양동에서도 살았어요. 여기 점성촌에 들어온 것은 90년도예요.

혹시 6·25때 기억 나시는게 있나요?

50년이면 내가 10살때인가? 전쟁 한 복판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뻔 했어요. 총알이 비 오는 듯하는데 한 8자 되는 한옥 방 하나에 20여명이 들어가서 피신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 당시 여름에는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전쟁 난지 몰랐고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하는 것만 알았어요. 겨울에 중공군들이 들어와서 차가 없으니까 낮이면 민가에 은신해서 있다가 밤이면 나무 썰매 같은 것을 만들어 끌고 가 이포에 있는 창고에서 벼를 실어 근처 계림리에 쌓아 놨어요. 그걸 계속 끌고 갈 판이지. 근데 내일 쯤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민간인 복장한 사람들이 와서 내일은 여기서 전쟁이 나니까 피신을 하라고 일러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새벽같이 피난 가는 도중에 큰 신작로를 보니 통신대가 전화줄을 늘리면서 들어오고 그 뒤에 미군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산에 의지해 있다가 총을 쏘더라고. 미군들이 뚝방에 엎드려서 그쪽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데, 중공군은 실제로 가깝게 있는데 미군들은 멀리 있는 칠읍산을 향해서 대포를 쏘더라고. 그러곤 미군들이 이제 됐겠지 하고는 곡수라는 곳을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공군들이 바로 앞에 있는 산에 진을 치고

는 미군 부대를 공격해서 그 당시 미군 1개 사단이 망가지다시피 했지. 헬리곱터가 와서 식품 같은거 보급도 해주고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고. 미군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중공군들이 용문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미군 비행기가 내려 와서 공격하는 바람에 중공군도 1개 사단 정도가 몰살당했지. 전쟁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서울에 오신 때가 1950년대 중반쯤인데 당시 서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4.19 이후 이기붕이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질서들이 잡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계천변, 성북천변, 보문천변에 전부 하꼬방들이 들어섰었죠. 거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청량리나 종로 3가, 남대문, 영등포쪽에는 창녀들이 많았어요.

역술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들려 주십시오.

기억에 남는 것 많지요. 그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독경이지. 독경은 삼일경이 있고 일주일경이 있고 오래하는 건 백일 동안 경을 읽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대게 환자 때문에 하는 경이라, 삼일경이면 이틀 동안 경문을 읽고 사흘째 가서 그 귀신을 가둬요. 어떻게 하냐면 대꾼, 대 내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사람은 신장대고 한사람은 사귀대라고 그래요. 사귀대라고 하는 것은 짚으로 한 1미터 정도 가는 새끼를 꼬아서 만드는데 보통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쳐져있어요. 그것을 물푸레나무 같은데다가 매요. 그럼 경 읽는 사람이 '사귀야 귀신 잡아와라' 하면 신장대가 귀신을 잡아서 사귀대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땅바닥에 쳐져 있던 것이 빳빳하게 일어나서 한들한들 흔들려요. 그럼 신장대가 빨간색 파란색 헝겊을 콩알만 하게 만들어서 사귀를 그쪽으로 옮겨요. 그럼 그게 손바닥에서 팔팔 뛰어요. 그 다음에 소주병을 옆에 놔두고 경 읽는 사람이 무서운 경문을 읽으면 그것들이 소주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병을 마개로 막고 땅에 묻어요. 그렇게 귀신을 가두면 환자가 나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 역학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독경들도 안하니까 시골에 대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택고사를 3년에 한 번 씩 하니까 성주대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대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향에도 가보니 없더라고요.

따님이나 손주님들 이름도 직접 다 지어주셨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름에는 무관심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우리 손자손녀애들은 내가 이름을 다 지어줬지. 작명이라는 것이 또는 사주팔자라는 것이 옛날에는 보통 말하길 사주팔자 속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 사주라는 것이 연월일시를 가지고 보는 것인데. 화수목금토 오행으로 보는것이거든.

예를 들자면 화일주(火日柱)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화끈해. 여자라면 아주 상냥하고 싹싹하고. 근데 화끈한 것 까지는 좋은데 성격이 급하니까 침착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겨야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실천에 옮기려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

또 금일주(金日柱)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저 잘났다고 하는게 있지. 똑똑해, 쉽게 말하자면. 그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잘 존중해주려 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성격이 있고.

토일주(土日柱)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 그 이유가…… 세상만물 모든 물건이 불에 타고 썩고 그러면 흙으로 다 가게 되어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

	이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단 말이지. 근데 꼬임에 잘 빠져. 남이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 꼬임에 잘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에 오행 중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보통 말하길 인간오복 그러지. 오행을 다 갖췄으면 인간오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 오행 중에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전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뭐가 없어서 그게 병이다 할 때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오행을 넣어 줘야해. 예를 들자면 사주팔자에 수(水)가 없다 하면 물 수부에 있는 삼수변같은 것을 넣어 줘야하고 금(金)이 없다하면 쇠금변 같은 것을 넣어 줘야하고. 그래서 사주팔자에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것만 채워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작명법 상의 획수를 맞춰가지고 어떠 어떠한 획수로 해야 좋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맞춰 줘야해. 그래서 작명이라는 것을 요새 젊은 사람들 학원 나와 가지고 그냥 수리, 오행만 맞춰가지고 그냥 이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주신다면? 인생상담 이라고 할 수 있지. 역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행한데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느냐가 중요한 역할이죠. 올바른 지도. 이것이 목적이에요.
원천자료	인터뷰

No.	15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이미경 역학사(은하수여성작명사주역술원)**	키워드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북문화원에서 왔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미아리고개 점성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성함과 연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은 이미경이고요. 나이는 46년생입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경상북도 풍기고 여섯 살에 실명을 했어요. 실명원인은 옛날에는 삼이 젖는다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하얀 좁쌀만한 점이 커져서 눈동자를 덮는 것이 백내장이에요. 전쟁 직후 시골이라 병원자체도 없었고 갈 마음도 못 먹었어요. 전쟁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어머님 그리고 저희 4남매가 같이 살았죠.

그러면 학교는 들어가셨나요?

시골에서 맹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열서너 살 때 역술공부를 했어요. 지금이야 시각장애인들도 고등학교까지 전문학교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대학도 안받아줘서 못갔어요.

시각장애인은 안 받아 줬나요?

네. 지금은 대학에 대학원도 많고 직업도 많죠.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오직 역술, 쉽게 말하면 점술하고 안마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세 살 즈음 역술공부를 독선생님께 배운 다음에 열일곱 살부터 독립해서 식구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로 올라 온 이유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남매 데리고 사시려니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외조부께 허락을 맡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올라와 살다가 지금 여기 동선동에 살게 됐네요.

그럼 염리동에 오셔서 점집을 차리셨나요?

네. 62년도에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옆에다가 차렸지요. 염리동에서 한 1-2년 있다가 홍제동하고 남산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리로 왔어요. 종로3가 익선동에서도 한 2년 정도 살았고... 이사를 몇 번 했죠.

여기로 오신건 몇 년도 입니까?

여기에 온건 74년도 였어요. 남산에 있다가 이리로 왔죠.

이리 오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서울에 중심지는 종로지만 그래도 남산만 해도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바로 앞 차도

에 차도 많이 다녀서 애기들 키울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게 됐지요.

점집을 차리실때는 어떻게 상호를 내시고 주위에 홍보를 하셨나요?

열일곱 살 무렵 제가 직접 은 은, 물 하, 물 수자를 써서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물 속이 깨끗하고 하얀 차돌이 물 깊은 곳에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은처럼 물처럼 깨끗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리라 생각에 지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알리는 것은 가까운 데에만 가족들이 전단지를 돌렸어요. 시골에서 와서 서울 지리는 동네 외에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역사가 오래된 이름이네요. 영업이 잘 됐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역술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삼십 대 계속 잘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나이에 시작하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손님이 있으면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누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가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문을 두들기니 지쳐서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당시 제가 홍제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올케가 저보고 누가 찾아왔으니 아가씨 나가보라 그래서 나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집 주인아주머니가 내가 너무 못 먹고 있어 안쓰럽다고 달걀 두 개를 깨서 참기름 한방울 떨어트리고 소금 살짝 뿌려서 저를 먹이셨어요. 전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니 억지로 먹었죠. 그런데 그 집이 옛날 판자집이라 무허가 였던가 봐요. 그게 철거가 되면서 그 분 사는 곳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로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못 갚고 가장 감사했던 분이 그 분인데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을테니 찾을 길이 없더라구요.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에게도 그 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 오신 손님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은?

각계각층에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봐줄 때는 그냥 손님의 생년월일시, 사주 넋사 기둥주 연월일시는 따라다니는 토이고. 토를 제외하고 팔자라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봐주면 그걸로 끝이지 기억에 두거나 하는 건 없는데 나중에 손님이 와서 가끔 얘기해주는 분은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손님이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다 실패하고 어디 오갈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저한테 들렸데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기억이 안나죠. 손님이 기억하고 얘기하니까 들었을 뿐이지. 이 시간에 남쪽으로 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남쪽으로 가라 자살할 생각 말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나중에 다시 말할 때가 있을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무조건 남쪽으로 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죽으려는 사람이 뭐 먹기나 했겠어요. 어느 공원이 하나 있어서 공원 벤치에 앉았데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걸길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도움을 주어서 처음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잘돼서 지금은 대성공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선생님한테 안 들렀으면 그냥 내가 죽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들른 것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고 오는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밖에도 요즘은 결혼했다가도 쉽게 헤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지 쉽게 헤어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살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고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만큼만 참고 견디면 잘산다. 좋은일이 올거다. 편안하게 부부 금실

	도 좋고 집안이 평화롭게 잘 산다 그래서 참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남편이 위해주고 그 때 안 헤어진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게 오면 뿌듯하고 그렇죠. 손님 중에 외국인들도 있나요? 외국인들이 온 적도 많죠. 일본인도 오고..중국인이나 미국인도 오고요. 그네들은 1:1로 대화가 안되니까 통역사를 데리고 오죠. 우리 식구들이 옆에서 보면 통역사가 잘 맞는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죠. 그렇게 많이들 다녀가셨어요.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제가 직업에 여념을 한다거나 신경을 쓰는게 아니고 성북복지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며 주 5일을 여가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나가는 손님은 거의 못본다고 보고요. 아는 손님이 추천하는 손님과 예약하고 오시는 단골 손님 위주로 손님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전용도로로 다니라고 유도블럭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유도블럭만은 남겨놓고 주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배려심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천자료	인터뷰

No.	15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이도병 역학사(철원철학감정소)**	키워드	

이야기

선생님께서 여기 처음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싶은데요,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고석정이 있는 강원도 철원 동송읍. 고향에서 십리 떨어진 곳에 노동당사, 백마고지가 있어요. 옛날 53년도에 밤에는 중공군이 차지하고 낮에는 미군이 차지하고 그랬죠. 백마고지에서 전쟁해서 거기서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 철원 동성읍에 오덕 1리에서 살았거든요. 옛날 할아버지 적에 사방 10리를 남에 땅 안 딛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땅이 많았죠. 그러다가 46년도, 내가 6살 때 공산당에 몰수 당했어요. 할아버지는 연천까지 쫓겨났었지. 다 몰아내고 토지개혁해서 한 집에 열두 마지기 2400평씩 배당을 했어. 배당을 하고는 저희가 소작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전쟁을 해야하니 세금을 만들어서 현물세를 물렸죠. 그래서 소작료에 반을 더 뺏어갔지.

나는 2살때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이북에서 수정체가 터져나와가지고 한눈이 그러더니 양쪽이 다 그렇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수술을 못한다고해서 11살에 피난 나와서 신갈 피난민수용소에 있었어요. 휴전되고 53년도 11월, 열세 살 때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안과를 찾아갔더니 미군이 와서 보고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방동에 있는 미군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지금 빛은 보여요. 그러니까 일찍만 수술했으면 볼 수 있었지.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안다니고 독학으로 독선생 밑에 들어가서 역술을 배웠죠. 점자도 그 선생님한테 배운거죠.

선생님 6·25때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열 살에 6·25가 났는데. 그 전에 탱크가 철원에 많이 집결해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 땅이었으니까. 집결해있다가 한 달 전에 포천쪽으로 내려갔어. 거기 집결했다가 포천에서 내려 밀은거지. 그때는 이북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의정부를 쳐들어갔다.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했다. 7월 5일 평택, 대전에 내려갔다'고 소식을 들었지.

1·4후퇴 때는 미군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물러가고 중공군이 나왔지. 중공군이 민간 집에 들어와서 방 있냐고 물어보는거야. 말도 마굿간에다가 마음대로 매어놓고 마차도 마당에 세워놓고. 한 사흘 있으면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싸우다 나중에 철원 수복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우리를 신갈리 쪽으로 실어냈죠.

그때 열한 살때 나와서 휴전 되고 54년도 봄에 철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몰수당한 땅들 찾아서 싸게 팔았죠. 팔고 부모님이 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열다섯 살때부터 배웠죠.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만 서울에 와서 배웠어요.

당시 서울에 오셔서 처음에 점집을 차린 곳이 어디신가요?

60년대에 처음 차렸는데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남산에도 조금 있었고 굴다리 밑에서도 66년 4월부터 9월까지 있다가 68년도에 이쪽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손님을 봤죠. 처음에 한 5년 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산이 개발되면서 헐리니까 집 값이

싼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이 동네에서 사글세로 살다가 그 다음엔 전세, 그 다음엔 헌 집을 사서 내가 다 고쳤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니까 이사를 못가고 여기에서 계속 사는거죠.

그때부터 계속 자리 잡으셨으면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손님이 많았을때는 어떤 때였나요?

손님 많을때 70년도 쯤에 70~80년도 사이에 좀 괜찮았고, 80~90년도 사이가 제일 좋았죠.

60년대 도심이 개발돼서 여기로 오신거잖아요. 다른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나요?

다른쪽으로 간 사람도 있죠. 영등포, 보문동, 용두동, 서대문 등등.

그러면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유명해졌다기보다도 여기가 전차종점이었거든. 전차가 을지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정릉, 삼양동, 우이동 이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전차로 갈아타고 을지로로 나갔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간판을 보고 한 두 사람씩 오는거죠.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대중 없죠. 예를 들어 내가 송사를 하는데 이길까 질까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서 변호사를 사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어디가서 해라 그랬더니 송사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니까 또 보고. 또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런 것도 다 보고.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둘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가씨 혼자 와서 볼 수도 있고. 남자도 와서 결혼하는데 이 아가씨랑 살아도 되겠어요? 서너 아가씨 연월일시 알아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웃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무슨 병이겠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취직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취직 같은거 보러 오는 사람들 있죠. 취직 보러 오는거, 또 부모님이 애 데리고 오면 어느대학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혹시 실업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너무 한숨 쉬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더 배워서 시험을 봐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된다, 젊은 생명이 다 살아야지 왜 생명을 끊느냐 그랬어요. 올바로 가르쳐 줘야지. 자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개 손님들이 그런 고민들은 절박하잖아요. 절박한 고민에 답을 주시기가 떨리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떨리는 건 없죠. 나오는대로 말해줘요. 사주, 오행을 듣고 이야기해주는 거지. 이건 신이 아니야 철학이야 철학. 학술적으로 얘기하는거야. 이치적으로.

예전 미아리고개 풍경 생각나는게 있으세요?

	미아리고개는 옛날에는 되너미고개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그 전에 서낭당이 있었어. 한 5년 전 쯤인가 성북구에서 서낭당 없애고 아파트를 지었어. 되놈들이 여기 넘어올 때 서낭당에서 말발굽이 붙어서 못 넘어오고 저 종암동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되너미고개라고 해요. 여기가 최대 많았을 때는 60~100가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00가구 못됐고 한 80세대 됐어요. 지금은 서서히 없어지고 한 50세대 될 거예요. 입주를 새로 하시는 분들중에 젊은 사람도 많이 입주를 많이 하나요?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것보다 안마를 먼저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후에 이걸 배워서 하니까 좀 적죠.
원천자료	인터뷰

No.	15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윤병관 역학사(늘푸른철학원)**	키워드	

이야기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열여섯 살 때부터 한 1년 배운 뒤에 열아홉 살 때에 개업했어요. 햇수로는 40년, 만으로는 39년 되었네요. 배워가면서 독학을 했어요. 남의 인생을 논할려면 무한정 공부해야죠. 처음 시작한 것은 미아리고개 밑에서 했고 여러 번 옮겨다녔어요. 미아리 · 면목동 · 무악동 · 청량리 · 종암동 등지에서 했어요. 종암동에서는 옛날 우신약국 뒷편에서 했지요. 여기에 개업한 것은 2002년 6월 9일입니다. 한창 월드컵할 때였죠.

상호명은 무슨 뜻으로 지으셨어요?

'늘푸른'이라는 게 의미가 좋잖아요. 사람이 푸르게 산다…… 좋잖아요. 요새는 옛날보다 경기가 못해요. 서민경기가 좋아야 영업이 잘되거든요. 손님은 다양해요. 단골로 오는 사람도 있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요?

하루는 애를 잃어버려서 애를 언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미아보호소에는 안 가보셨어요?" 하니까 바로 그날 미아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또 한 번은 어떤 어머니께서 딸 혼인 때문에 찾아 왔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딸이 있는데 혼인을 못 하고 있다고 온 거에요. 그래서 그 딸 사주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살이 있어서 혼인이 안되는 거다 말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반신반의로 듣고 갔지. 그런데 다음 날 또 찾아왔더라고. 자기 딸한테 점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날 딸이 꿈을 꾸었대요. "엄마, 이상한 꿈을 꾸었어. 내가 목욕하는 데 땟국물이 나오는데 어떤 맹인이 저 앞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땟국물이 맑은 물이 변해서 나왔어"라고 했다는 거야.

또 어떤 손님은 여동생이 여동생이 누구한테 살해 당했대요. 그래서 범인이 언제 잡힐 거냐고 물어보러 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곧 잡힐 거니까 동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예방이나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 그리고 며칠 있다 범인이 잡혔다면서 찾아왔더라고. 그런 건 신기하지. 많이 있는데 다 기억은 안나요.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점 공부를 개인지도로 1년 받았어요. 점 공부하는 길은 두 가지인데 개인지도, 복지관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역학만 해서는 안돼요.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시사문제라든지 다 알아야 해요. 손님하고 점 봐주는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되어야죠. 아무리 사주를 잘 봐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게끔 이야기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야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 승진 시험보려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경찰 계급을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그래야 대화가 원만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요. 주로 TV, 라디오, 시각장애인용 점자 잡지 등을 봐요.

	외국인 손님도 오나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미국, 캐나다 사람들도 와요. 미국 사람들은 양력을 대면 음력으로 바꾸어서 점을 보지요. 외국인들이 소문 듣고 가보겠다 하면 여행사에서 통역, 가이드 붙여서 데려다주죠. 똑같이 사주 봐요. 맞든 안 맞든 그대로 이야기해주죠.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인생 살아가는데 참고해라, 보탬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해주죠. 미아리점성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역리학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죠.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손님들이 왔는데 이렇더라, 아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죠. 역리학회의 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 과장되게 말하면 안된다 등등 고객을 상대 할 때 건전하게 해라는 내용이 주예요. 역학인으로서 비행을 할 때에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구요. 점 보러 오는 손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맞아도 맞는다는 이야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신상 털어놓기 싫어서. 그러면 못하죠. 그럼 서로 간의 대화가 원만해지지 못하죠. 또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심심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고민 털어놓기 위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재미로 오는 사람 등 종류가 많아요. 노하우가 있습니까? 점 보는 방법은 부지기수에요. 각자 노하우, 스타일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학 중심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해요. 좌절하는 손님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손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라고 이야기해줘요. 가만 보면 요즘 잘나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잣대로만 생각하거든.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만 평가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총명하고 하는 말도 다 옳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자신의 잣대로만 남을 대하면 남들이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나와 다르고 못한 사람도 있다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해야 원만하게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죠. 미아리점성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두 가지로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첫째는 서민경제가 좋아져야죠. 둘째는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하겠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죠. 공동 토론도 많이 하고 좋은 책이 새로 나오면 같이 보기도 하면서.
원천자료	인터뷰

No.	15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이수남 역학사(개나리역학사)**	키워드	

이야기

역술업에 종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세 살인가 네 살에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마마(천연두)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그 병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눈이 머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맹학교를 보내자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맹학교에 가면 나중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점 공부를 시키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기셔서 제가 점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학교는 못 가봤어요. 아홉 살 때부터 점공부를 했는데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하다는 선생님 있어서 그 양반을 찾아가서 공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5~6년 동안 점 공부를 했어요.손님을 보고 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열네 살부터죠. 지금 제가 일흔한 살이니까 60년 조금 못 되었네요.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점 공부는 정신력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그때 점자를 안 배우고 무조건 외워야 했어요. 점자로 배우면 머릿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외운 것을 잊어버리면 선생님한테 맞어. 종아리도 맞고. 점자는 나중에 공부 끝마치고 배웠지요.

공부에 썼던 교재가 있습니까?

요집서(要集書)라는 게 있어요. 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백 가지 이백 가지나 되요. 택일하는 법도 있고…… 택일하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고사 지내는 택일, 혼인하는 택일, 출행하는 택일, 이사 택일…… 수십 가지인데. 그걸 배워서 다 외워야 하죠. 또 사주보는 법도 있고, 산통을 흔들어서 산가지를 뽑아 64괘로 보는 점도 있죠.

어디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요즘도 길에 책 펴고 점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큰 종이에다가 신수 · 재수 · 사주 · 궁합 쭉 써놓고 돌멩이로 눌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점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점을 보러 왔죠. 저는 마포 아현동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마포에 있다가 사방으로 다녔어요. 봉천동으로 뭐 여러 군데 많죠.

미아리고개에 들어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는 76년에 들어왔어요. 지금 한 30년이 넘었죠. 처음부터 집 상호가 개나리였어요. 우리는 두 내외가 다 눈을 못 봐요. 우리 마누라가 올해 예순여덟인데 두 내외가 다 점을 보죠. 우리 마누라는 주로 집에 점을 많이 보고. 제가 없으면 마누라가 보고. 저는 일을 많이 하러 다니죠. 점하는 사람은 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 낳게 해주는 점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좋게 해주는 점도 있고, 횡액이라고 맞은 사람 액을 막아주는 보액(補厄)을 위한 예방도 있고, 살이 많은 사람 살풀이해 주는 예방도 있고, 명이 짧은 사람 무병장수하라는 예방도 있고. 그런 거 하러 많이 다니죠.

독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나가서는 주로 독경을 하죠. 아픈 사람 낳게 해주는 경도 있고, 액을 막아주는 경도 있고, 상황에 따라 경이 많죠.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셋이 다섯이 하는 것도 있고 108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은 때마다 다른데 두세 시간 걸리는 것도 너덧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옥추경(玉樞經)이라는 것이 있어서 귀신을 잡아 가두거나 쫓을 때 하는데 이런 건 왠종일 하기도 해요. 일에 따라 다르죠. 집안에서도 하지만 많을 때는 일하는 당에 가서 하죠. 정릉 북악당에서 많이 하죠. 거기는 우리 역리학회의 공영당이죠. 무당들이 쓰는 당은 따로 있지. 우리 역리학회 모임을 두 번 북악당에서 가져요. 10월 1일에는 서울지회 총회가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스무 살에 했어요. 일찍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가는 게 좋다고 해서 빨리 결혼 했어요.

언제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운 일 많았죠.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보면 어려움이 적을 텐데 우리는 못 보니까 어렵죠. 애 낳아서 키우는 일도 어렵고. 먹고 살 만큼만 벌었어요.

잘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노점할 때에는 하루에 4~50명씩 봤어요. 그때 복채는 쌌었지. 100환에서 200환은 했으으니까 하루에 4~5천환은 벌었지. 그게 큰 돈이야. 쌀 한가마에 3천환, 짜장면 한 그릇에 몇 십환 했을 때니까. 70~80년대에도 손님이 많았죠. 그때에는 여기에 7~80집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하신 분,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때보다 어렵죠. 경제가 좋아야 점집도 잘 되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돌아가야 우리 영업도 잘 돼요.

어떤 손님들이 많나요?

별별 손님 다 있었어요. 사주보러 오는 손님, 1년 신수 보러 오는 손님, 아파서 오는 손님, 이사를 어디로 가야 좋겠나 물어보는 손님, 궁합보러 오는 손님, 이름 지으러 오는 손님도 있고 많지요. 일본서도 많이 왔다 가요. 여행사에서도 많이 소개시켜줘서 왔다 가요.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비밀이 없어요. 점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해. 손님에게 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 해.

간판에 영점이나 신점이라 쓴 점집들은 여기랑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맹인들은 영점, 신점은 보지 않지. 우리는 역학을 배워서 하는 거니까 무당이나 만신들이 보는 점과는 질이 달라요. 영점, 신점도 있지만 우리한테 많이 와요. 우리는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봐. 옷을 잘 입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입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얼굴 상태라든지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이 오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사주에 나온대로 봐주니까 정확하잖아.

주역점과 사주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역점, 사주점은 다 뿌리가 같은 거야. 모든 것은 다 주역에서 나왔어. 사주라는 것은 평생을 보는 거고. 신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운수지. 그게 달라. 일수도 보죠, 매일 매일. 일수도 보고 월수도 보고. 뭐 큰 사업하는 분들은 다달이 와서 보는 사람도 있어. 그 달 초사흘을 넘지 않게 와서 이달의 운수는 어떤지 본다고.

점은 믿음, 정성이 중요해. 장난 삼아 보면 잘 안 맞아. 술 한잔 먹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잘 안 맞어. 점괘는 어떻게든 나오게 돼있어.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만 잘 맞게 나와.

미아리점성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점성촌이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직 미아리점성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되요. 많이 협조해 주세요. 저희도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원천자료	인터뷰

No.	16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이희택 역학사(동양철학관)**	키워드	

이야기

선생님이 살아오신 역사라던지 이곳 점성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맹인 역학업자의 역사라 한다면 수 천 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에 실명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을 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안마업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사람들로 인해 시작이 됐으니 안마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요. 그 후에 맹인들도 학교를 나오고 시각장애인 전문학교를 통해서 안마나 다른 일을 가르치고 하니까 맹인들 업이 다양해 졌지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형편상 가지도 못해서 이 복술공부를 하게 하게 됐죠. 복술공부라 하면 옛날부터 경문공부와 육효를 공부했는데 나는 육효 공부만 했죠. 나중에는 점점 육효를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명리(사주)를 공부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처음 시작한 곳은 어디십니까?

고향인 수원에서 시작해서 아들 일곱 살 되는 해에 아이 공부시킨다고 올라왔지요. 수원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엔 방도 얻지 못해서 길에서 점을 쳤어요. 노점 생활 2년 동안 큰돈은 못벌었는데 돈을 조금 만들어서 하꼬방을 얻어 시작하고 그때부턴 잘 벌었어요. 일 이년 벌어서 부모님들 논도 한 섬 씩 이상 사드렸더니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칠남매 집안에서 돈으로는 제일 성공한 셈이었죠. 맹인들이 점치는 역사는 오래됐는데 심봉사는 점을 안배웠나봐.

심청전에 점 치는건 안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오셔서 자리 잡은 곳은 어디십니까?

비원 정문 바로 맞은 편이었죠. 돈화문 주유소. 예전에는 예식장도 있었고 처음 올라와 거기서 살다가 헐리게 되었죠.

그 쪽에 역학하시는 분이 많았습니까?

비원 정문 앞에 단성사가 있는데 단성사에서 올라오면 종묘로 가고 낙원동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 위에서부터 비원 건너 쪽까지 맹인들이 많았지요. 맹인이 많기로 소문이 난 곳은 탑골공원을 비롯해서 종로3가. 그 곳은 노점 보는 맹인이 열 명 정도 상주 했지요.

지금 탑골공원에는 보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맹인은 없을 겁니다. 그때 종로3가에 거주하던 맹인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때는 소문도 많이 나서 종로3가에서 하던 분들 중에 성공한 분들은 종로에 집을 사서 살았죠. 그때도 종로는 세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초보자들은 남산에 많았고요.

명동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말씀이신가요?

육교 있고 쭉 올라가는데요. 초보자들은 조그맣게 세를 얻어서 남산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적십자회담하러 온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오게 되면 초

라한 것 보이지 않겠다고 철거시켰지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대부분 여기 돈암동으로 넘어왔죠. 그니까 남산 사람들이 72년도에 거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리로 와서 형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집값이 다른 데보다 싸서였고 80년대에는 한 60여호 됐었어요. 지금은 세어보진 않았지만 반 숫자밖에 안 될 거에요.

선생님은 왜 돈암동으로 오셨나요?

나는 수원 살다가 66년도에 서울에 더 잘 벌려고 왔는데 잘 안돼서 도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71년도에 이쪽으로 올라왔지요.

이름은 원래부터 동양철학관으로 하셨나요?

처음에 하꼬방 얻어서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손윗 매형이 “대한문복가(大韓問卜家)”로 하라고 해서 붙였었지요. 그때는 철학이란 말이 없었고 다 문복가였으니까. 그리고 대나무에다 흰 깃발을 달아 꽂았어요. 뒷골목에다가 간판 붙여봐야 보이지도 않고 앞에 와서나 보이니까 그렇게 깃발을 해놓으면 이층집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큰길가에서 깃대를 보고 와요. 지금은 다 고층건물이라 깃대가 소용 없지만요. 그러다가 그 간판 가지고 서울을 왔는데 우리집 근처 비원 앞 유명하다는 분이 손님이 많으니까 서기를 두고 점을 치셨거든요. 그 서기로 계신분이 ‘대한’이라고 하지 말고 ‘동양’이라 하라 그러셔서 그 때부터 동양으로 바꿨지요.

철학관이란 이름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나요?

역리업자들이 철학관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부터 아닐까 해요. 우리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점술가라고 하셨지 철학관 소리는 없었어요. 문복가에서 철학관이라고 변한건 80년대 와서죠. 80년대에 젊은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시작해서 간판을 붙이게 되니까 철학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육효는 철학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80년대 이후 사람이고 그 전에는 전부 육효뿐이었어요. 육효는 점이고 그래서 문복이라 하고 점술가라 그랬지요. 사주랑 육효는 전혀 달라요. 사주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육효는 당장 현실적인 것을 보는 거죠.

선생님은 독경도 하십니까?

그렇죠. 역리업자로 할 것은 다했어요. 어려서는 독경도 많이 했어요. 그땐 아프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독경을 하면 잘 낫습니까?

안 낫는 건 못 봤어요. 그때는 아파도 우선 경부터 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이 먼저가 아니고 경을 먼저 해보고 병원을 가요. 그래야 치료발을 잘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귀신 때문에 치료 받아도 소용이 없으니 그 귀신 젖힌 뒤에 치료 받는 것이 순서였지. 그렇게 되니까 독경이 지금보단 더 많이 하고 그랬지요.

차차 독경이 많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것은 아닌데 이제 손님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북 두들기고 그럼 이웃에 신고도 들어오고.. 그때는 본토박이들이 많으니까 누구네 아무개가 많이 아프다고 동정들을 하지. 시끄럽다고는 안 하지. 그리고 여러 날 할수록 좋아해요. 왜냐면 시

	골에서는 먹는 게 귀할 때니까 집에서 먹고 잠자느니 거기 구경하러 가면 술을 공짜로 얻어먹거든. 정릉 북악당에서도 독경을 하나요? 지금은 당이 줄었지만 그때는 당이 여러 군데 많았어요. 미아리에도 고개 올라가면 왼쪽으로 당이 있었어요. 미아리당인데 옛날 노인네들은 되너미당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넘어 왔었다고. 그래서 청나라 때 넘어 온 고개라고 해서 되넘이당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가 미아리고개에 있으니까 미아리당이라고 불렀어요. 없어진 지 한 20년 밖에 안돼요. 당이 역사가 오래 됐어. 몇 백 년 됐었어. 민씨네(명성황후 민비)가 자꾸 아이만 나면 죽고 손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정성을 드리고 그랬더니 꿈에 동네 미아리고개를 가면 어디어디를 땅을 파봐라. 그럼 거기서 미륵이 나올테니 그것을 대대로 잘 위해라. 그래서 민씨네가 그렇게 손이 안 끊기고 내려왔다고. 미알이, 미륵이 알려줬다고 미아리야. 그러니까 그 지명이 미륵 때문에 생겼다는거야. 우리 어려서 다닐땐 미아리고개가 지금보다 엄청 높았지요. 66년도에 깎았어요. 전차가 그때 없어졌으니까. 깎고 고가를 놨지. 미아리 막바지 올라가면 미아리당하고 고개하고 똑같았었는데 그걸 깎고 보니까 우리 길로 두 길이 되도록 깎았더라고. 당 안에는 미륵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옮겨가서 정릉북악당에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는 미아리당이 제일 유명했습니까? 제일 오래되고, 자손 못 보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효과들을 보고 그랬어요. 동대문 창신동 올라가는데 가면 자주당이라고 있었고. 자주당은 왜 자주당이냐면 단종이 그쪽으로 끌려 넘어 가는 장면을 부인 송씨가 언덕에 올라가서 봤는데 송씨가 단종이 보고 싶으면 자주색 치마를 입고 거기 올라가서 보라고 했대. 옛날에는 시골 웬만한 마을에는 당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선생님을 위해 스스로 점을 보신적은 있나요? 내 점은 내가 안 치고 서로 친구 간에 점괘를 내달라고 하지요. 가까운 사이,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치고 쳐달라고 하고 그랬지. 옛날에 딸이 자꾸 점을 쳐달라고 해서…… 친정아버지한테 와서 점을 쳐달라고 하니까 농담 삼아서 그러면 돈 내라고 했지. 그러니까 딸이 돈 대신 비녀를 빼 놓고 이걸 낼테니 아버지 보고 쳐주라는 거야. 점 복(卜), 비녀 채(釵). 그래서 복채라고 그래.
원천자료	인터뷰